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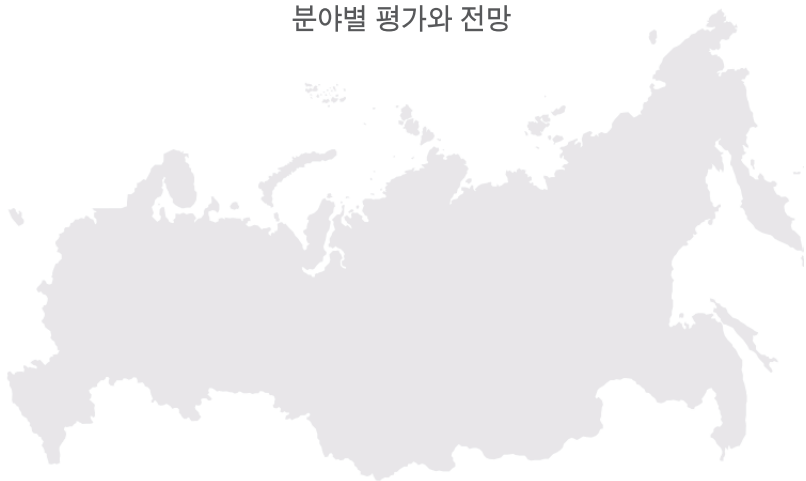
2023 RUSSIA REPORT

끝나지 않은 전쟁

2023 러시아

Issues & Analysis

분야별 평가와 전망



2023 RUSSIA REPORT

끝나지 않은 전쟁

2023 러시아

Issues & Analysis

편집인 김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기획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발행일 2024년 3월 25일

퍼낸곳 다해 (02-2266-9247)

디자인 전소라

등록번호 제301-2011-069호

ISBN 979-11-5556-271-0 95340 비매품

이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102950)

차 례

▪ PART I 국내정치

푸틴 대통령의 대권 기반 마련과 인적 개편, 그리고 자력갱생 노력 연담린 5

▪ PART II 일반경제

회복되는 러시아 경제와 구조 전환 노력 박지원 57

▪ PART III 대외정책

러시아 반서방 대외정책의 현황과 전망 이주연 87

▪ PART IV 군사안보

전쟁 승리를 위한 국력 집중 김규철 115

▪ PART V 한러관계

퇴행인가? 정중동인가? 변현섭 137

▪ PART VI 사회문화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세계로: 국가주의와 신지역주의에 대한 변론 이지연 159



푸틴 대통령의 대권 기반 마련과 인적 개편, 그리고 자력갱생 노력

연담린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I. 들어가며

- 2023년은 대선을 앞둔 해로 푸틴 대통령의 대권 기반 마련과 러시아 정체성의 회복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해로 평가할 수 있으며, 러시아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엘리트들의 단결력을 입증한 해였음.
 -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기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인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특히 외부의 위협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함.
 - 이는 러시아식 정치체제 유지 및 확립을 위한 엘리트들의 단합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며,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통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의 푸틴 체제는 ‘비공식의 제도화’라는 러시아만의 독특한 정

- 치체제 및 정책 결정 과정을 답습하고 있는바, 이러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 재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 물론 기존 체제를 지지하고 영속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러시아 정치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을 대신할 만한 인물을 발탁하기도 쉽지 않음.
 - 이는 엘리트들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고, 더욱이 기존 체제를 확실하게 맡고 책임질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엘리트들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지도자가 다른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체제 전복의 가능성도 존재함.
 - 따라서 엘리트 그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지하고 유지해 줄 수 있는 푸틴 대통령의 존재에 대한 강한 신뢰와 함께 지원을 보내고 있음.

● 2023년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는 푸틴 대통령의 제8대 대선 출마 선언이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 내부적으로 제도적 정비와 향후 러시아의 발전모델이 제시됨.

- 푸틴 대통령은 12월 17일에 열린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출마의 변으로 ‘주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향후 러시아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강대국으로 이끌겠다고 밝힘.
- 중앙선거위원회는 2024년 대선에 처음 도입하는 디지털 선거 시스템인 ‘Vybory 2.0’을 개발했으며, 실전 테스트와 전문가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선거 시스템 정비를 마침.
-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지역에 대한 ‘통일의 날(День восоединения)’을

제정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는 한편 대선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함.

- 한편, 11월 14일 대선에 관한 법 개정을 승인했으며, 이번 개정 법안은 선거에 대한 언론 취재 범위를 한정하고,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에 대한 선거 절차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푸틴 대통령은 ‘공급경제 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러시아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경제제재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들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러시아가 지니고 있었던 산업 편중 및 자원 기반 경제의 면모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2023년에 주목할 만한 사안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적 개편이 지속해서 이뤄지면서 엘리트의 교체와 충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현 러시아 집권 세력인 정치엘리트는 효율적이고 충성심 높은 엘리트의 재생산을 위해 과거 소련 시절의 엘리트 충원 시스템인 ‘노멘클라투라’를 현대 러시아에 구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이는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을 복원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엄격한 국가적 통제하에서 정치엘리트를 양성하고 충원한다는 의미이며, 현재 러시아는 선거 등을 통한 민주주의적 절차로도 엘리트들이 충원되기 때문에 소련 시절의 시스템을 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중요한 것은 푸틴 대통령과 푸틴 사단, 그중에서도 실로비키는 자신들이 원하는 엘리트를 양성하고 충원하기를 원하며, 이로써 현 체제의 지속성과 견고함, 단결을 확립하길 원한다는 것임.
- 그런 차원에서 푸틴 사단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체제를 지지하

고 유지할 수 있는 ‘순수 혈통’의 차세대 엘리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인적 개편에도 푸틴 사단의 의중이 십분 담겨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이 구축한 엘리트 충원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21명의 주지사가 새로 선출됐는데, 이들은 러시아 엘리트 충원 시스템으로 선발되고 있으며 연방 행정 예비인력 교육기관인 러시아국가경제·행정아카데미에서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을 지니고 있음.
- 그 외에도 연방주체의회 의원 선출과 상원의원 교체, 장관, 차관, 시장, 국유기업 임원, 정부기관 대표 등을 새로 임명했음.
- 이러한 인적 개편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① 푸틴 체제의 공고화, ② 최근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역동성 제고, ③ 효율적인 정부 기능에 대한 대(對)국민 홍보, ④ 사회여론의 반영, ⑤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원칙적 대응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분출되어 나왔으며, 행정명령 및 법률 제정을 통해 반체제 활동을 지지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행정부와 국가두마(하원) 차원에서 이루어짐.

- 독립 여론조사기관인 스타트업(Startup Pollsters)은 기존 여론조사 기관과 차별화되는 질문과 응답지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내 여론 수집을 시도하고 있음.
-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반전 시위와 의사 표현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러시아어와 영어 반전 메시지

가 담긴 인형과 장난감 등 이른바 ‘작은 피켓’을 이용한 시위가 2,000여 건 이상 보고됐으며, 관련 이미지들은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반정부·반전 성향의 언론매체 다수에 활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많은 언론매체와 언론인이 근거지를 국외로 옮기고 있음.
- 또한, 러시아 당국은 인권단체인 ‘모스크바헬싱키그룹(MHG)’을 해산했으며, 독립언론 메두자(Медуза)를 불법화했고, 독립 방송국 도시티(Дождь, Rain)를 불온한 언론으로 규정함.
- 언론인의 구속도 이어졌는데, 특히 러시아 당국은 월스트리트 저널 특파원인 게르시코비치(E. Gershkovich)를 구금했으며, 코메르산트와 베도모스티 신문의 특파원이었던 사프로노프(I. Safronov)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음.

● 2023년 12월 14일에 열린 푸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핵심 키워드는 ① 주권, ② 경제 성장, ③ 전쟁 목표 달성, ④ 민생, ⑤ 대선 출마였으며,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전쟁 상황에서도 푸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단합을 바탕으로 강한 국가, 강대국 러시아 건설을 위해 대내외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로 요약됨.

- 이러한 자신감의 원동력은 전쟁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급주도 경제모델’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러시아식 주권국가’ 모델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푸틴의 5기 대선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보임.

● 2023년 푸틴 대통령 정권에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었던 사건은 프리고진 반란과 이슬람 시위였음.

-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E. Пригожин)이 이끈 무장 반란은 비록 국방부 관료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푸틴 체제에 위기의 순간이었으며, 푸틴 대통령 자신도 지도력에 타격을 입은 것이 분명해 보임.

- 러시아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의 시위는 푸틴 체제에 또 하나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이슬람 벨트’에 형성되어 있는 공화국들의 반란은 신생 러시아를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갔던 경험이 있어, 해당 지역은 푸틴 대통령 정권 차원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자체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체첸공화국과 이번 ‘이슬람 반유대주의 시위’를 주도한 다게스탄공화국은 이슬람 벨트의 중간 지대에 있으며 캅카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언젠든 ‘하마르티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러시아 남부 국경선 방어 차원에서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요주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상에서 언급한 2023년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국내 정치를 평가 및 분석하고, 2024년도를 전망하려고 함.

II. 2024년 대권 기반 마련

1. 푸틴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

- 12월 8일 푸틴 대통령은 2024년 제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8일 크렘린에서 열린 ‘조국 영웅의 날’ 기념행사에서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한 군인들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스파르타 대대의 지휘관 조가(A. Жора) 중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요청하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직에 출마할 것”이라고 화답함.
 -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군사작전 지역의 군부대 지휘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특별군사작전과 대선 출마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같은 날 팜필로바(Э. Памфилова) 러시아 중앙선거위원장은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를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실시할 계획이라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치러진 네 번의 대선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내년 대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힘.
 -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12월 기준 83%였으며, 내년 대선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11월 18일 러시아 연방보안국 출신으로 유명 군사 블로거인 기르킨(И. Гиркин)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가짜’ 선거 및 내외부 위협에 맞서 단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힘. 기르

킨은 7월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한다면 러시아 국민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뒤 극단주의 선동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수감 중임.

* 12월 20일 중앙선거위원회 팜필로바는 2024년 대선 출마자는 모두 16명이라고 밝혔으며, 제8대 대선 최종 후보는 모두 네 명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 레오니드 슬루츠키 자유민주당 대표,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공산당 소속 의원,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새로운사람들당 소속 국가두마(하원) 부의장임.

* 반정부 성향의 언론인 겸 변호사인 둔초바(Е. Дунцова)가 700명 이상의 지지자로 구성된 추대그룹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 후보로 대권 도전에 나섰다, 중앙선거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둔초바는 야블로코당에 자신을 대선 후보로 지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블린스키(Г. Явлинский)는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자유민주당은 당 대표 슬루츠키(Л. Слуцкий)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으며, 슬루츠키는 “러시아 대통령(푸틴)의 표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출마와 관계없이 푸틴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언급함.

* 러시아정의당 또한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의 무소속 출마는 러시아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라는 이미지 창출 효과를 위한 전략이라고 보이며, 초당적 지지로 당선됐다는 상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임.

* 한편, 이는 통합러시아당의 부정적 이미지와 통합러시아당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잠재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음.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인 베글로프(A. Беглов) 역시 통합러시아당의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2019년 주지사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례가 있음. 베글로프는 2003년부터 통합러시아당 소속 당원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지구당 비서와 최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음.

<표 1> 푸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구분	2023.06	2023.07	2023.08	2023.09	2023.10	2023.11	2023.12
지지함	81	82	80	80	82	85	83
지지하지 않음	16	15	16	17	15	13	14
무응답	3	3	4	3	3	2	3

출처: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

● 12월 17일 푸틴 대통령은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함.

-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북부 박람회장(ВДНХ)에서 열린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통합러시아당 당 대표인 메드베데프는 “푸틴 대통령이 우리의 후보로서 승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합법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이는 통합러시아당원 모두의 과제”라며 지지를 선언함.

* 전당대회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지도위원회 위원, 지도위원회 상임위원, 최고위원회 위원들을 새로 선출했으며, 지도위원회 위원으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수장인 푸실린(Д. Пушилин)이 선출됐음.

* 전당대회에서 통합러시아당 부원내대표인 이사예프(А. Исаев)가 모든 연금 수급자는 주택공공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발표함.

-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자급 자족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밝힘.

* 푸틴 대통령이 말한 주권은 정치, 경제, 기술, 정신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 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러시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같은 날 온라인 통신사 ‘레그눔(Регнум)’의 기자 자루빈(П. Зарубин)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세상이 바뀌어 서방과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다고 언급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Z. Brzezinski)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자원을 수탈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피력함.

- 전당대회 전날인 16일 푸틴 대통령 지지자 700여 명으로 구성된 추대그룹은 푸틴 대통령을 대선 후보(무소속)로 지명했음.

* 러시아 대통령 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최소 500명 이상의 지지자로 구성된 추대그룹에 의해 후보로 추천받아야 함.

* 추대그룹 명단은 ‘조국 수호자들’ 재단에서 작성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은 푸틴 대

통령의 조카인 치빌레바(A. Цивилева, 결혼 전 성(姓)은 푸티나)임.

- * 추대그룹 명단에는 고려인 올레크 박(O. Пак)이 포함됐으며, 그는 극동연방대학교 의료센터 의사이자, 통합러시아당 관제 기구인 전러시아인민전선(ОПФ) 연해주지부 공동의장임.
- * 추대그룹에 포함되는 조건은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지지로 보내고 러시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어야 함.

2. 제도적·사회적 정비

-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국가자동화시스템의 디지털 아날로그 ‘Vybory 2.0’을 2024년 대선에 처음 도입하기로 함.
 -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창조는 2020년 12월 중앙선거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으며, 2022년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음.
 - 4월 4일 중앙선거위원회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일관된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4년에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힘.
 - 7월 3일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인 팜필로바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024년 3월 대선에서 ‘Vybory 2.0’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과 글로벌 시스템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갖춘 시스템이라고 언급함. 또한, 모든 디지털화는 최대한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시스템 교육은 10월에 시작됐으며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문가를 교육하고 정보 교환을 위한 시나리오와 규정을 개발하는 것이었음.
 - 두 번째 단계로, 타타르스탄공화국에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건부로 ‘후보 1’과 ‘후보 2’를 지정하여 연습 투표가 진행됐음.

- 온라인 투표 테스트의 목적은 2024년 3월에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를 예상하여 중앙선거위원회 데이터 처리 센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복합체에 대한 부하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음.
 - 이번 테스트로 ‘Vybery 2.0’ 운영자(시스템 관리자, 정보 센터 책임자, 선거위원회 위원)는 인터페이스의 가용성과 전체 시스템 노드의 작동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는 원격 전자 투표(DEG), 통합 식별 및 인증 시스템, 모바일 유권자 메커니즘 및 기타 하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복합체가 포함되었다고 언급함.
 - 이번 테스트를 통해 중앙선거위원회는 프로세스 참여자 사이에 오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설명된 절차나 책임이 있는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기술적 불일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밝힘.
 - 선거 과정에서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투표 형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유권자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특히,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자 투표권이 있는 모든 시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 유권자 등록부의 생성은 이중 투표 가능성을 제거하고 선거 목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은 ‘통일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
-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도네츠크·루간스크·자포리지에·헤르손)을 대상으로 ‘통일의 날’을 제정하는 안이 9월 19일 국가두마에서 채택되었고, 9월 25일 연방회의(상원)에서 승인됨.

- 10월 3일 푸틴 대통령은 ‘통일의 날’ 제정안에 최종 서명함.
- ‘통일의 날’ 시행일은 매년 9월 30일이며, 점령지를 대상으로 ‘통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점령지가 자국 영토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이중 포석이라는 평가임.
- 의회에 제출된 제정안은 푸틴 대통령령으로, ‘러시아 군사적 영광과 기념일’에 관해 연방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1995년 3월 13일 제정된 이 법은 러시아의 군사적 영광과 기념일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해 놓았음.
- 기존의 ‘군사적 영광과 기념일’ 대상 지역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22개 공화국과 46개 주, 9개 변경, 4개 자치구, 1개 자치주, 3개 연방시(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세바스토폴) 등 총 85개의 연방주체였으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점령지가 추가되어 모두 89개 연방주체가 ‘통일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음.

● 11월 14일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 개정안을 승인했음.

- 이 법안은 10월 25일 국가두마에서 채택됐고, 11월 8일 상원의 승인을 받았음.
- 이 법은 선거에 대한 언론 취재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위원회 회의는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만 취재할 수 있고, 프리랜서 기자와 독립 언론사들은 취재가 제한될 수 있음.
- 군부대에 있는 투표소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도 제한되며, 지방정부 및 군 당국의 사전 허가가 없으면 군사 기지나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선관위 활동에 대한 취재도 금지됨. 이에 따라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대선 투표가 시행되면 취재를 위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이 점령 지역들은 현재 계엄령이 발령되어 있음.

- ‘차단된 자원’, 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되며, 이는 사전에 정보를 차단해 단속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음.
- 개정법은 또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선거 절차를 중앙선거위원회와 국방부, 연방보안국, 지방정부 수장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이번 선거법 개정이 러시아가 병합한 새로운 영토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러시아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선거 취재 범위의 제한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선거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후보자들과 민주적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대선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미래에 커다란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주장함.

- 선거법 개정안을 승인한 다음 날인 11월 15일, 푸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대부분의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선거에서 비디오 감시를 많이 활용한다면 “비디오 감시만큼 효과적인 공공 통제는 없다”고 밝힘.
- 또한,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브치옴(ВЦИОМ) 조사 결과 선거 신뢰도가 2020년 60%에서 2022년 69%로 올라갔다면서 “선거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언

급함.

- 한편, “정당성은 모든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며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지정한 참관인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거 과정에 간섭하고 압력을 넣으려는 모든 시도는 억제될 것이라고 경고함.

● 12월 22일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보유한 ‘롤프(Рольф)’의 주식을 연방국가재산운영청(Росимущество)에 양도하는 명령에 서명함.

- 롤프는 7대 국가두마 의원인 페트로프(С. Петров)가 1991년도에 설립한 회사로, 2017년부터 비노그라도바(С. Виноградова)가 이끌고 있음.
- 롤프는 신차와 중고차,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러시아 최대 자동차 판매 회사임.
- 자회사로 ‘롤프 모터스(Rolf Motors)’, ‘롤프 에스테이트 상트페테르부르크(Rolf Estate St. Petersburg)’ 등이 있으며, 이들 지분의 99%를 모회사인 롤프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는 사이프러스에 설립된 ‘델란스 리미티드(Delance Limited)’가 소유하고 있음.
- 연방국가재산청은 러시아연방 정부 법령 제432호에 따라 설립됐으며, 금융부 산하기관으로 러시아 연방재산 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있음.
- 현재 연방국가재산청은 야코벤코(В. Яковенко)가 이끌고 있으며, 그는 대통령 행정실 통제국 국장, 연방이민청 부청장, 중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부 수석 연방 수사관 등을 역임한 친푸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롤프의 주식은 설립자 페트로프가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델란스 리미티드의 6억 6,070만 주와 롤프

모터스의 15,198주임.

- 이번 푸틴 대통령의 결정은 대선 출마 직후에 나온 것으로서 재산 신고 의무에 따른 사전 정지(整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3. 푸틴 대통령, 새로운 러시아발전 모델 제시

● 2023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SPIEF)에서 푸틴 대통령은 경제주권을 갖춘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음. 즉, 새로운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건설될 것인지 제시함.

- 핵심은 러시아를 경제주권 개념에 입각한 ‘공급경제 모델로 전환’ 하는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섯 가지 영역을 언급함.
- 첫째, 고용의 발전과 구조의 개선. 예를 들어, 교육 시스템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졸업생 취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취업의 질은 교육기관의 주요 성과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둘째, 창업 활동의 확대. 자영업을 시작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계약 도구 배포, 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한 우산 보증 프로그램 확대, SME+ 부문(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측면을 강조함.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 품질 등급(러시아를 떠난 기업 운영과 유사)을 새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셋째,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 관할권의 강화. 기업가는 자국에 돈을 저장하고 투자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특별행정지역으로의 전환 및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핵심 산업 자산을 중앙 정부로 신속하게 반환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함.

- 넷째, 투자 및 성장 보장. 기술 주권을 달성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산업제품 생산 프로젝트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 또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 BRICS, SCO 등의 회원국들과 ‘신뢰할 수 있는 협력 체인과 기술 파트너십’ 구축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세 공제 메커니즘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함.
- 다섯째, ‘핵심 생산’ 시스템의 최대 확대. 국가 프로젝트인 ‘노동 생산성’을 사회 영역을 포함한 새로운 부문 및 산업으로 확장하고, 이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연방역량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임.
- 여섯째,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광산업, 제조 산업, 농업, 운송 및 물류, 무역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자동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러한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드론 보급, 산업용 로봇 생산, AI 분야를 포함한 러시아 소프트웨어 생산 등이 활성화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경제와 산업은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관리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함.
- 이러한 생산 및 공급주도 경제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현대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최대한 확대하여 경제 성장을 창출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품질 수요를 늘려 고품질 공급의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과제임.
- 블룸버그 이코노미크스의 러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사코프는 공급경제가 주로 증권 거래소에서 기관 및 소매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하는 대기업에 의해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제한된 수입과 증가하는 예산, 한정된 국민 복지 기금 규모로 인해 정부는 논리적으로 기업이 주식과 공공 부채를 발행하여 투자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2~3년 안에 러시아 비(非)거주자로부터 구매한 외국 기업, 방위산업업체, 아직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대규모 국유기업이 증권 거래소

에 상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함.

III. 인사 개편과 엘리트 충원

1. 러시아의 엘리트 충원 과정

- 엘리트 선발과 양성에 관한 문제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속 공직·행정예비인력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음.
 - 실무적 차원에서 대통령 행정실의 공직·인사국이 뒷받침하고 있음.
 - 공직·행정예비인력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① 대통령에게 러시아 공직 체계의 제도적·조직적, ② 행정 예비인력의 선발 및 양성과 효과적 활용에 관한 국가정책 입안, ③ 행정 예비인력의 잠재력 개발 전략 마련 등임.

-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연방 노동부와 내각사무국이 엘리트의 훈련 및 재훈련과 관련한 주무·협력 부서로 지정되어 있음.
 - 러시아는 엘리트 충원을 사실상 행정 영역이라는 특정 부문과 차세대라는 특정 연령대 인물의 발굴과 육성에 국한하고 있음.
 - 또한 ‘행정 예비인력’을 3개 층위와 3개 수준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 러시아에서 선발, 양성되고 있는 엘리트는 철저히 50세 이하의 차세대로서 추후 행정 영역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 행정 예비인력 층위와 인원

층위	인원
대통령 행정 예비인력	144명
연방 행정 예비인력	4,601명
지역 행정 예비인력	7,767명

출처: 양갑용·장세호(2021),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엘리트 충원 과정에 관한 연구,” p. 82.

<표 3> 행정 예비인력 수준과 조건

층위	명수
고위 수준	연방 또는 지역 수준 국가기구, 국영기업·단체의 고위 관리자 (50세 이하, 행정 경력 6년 이상 조건 충족 시)
표준 수준	연방 또는 지역 수준 국가기구, 국영기업·단체의 중간 관리자 (45세 이하, 행정 경력 3년 이상 조건 충족 시)
차세대 수준	연방 또는 지역 수준 국가기구 공무원, 국영기업·단체의 직원 (35세 이하 조건 충족 시)

출처: 양갑용·장세호(2021),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엘리트 충원 과정에 관한 연구,” p. 82.

● ‘행정예비인력 교육 및 재교육(2010-2024)’ 프로그램 시행 중.

- 2008년 8월 1일 대통령령에 따라 현재 ‘행정예비인력 교육 및 재교육(2010-2024)’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
- 이 프로그램은 대통령 행정실 주도하에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예비인력이 발표되고 있으며,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2024년에 종료되며, 이후 개정된 법령하에 선발된 새로운 인력들을 위한 교육이 시행될 예정임.

2. 2023년 ‘대통령 행정 예비인력’

● 대통령 직속 ‘대통령 행정 예비인력’

- 2009년 12월 21일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 예비인력’ 담당 기구가 설립됨.
- 2013년 2월 11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속·공직행정예비인력위원회가 설립됨.
- 2014년 12월 4일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 행정 예비인력’의 새로운 목록을 승인, 발표했으며, 주기적 갱신되고 있음.
- ‘대통령 행정 예비인력’ 후보자에 대한 추천 권한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연방정부 각료, 기타 연방 국가기구 고위 공직자, 러시아 연방주체 최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짐.
- 후보자의 선발에는 인·적성검사, 전문성 검사와 같은 현대적 인력관리 기술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현재 선발된 인원은 138명이며, ① 연방정부 대표, ② 지방정부 대표, ③ 비즈니스 분야, ④ 교육·과학 및 사회단체 등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됨.
- 개별적으로는 국가두마 의원, 연방회의 의원, 연방 차원의 국가기구 내 다양한 수준의 관리자, 러시아 연방주체 및 지자체 대표자들, 기업 및 (민간)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포함됨.

● 2023년 ‘대통령 행정 예비인력’ 법령 개정

- 6월 23일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그 활동을 관리하는 연방 국가기관의 연방 예비인력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음.
- 새로 개정된 법령에는 연방 예비인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연방정부 기관장의 제안을 기반으로

러시아연방 공무원, 인사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대통령실에 따라 구성되며, 군 직위에는 고위 장교와 고위 지휘관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함.

- 10월 12일 크렘린은 연방 예비인력 개혁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해당 개혁은 대통령 보좌관인 미로노프(Д. Миронов)의 주도하에 대통령 산하 공직·행정예비인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개정된 연방 예비인력에는 연방 차관, 연방 행정기관장, 연방 청장 및 부청장 등이 포함되며, 지방정부와 국유기업도 포함될 것이라고 함.
 - 개정된 연방 예비인력 추천은 대통령 행정실 담당자, 정부, 연방 행정기구 수장, 주지사만이 할 수 있게 됨.

<표 4> 대통령 예비인력

년도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인원	144	140	135	143	142	138

출처: 크렘린 공직·행정예비인력위원회. <http://kremlin.ru/events/councils/by-council/3>

3. 2023 ‘러시아, 가능성의 나라’

- 청년 엘리트 선발 및 양성기구인 ‘러시아, 가능성의 나라’는 2018년 푸틴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졌음.
 - 이 기구는 2018년 5월 22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제 251호 ‘자율적 비영리단체 “러시아 - 기회의 날” 창설에 관한 법령’을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이 기구는 ‘러시아의 리더들’, ‘거대한 변화’, ‘디지털 혁신’, ‘미래의 교사’ 프로젝트들을 통합하고 있음.
- 이 기구의 대표는 코미사로프(А. Комиссаров) 러시아 대통령 산하 러시아국가경제·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 총장이 맡고 있음.
- ‘러시아, 가능성의 나라’는 러시아 전역의 인사, 사회 및 교육 프로젝트를 통합하며, 모든 연령대의 재능 있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기업가, 관리자, 청년 전문가, 자원봉사자 및 사회 운동가 간의 경험 교환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임.
- 7월 19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가능성의 나라’ 상을 수여하는 방안에 동의함. 이 상의 수여는 2024년 소치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 페스티벌에서 진행될 예정임.

4. 2023 ‘러시아의 리더들’ 콩쿠르

- ‘러시아의 리더들’ 콩쿠르는 신세대 관리자를 위한 공개 경쟁 플랫폼임.
 - 이 콩쿠르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7년부터 러시아연방 대통령 산하 러시아국가경제·행정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전역을 돌며 매년 진행되고 있음.
 - 참가자들은 전문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고, 개별 발전계획을 지도받고 대기업 리더들을 만나며, 최고의 관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됨.
 - 지금까지 5년 동안 러시아 전역과 세계 150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450명 이상의 참가자가 고위직에 임명됐음. 그중에는 지자체장, 시장, 연방정부 차관, 지방정부 의장, 러시아 최대 민간기업 및 국유기업의 최고 경영자, 대학 총장, 의

료 및 문화 기관 책임자 등이 있음.

* 가령 2022년도 '행정 트랙' 결승 진출자 구르츠코이(Г. Гурцкой)는 2023년 12월 1일에 러시아 보건부 산하 로스토프국립의료대학교 산부인과·소아과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됐음.

- 모든 참가자는 최고의 HR(Human Resources) 전문가로부터 관리 역량 개발에 대한 코칭을 받게 됨.
- 300명의 최종 결선 진출자는 러시아 대학에서 선택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100만 루블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행정 멘토를 만날 기회도 부여받음.
- 우승자는 ① 진로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받게 되며, ② 국가경제·행정아카데미 고등행정학교의 행정 예비인력 개발 특별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되고, ③ 대회 우승자가 된 외국인은 단순화된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 시민권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남부연방관구와 새로 편입된 4개 행정구역(돈바스지역)에서 최종 236명이 선정됐음.

- 11월 27일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린 남부연방관구 콩쿠르에서 총 28명의 우승자가 배출됐는데, 남부연방관구에서 22명,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6명이 선발된 것임. 이들은 2024년 2월에 열리는 슈퍼파이널에 출전하게 되며, 대회의 최종 결승전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임.

5. 2023년도 중앙 및 지방정부 인사들의 '임명, 사퇴, 경질'

● 2023년도에 단행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인사 교체는 푸틴 체제의 권력 장악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4년에 있을

대선 토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함. 이러한 목적 아래 중앙과 지방정부 인사들의 임명과 사퇴가 이어졌음.

- 우선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교육 및 경제, 종교, 정보, 통신, 군사, 안보 분야에서 엘리트 교체가 진행됐음.
 - 특히, 1월 11일 게라시모프(В. Герасимов) 국방부 제1차관이 우크라이나전 합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음.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우크라이나전 특수군사작전 지휘권 강화 및 규모 확대와 연관됐다고 강조함. 또한, 군대 유형과 부대 간의 긴밀한 상호 작용을 조직하고 모든 유형의 지원품과 군 그룹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 또한, 7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류크마노프(А. Люкманов)를 크렘린 정보보안분야 국제협력문제 특별대표로 임명했음. 류크마노프(1977년생)는 러시아 외무부 국제정보보안국 국장을 역임했으며,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음. 류크마노프를 임명한 것은 러시아 내 정보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외부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며, 새로 도입된 선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포석으로도 읽힘.
 - 9월 18일에는 러시아 디지털발전부 차관인 올레크 박을 국유통신 회사 ‘로스텔레콤’의 부회장으로 임명했음. 올레크 박(1976년생)은 로스텔레콤에서 국가서비스 인프라 발전과 정보통신시스템, 디지털서비스 통합플랫폼(Гостех) 개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짐. 그의 임명 또한 2024년 대선에서 활용될 새로운 선거 시스템 완성을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음.
 - 미슈스틴(М. Мишустин) 총리는 10월 18일 디지털발전·통신·대중매체부 차관에 우그니벤코(Д. Угнивенко)를 임명함. 우그니벤

코(1982년생)는 국영통신회사 ‘로스텔레콤’과 디지털발전·통신·대중매체부 인프라프로젝트시행국 국장을 역임했음. 우그니벤코의 임명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통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힘.

- 11월 28일에는 체베스코프(И. Чебесков)가 금융부 차관으로 임명됐음. 체베스코프(1980년생)는 2006년에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시카고대학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음. 체베스코프를 임명한 것은 연금제도 개선 및 국제제재에 대한 러시아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개발하고 안정화하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 개발과 개선은 2024년 대선에서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지사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수장, 시장, 장관 등이 교체됐음.

- 주지사 교체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지방선거의 하나로 21명의 주지사와 1명의 시장(모스크바)이 당선 및 재선됐음.
- 주지사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이 40대의 젊은 엘리트들이라는 것이며, 연방행정 예비인력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러시아가 새로 병합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지예주의 제1부 주지사로 톨마체프(С. Толмачев)가 임명됐음. 톨마체프를 자포리지예주 제1부주지사로 임명한 것은 러시아가 새로 편입한 영토인 돈바스지역에 대한 영속성과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읽힘.

6. 2023년도 9월 지방선거 실시와 10월 지방의회 보궐선거

●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며, 연방주체 의회 의원(보궐 포함)과 시의회 의원, 연방주체 수장, 국가두마(하원) 의원(보궐)을 선출했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러시아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89개 연방주체 중 85개 연방주체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며, 카바르디노발카리아공화국, 마리엘공화국, 상트페테르부르크, 야말네네츠자치구는 제외되었음.

* 상트페테르부르크 제7대 의회는 2021년에 구성됐으며, 2026년에 8대 의회 선거가 치러짐.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인 베글로프는 2019년 9월 18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2024년에 임기가 종료됨.

* 제7대 카바르디노발카리아공화국 의회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활동하며, 공화국 수장인 코코프(K.B. Коков)의 임기는 2019년 10월 3일부터 2024년 10월 2일까지임.

* 마리엘공화국에서는 의회 보궐선거만 치러졌음.

* 야말네네츠자치구 주지사 선출은 의회 투표를 통해 진행됐음.

-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는데, 다만, 다섯 개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진행됐고, 25개 지역에서는 온라인선거로 진행됐음.

- 이번 선거에서는 22개 연방주체 수장과 1개 시 시장, 16개 연방주체 의회 및 11개 시의회 의원, 4명의 국가두마(하원) 의원(보궐)이 선출됐으며, 새로 편입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에서도 선거가 진행됐음.

* 새로 편입된 네 개 지역의 수장은 2022년 10월 4일 임명됐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의회 의원들만 선출됐음. 각 지역의 수장은 푸실린, 파세치닉(Л.И. Пасечник), 발리츠키(Е.В. Балицкий), 살도(B.B. Сальдо)임.

- 이번 선거에서는 총 85,000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그중

12,000명은 무소속이었음. 이들 중 81,306명이 후보 등록을 했으며, 10,580명은 무소속 후보였음.

-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6천 5백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이 수치는 러시아 전체 유권자의 65%에 달한다고 발표함.

<그림 1> 2023년 지방선거 - 선거구와 후보 유형



-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통합러시아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2019년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하락했다는 것임.

- 22개 연방주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은 20개 지역에서 승리했으며, 단지 2개 지역(하카시야공화국, 오를주)에서만 러시아공산당 소속 주지사가 당선됐음.

-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2010년

부터 모스크바를 이끄는 소바닌(С.С. Собянин)이 76.3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음.

- 소바닌은 2010년에 모스크바 시장으로 임명됐으며, 튜멘주 주지사, 러시아연방 대통령 행정실장, 러시아연방 부총리를 역임했음.
- 2021년 국가두마 선거에서는 ‘소바닌 목록(Список Собянина, 모스크바 선거구 출마자)’을 공개하기도 했음.

● 연방주체 의회 선거에서도 통합러시아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며,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에서도 통합러시아당의 선전이 눈에 띄었음.

- 통합러시아당은 모든 지역에서 개헌선(2/3 의석)을 여유롭게 넘기면서 입법부를 온전히 장악하게 됐음.

● 23개 지역에서 치러진 연방주체 보궐선거에서도 통합러시아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

- 통합러시아당은 22개 지역에서 의원들을 배출했으며, 모스크바주에서만 무소속 의원(미하일 즈단, М. Ждан)이 당선됐음.

●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은 20~40%대를 기록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20%대의 투표율을 보임.

- 이러한 투표율 저조 현상은 2011년 총선을 기점으로 시작됐으며, 당시 부정선거와 선거 조작 의혹들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케메로보주 의회 선거에서는 81.01%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특이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음.
- 한편, 벨리키 노브고로드시 의원으로 새로운 사람들당 소속의 예

브게니 김(Е. Ким)이 당선되기도 했음.

- 예상대로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모든 지역에서 압승을 거둠.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당이 모든 지역에서 70%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발표함.
 -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주의 투표율은 65.36%였으며, 통합러시아당이 74.86%의 득표율을 거둠. 헤르손주 선거에 네덜란드·인도·브라질·스페인·아이슬란드·모잠비크 등 선거 관련 국제전문가들을 참석시켜 선거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음. 헤르손주 선거위원장인 자하로바(М. Захарова)는 “통합러시아당이 압승해 지방의회 의석 36석 중 28석을 차지했다”라면서 “선거에 대한 불만 사항은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함.
 - 우크라이나는 이번 선거를 ‘가짜 선거’로 규정하고, 결과가 어떻든 ‘무효’라는 입장을 피력함.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번 선거는 국제법을 위반한 가짜 선거”라면서 선거에 참여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자국민에게 경고함.
 -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투표소 곳곳에서 친(親)우크라이나로 추정되는 세력의 공격이 보고됐고 일부 투표소에선 수류탄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함.

-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투표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현재 러시아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한다고 논평함.

- 통합러시아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민주적 지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인 국민의 정

치참여, 즉 투표율이 낮은 문제는 집권 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 연해주 의회 보궐선거에서 부주지사인 볼로슈코(A. Волошко)가 당선되었음.

- 볼로슈코(1980년생)는 사할린주 주지사였던 코제먀코(O. Кожемяко) 시절에 사할린주 부주지사로 일했으며, 코제먀코가 연해주 주지사가 된 이후에는 연해주 부주지사직을 수행했음.
- 볼로슈코는 코제먀코가 재선된 이후 10월 23일 새롭게 구성된 연해주 정부에서도 부주지사로 임명됐으며, 연해주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1월 20일 부주지사직을 사퇴했음.

* 연해주 주법(2023년 10월 3일 개정) 4조 13항에 따르면, “연해주 입법부의 의원은 러시아연방의 다른 국가 직위, 러시아연방 구성 기관의 국가 직위, 국가 공무원 직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위를 가질 수 없으며, 다른 입법부의 의원(대표)이 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볼로슈코는 통합러시아당 소속으로 2019년부터 통합러시아당 연해주지구당 제1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 볼로슈코는 보궐선거에서 68.80%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연해주 제21지역구(키로프지역, 추구엠프스크구, 레소자붓스크지역)를 이끌게 됨.
- 또한, 볼로슈코는 11월 29일 연해주 의회 비밀투표 결과 68.68% 득표율로 연해주 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
- 볼로슈코가 연해주 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행정부의 입법부장악이 가능해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음. 현재 연해주 의회는 37석 중 통합러시아당이 2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장 선출 당시 35표를 얻었음.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원내 대표인 안드레이첸코(A. Андрейченко)조차도 볼로슈코의 행정 경험을 높

- 이 사며, “의회를 위해 유용한” 인물이라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블로슈코 자신조차도 행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부와의 작업에서 메트로놈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렇다. 나는 우리의 대화(행정부와의)를 더욱 강화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발언.

7. 2023년도 상원의원 교체

- 2023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연방회의 의원이 37개 연방주체에서 교체됐음.
 - 9월 연방주체 수장과 의회 선거의 결과로 상원의원 교체가 진행됐음.
 - 새로 선출된 수장은 임기 시작 후 이틀 안에 상원의원을 천거해야 하며,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도 새로운 상원의원을 선출해야 함.
 - 각 연방주체는 행정부 대표 1인과 입법부 대표 1인을 선출하여 총 2명의 의원을 연방 상원으로 보냄.
 - 이번 상원의원 교체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임 의원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것이며, 새로 총원된 신임 의원은 모두 24명임.
 - * 마트비엔코(В. Матвиенко) 상원의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러한 순환은 지역 의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경험을 지닌 신임 의원들의 등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함.
 - 상원의원은 명목상 무소속이지만, 대부분 정당에 소속되어 있음.
- 로고진(Д.О. Рогозин)이 자포로지예주 행정부 대표로 상원의원이 되었음.

- 9월 지방선거에서 자포로지에주는 새로운 수장 선거를 치르지 않았으며, 2022년 10월에 임명된 발리츠키가 계속 수장직을 맡고 있음.
- 이번에 구성된 상원에서 자포로지에주는 로고진을 행정부 대표로 임명했으며, 그전까지 행정부 대표 상원의원직은 공석이었음.
- 로고진은 친(親)푸틴 성향의 인물로 러시아연방 부총리와 러시아 연방우주청 청장을 역임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지역에서 군사자문그룹인 ‘황제의 늑대들(Царские волки)’을 이끌었으며, 이 공로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9월 18일 ‘용맹 훈장’을 받음.

IV. 언론 통제와 인권 침해

1. 법률 개정

- 국가두마는 2022년 3월 자국군에 대한 명예훼손 최대 5년 형, 고의적 거짓 정보 유포 최대 15년형을 골자로 하는 검열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 6월 13일 국가두마는 ‘대중매체에 관한 법’ 제2124-1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개정안 제7조에 따르면, 언론사 창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며, 기존에 창업한 언론사들의 경우 경영진의 구성이 변경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공동 창업자의 신변

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모든 공동 창업자는 언론매체 등록 기록에 관한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모두 제출해야 함.

2. 인권단체 해산 및 언론사 폐간

- 1월 25일 러시아 사법당국은 러시아 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인 모스크바헬싱키그룹(MHG) 해산을 결정했음.
 - MHG는 1975년 7월부터 3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소련이 서명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이듬해 설립됐음.
 - MHG는 소련의 압제로 투옥·추방 등에 시달리다 1982년 활동이 중단됐다가, 1989년 고르바초프 정권의 개혁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으로 전직 정치사범과 운동가들에 의해 재개됐음.
 - CSCE의 후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는 이번 판결이 “모든 OSCE 회원국의 협회 결정과 가입 자유를 존중한다는 약속과 배치된다”라며 “러시아 당국은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변경할 것”을 촉구함.
 - 보렐(J.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역시 러시아 당국이 “권위주의와 전쟁을 거부하는 목소리를 억압한다”라며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국내 정치적 탄압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 1월 26일 러시아 당국은 독립언론 ‘메두자’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했으며, 러시아 검찰은 메두자가 “헌법 체계 기반과 러시아연방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밝힘.
 - 이에 메두자는 ‘러시아가 메두자를 불법화했다’는 제하 기사를 통

해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며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매두자 외에도 언론매체 최소 50곳이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됨. 탐사보도 매체 아이스토리즈·프로젝트·네덜란드 벨링캣 등이 이에 해당함.

● 7월 27일 러시아 검찰은 러시아의 독립 방송국인 ‘도시티’가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매체라면서 불온한 언론이라고 규정함. 도시티는 이미 러시아 정부에 의해 러시아에서 쫓겨난 독립언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음.

● 2023년 8월 16일 러시아 정부는 폴란드에 본부를 둔 반전 운동 단체 ‘자유로운 러시아를 위해’를 ‘불온 단체’로 규정한다고 발표.

- 러시아 정부는 2015년 ‘불온 단체’ 개념을 도입해, 해당 단체와 일한 사람이나 콘텐츠를 공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음.
- ‘자유로운 러시아를 위해’는 201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러시아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유럽의 민주주의 운동을 러시아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불온 단체’ 규정을 자국 내 독립 언론사, 인권단체, 환경단체, 독립 교육기관 등에 적용해 왔으며, 서방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또한 ‘불온 단체’로 규정해 제재해 오고 있음.

● 2023년 8월 17일 모스크바 법원이 구글에 300만 루블(한화 약 4,27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음.

- 모스크바 법원은 러시아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유튜브에 업로드

된, 이른바 ‘금지된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지만, 구글이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함.

- 러시아 정부가 규제하고자 한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를 비판하거나 혹은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에 부닥쳤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 등임.

3. 언론인 구속

● 3월 30일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미국 시민이자 월스트리트저널 특파원인 게르시코비치를 체포했다고 발표함.

- 게르시코비치는 냉전 종식 이후 간첩 혐의로 인해 러시아에 구금된 최초의 미국 언론인이 됨.
- 연방보안국은 게르시코비치가 간첩 활동에 연루됐으며, 러시아 방산 기업 중 한 곳의 활동에 관한 국가기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함.
- 게르시코비치의 초기 구금은 5월 2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가 다시 2024년 1월 30일까지로 늘어났음.
- 한편,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시민을 구금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게르시코비치와 러시아에 구금된 다른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한 거래에 이 수감자들을 포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긴즈버그(J. Ginsberg)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363명의 언론인이 투옥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언론인들은 연설이나 업무 때문에 투옥됐지만, 지금은 정권이 테러, 스파이 또는 국가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비난으로 이들을 체포하

고 있다고 언급함.

- 8월 2일 러시아 대법원은 언론인 사프로노프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함.
 - 러시아 당국은 2020년 7월 사프로노프가 체코 정보국과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프로노프가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했으며, 그의 기소는 2019년 러시아가 이집트에 전투기를 판매했다는 보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음.
 - 코메르산트와 베도모스티 신문의 특파원이었던 사프로노프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2022년 12월 모스크바 법원은 항소심에서 그의 형을 확정했음.
 - 2023년 2월에 사프로노프는 복역하기 위해 보안이 삼엄한 시베리아의 교도소로 이송됐음.
 - 8월 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사프로노프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시베리아 지역 교도소로 이송됐음.
 - 사프로노프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프리 사프로노프!’ 그룹과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유럽 및 중앙아시아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사이드(G. Said)는 “러시아 당국은 사프로노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그를 즉시 석방해야 하며 언론인의 업무와 관련된 투옥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호소함.

4. 인권 침해 사례

- 11월 30일 러시아 대법원은 ‘국제 LGBT 운동’을 금지하고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함.
 - LGBT는 여자 동성애자인 레즈비언(Lesbian), 남자 동성애자

인 게이(Gay), 양성애자인 바이섹슈얼(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의 머리글자를 딴 말임.

-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즈다노프(И. Жданов) ‘나발니의 반부패 재단’ 이사는 LGBT를 극단주의 운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음.
- 채널 원 러시아의 전 편집자인 옵샤니코바(М. Овсянникова)는 오히려 정부 당국을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인종, 국적, 성별, 성적 취향, 거주지, 사회적 지위,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모든 러시아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함.
- 스트러더스(M.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번 결정은 LGBT 커뮤니티에 대한 러시아 당국 캠페인의 새로운 전선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결사, 표현,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야드코(Т. Дзядко) TV 도시티(Rain) 편집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크렘린이 값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펜을 한 번만 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불법화하고 그들을 범죄자로 선언한 끔찍한 공포라고 규정함.
- 델라웨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제니퍼 얼(J. Earl)은 정부의 억압은 정부의 행정 능력과 관련한 것으로 억압 비용을 계산했을 때, 정권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면 억압적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함.

● 2024년 2월 16일 반푸틴 세력을 상징하던 대표적 인물인 나발니가 감옥에서 사망함.

- 나발니(1976년생)는 모스크바 출생으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음.
- 나발니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야블로코당 소속이었으며, 2013년에는 인민자유당 소속으로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도전하여 득표율 27.24%로 2위를 차지했음.
- 2018년에는 ‘미래의 러시아당’을 창당하여 대표가 되었으며, 2019년 지방선거와 2021년 총선에서 ‘똑똑한 선거’를 이끌기도 했음.
- 2020년 8월 신경제인 노비추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독일 베를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21년 1월에 러시아로 귀국했으며, 집행유예 판결 의무 불이행의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음.
- 2022년 3월 22일 러시아 법원은 나발니에게 제기된 거액 사기와 법정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9년 징역형과 함께 120만 루블(약 1,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음.
- 2023년 12월 블라디미르주의 멜레호보에 있는 IK-6 교도소에서 시베리아 야말네네츠 자치구 하르프 IK-3 형무소로 이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2024년 2월 16일 교도소에서 사망했음.

V. 국민과의 대화

- 푸틴 대통령은 12월 1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모스크바 컨벤션센터에서 ‘올해의 결산’이란 주제로 네 시간에 걸친 연말 기자회견을 겸한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열었음.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① 주권, ② 경제 성장, ③ 전쟁 목표 달성, ④ 민생, ⑤ 대선 출마였음.

- 주권. 푸틴 대통령은 “주권은 대외적 차원에서 국방력과 안보의 강화를 의미하며, 대내적 차원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정치 시스템의 발전이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독립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함.
- 경제 성장. 푸틴 대통령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2023년도 경제성장률은 3.5%, 인플레이션은 8% 이하로 유지될 것이라고 피력함. 또한 실업률은 2.9% 이하로 하락했다고 강조하면서, 실질 임금 또한 8% 성장했다고 주장함.
 -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매년 연방 예산 1조 루블(14조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 점령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2% 이하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밝힘.
 - * 루블 환율과 관련하여, 현재의 고회율은 수출가격과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대외무역 결제 수단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11월 기준으로 루블이 40%, 위안화가 33%, 달러와 유로화가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 * 러시아산 자동차 생산과 관련하여, 최근 러시아 자동차 가격이 40%가량 상승했으며, 이는 한국, 유럽,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철수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함. 이들 기업이 활동하던 당시 생산설비가 무너졌던 러시아 자동차 기업들은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전쟁 목표 달성. 러시아국영TV라디오방송사(BTTPK)의 기자이자 진행자인 자루빈의 “평화는 언제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때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비군사화, 중립적 지위”라는 특별군사작전의 임무가 완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하나의 민족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다”라고 언급함.
 - * 제2 동원령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더 이상 동원은 필요 없으며, 올해 40만 명의 지원병 모집 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48만 6천 명이 자원했다고 언급함.
 - * 민간군사기업 용병도 정규군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며, 모든 특별군사작전 참전 용사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 러시아에서는 민간군사기업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민간 군사기업 수장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힘. 군사작전 수행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함.
- * 푸틴 대통령은 비스마르크의 말을 언급하며, 전쟁은 군인(장교)이 아니라 교사와 성직자가 승리로 이끈다고 강조함. 특히 청년들의 애국심 고양 교육이 중요하다고 피력함.
- * 푸틴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비군사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으며,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 수단으로 드네프르강 좌안을 돌파구 삼아 크림반도로 진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시도는 큰 희생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은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 민생. 지역(시골 단위 포함)에서의 1차 의료(보건) 현대화를 위한 연방프로그램 연장과 공공주택서비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힘.

- * 새로 점령한 지역을 포함해 극동 지역 등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젬스키 의사(Земский докто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의사에게는 2백만 루블(2천 8백만 원), 군의관에게는 1백만 루블(1천 4백만 원)의 연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 * 달걀값 상승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수요 대비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함. 이후 12월 26일 연방반독점청(ФАС)은 40%가량 달걀 및 닭고기값이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달걀 및 닭고기 업체 네 곳을 가격 담합 혐의로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힘.
- * 정부는 연방프로그램인 '가족 모기지'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령 기존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 45만 루블(6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함.
- * 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정교회의 교리에 주목할 것을 강조함.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으며, 첫째, 전통적 가치에 따라 아이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둘째, 정부 차원에서 가족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 극동 지역 항공료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항공료를 2024년에도 유지할 계획이며, 극동 지역 출생자, 거주자, 직장인들에게 '복부 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대선 출마. 국민과의 대화 이전에 푸틴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이 나왔음.

- * 대선 출마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러시아 국내의 현안은 무엇인가"란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주권 강화'라고 답함.

- 이 외에도 교과서 개편, AI, 서방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질문이 등장했음.

* 교과서 개편과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아닌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령 현재 교과서 내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관련한 내용은 '지나가는' 수준이라고 언급함.

* AI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푸틴을 닮은 인공지능이 등장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분야 기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핵무기 등장과 함께 위험을 인지했을 때 핵무기를 누가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듯이, 현재의 AI도 향후 위험성이 인지되면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함.

* 서방과의 관계 훼손은 러시아가 아닌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는 서방과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구체적으로, 미국 내부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직은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인 변화는 2024년에 있을 미국 대선인 것으로 보임.

VI. 프리고진 반란 여파와 이슬람 시위

1. 프리고진 반란

●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에 의해 무장 반란이 일어남.

- 프리고진이 내세운 반란의 목적은 푸틴 대통령의 축출이 아니라 러시아 국방부 관료인 쇼이구(С. Шойгу) 국방부 장관과 게라시모프(В. Герасимов) 총참모장(참모총장) 등 군부를 축출하기 위한 '정의의 행진'이라고 밝힘.

- 당시 반란은 푸틴 대통령의 동의하에 루카셴코(А. Лукашенко)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마무리됐으며, 프리고진은 면책 약속을 받고 벨라루스로 망명하기로 함.

- 프리고진 반란 초반에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지리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푸틴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게 됨.
 - 6월 26일 폴리τικο는 14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공개했으며, 단지 4명만이 푸틴 대통령 권력의 누수와 체제 이완을 예측했고, 나머지 전문가는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6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프리고진의 반란은 러시아 군대의 일부가 반란에 가담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반란에서 우유부단했다는 이유로 지휘관들과 관료들을 경질하고 있다고 함. 상황 해결을 위해 합의된 조건 중 하나인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영구 주둔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여 루카셴코가 개인적인 안전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며, 푸틴 대통령이 오랫동안 벨라루스를 러시아연방으로 흡수하려고 시도해 왔던 것에 대한 대항책이라고 분석함.
 -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유라시아프로그램 국장인 루머(E. Rumer)는 “프리고진 반란은 푸틴 체제 출범 이후 최대의 ‘스트레스 테스트’였다”며 “크렘린은 깃발을 휘날리는 성공은 아니었지만,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고 지적함.
 -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바그너 부대가 최대 격전지이던 바흐무트 함락 작전 뒤 전선에서 이미 빠진 상태여서 러시아군 전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함.
 - 한편, 번스(W.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해소 뒤 나리시킨(C. Нарышкин)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 내부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트레이시(L. Tracy) 주러시아 미국대사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는 러시아 체제 내

다툼의 일환”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러시아 관리들에게 전했다고 밝힘.

● 6월 26일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바그너 그룹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감사하다”라며 “동족상잔의 유혈사태로 가는 마지막 선을 넘지 않은 이들”이라고 언급함.

- 이날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무장 반란 초기 “대규모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라면서 주동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임을 깨달았다”라고 주장함.
- 푸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러시아 사회가 단합력을 보였다며 높이 평가했으며,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줬다며 감사를 표함.
- 한편, 푸틴 대통령은 반란 주동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나머지 바그너 용병들은 러시아 정규군으로 편입되거나, 벨라루스로 향하거나 러시아로 돌아올 수 있다고 언급함.

●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푸틴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표 1>의 레바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6월에 81%에서 7월에 82%로 오히려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표 13>의 브치옴 주간 조사에 따르면, 6월 18일 78.9% 신뢰도에서 반란 직후인 7월 25일 78.6%로 0.3%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12월 24일 조사에 따르면, 신뢰도는 80%로 나타나고 있음.

< 표 13> 프리고진 반란 이후 푸틴 대통령 신뢰도(%)

구분	6월 18일	6월 25일	7월 2일	7월 9일	7월 16일	7월 23일	7월 30일
신뢰함	78.9	78.6	78.1	77.2	77.3	76.8	77.4
신뢰하지 않음	16.7	17	17.7	19	18.4	19.3	18.4

출처: 여론조사기관 브치옴(BLИОМ). <https://wciom.ru/ratings/doverie-politikam>

2. 이슬람 시위

- 10월 29일 다게스탄공화국 마하치칼라 공항에 이스라엘발 항공기 (Red Wings WZ 4728)가 도착하자 ‘이슬람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수백 명의 시위대가 공항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함.
 - 시위대는 ‘이스라엘인을 색출하겠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항 터미널로 진입해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다쳤으나, 이스라엘발 항공기 승객들은 피해당하지 않았음.
 -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2억 8백만 루블(41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음.
 - 조사위원회는 러시아 형법 제21조 2항에 의거해서 시위대를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 정부는 이번 이슬람 반유대주의 시위가 서방에서 간섭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반유대주의’ 행위라고 규탄함.
 - 푸틴 대통령은 이번 시위가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다민족·다종교 사회인 러시아를 분열시키려는 서방의 책동이라면서 “마하치칼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보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정보 요원들의 손에 선동되었다”라

고 언급함.

- 반면, 미국 국무부 밀러(M. Miller)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반유대주의 사건을 규탄한다. 러시아 당국이 이런 폭력 시위를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러시아 내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발표함.

● 다게스탄공화국은 인구 320만 명 중 대다수가 수니파 무슬림으로 다른 자치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당국과 이슬람 무장 세력이 대립해 왔던 지역임.

- 다게스탄은 크림반도에서 시작해 카프카스, 카자흐스탄, 타타르스탄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이슬람 벨트’의 중간에 있음.
- 1991년 소련 해체로 민족의 용광로였던 이 지역에서는 독립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으며, 2000년대 초반에 체첸 반군을 주축으로 하는 테러 단체들이 이슬람근본주의 세력과 연합하면서 ‘이슬람 공화국’을 창설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음.
- 이 지역은 카스피해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으며, 러시아 남부 방어선으로서 중요한 안보적 의미가 있는 지역임.
- 따라서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이슬람 시위에 특별한 관심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체첸 반군을 섬멸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적이 있음.
- 러시아 이슬람은 러시아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권력 유지를 위한 지지 세력으로 이슬람을 활용하고 있음.
- 러시아 내에 2,000만 명이 이슬람 신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정교회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임.

- 러시아연방의 8개 공화국은 이슬람 지역으로, 이들 공화국은 타타르스탄, 바시코르토스탄, 체첸, 인구셰티야, 다게스탄, 카바르디노발카리아, 카라차이체르케시야, 아디게야임.
- 푸틴 대통령은 2015년 모스크바 중앙 모스크 재건 기념식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을 초청하여 “무슬림 오피니언 리더들은 러시아 내의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평화와 상식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VII. 기타

1. 연례 국정연설

-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2년 만에 모스크바 컨벤션센터에서 연례 국정연설에 나섬.
 - 국정연설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따라 이뤄지는 행사로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는 주요 연설임.
 - 이번 연설에는 연방의회 의원, 군 지휘관, 참전 병사, 정부 고위 관리, 사법부 고위 관계자, 각 지역 대표, 주요 종교 지도자 등 1천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음.
 - 이번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세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잡한 시기에 연설한다.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책임감을 강조함.
 -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행해진 연설의 핵심은 전쟁의 책임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나 서방 국가들이 세력 확장을 원한다”라며

“이 전쟁의 책임은 서방 엘리트에게 있다”라고 거듭 강조함.

- 또한,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서방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힘.

* 2021년 12월 15일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안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력이 돈바스에서 ‘학살’을 준비했으며, 2014년 3월 병합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공격을 피했다고도 주장함.
-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을 거듭 비판하며 앞으로도 ‘나치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계속하겠다고 밝힘.

* 한편, 2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데 이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연설했으며, BBC는 두 연설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과 같은 모양새를 띠게 됐다고 논평함.

2. 타티야나 푸티나(Т. Путина) 체포

● 푸틴 대통령 친척의 아내인 타티야나 푸티나가 사기 및 상표 도용 혐의로 7월 27일 체포됐음.

- 크라스노다르 검찰에 따르면, 러시아 사업가인 푸티나가 사업 경쟁자인 ‘시네일(Syneil)’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사기를 친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 이에 대해 푸티나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완전히 ‘조작됐으며’, 크라스노다르시의 조사위원회가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주장함.
- 러시아의 저명한 언론인인 카라울로프(А. Караулов)는 이러한 현상을 푸틴 대통령의 권력 누수의 징조라고 논평함. 상대측 변호인인 야놉스키(Яновский)도 “배심원 여러분, 얼음이 깨지기 시작

했습니다”라고 언급함.

*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은 고르바초프가 냉전 종식을 선언할 당시 행한 연설로 유명해졌음. 당시 그는 “동지들이여,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Лёд тронулся, товарищи! Процесс пошёл!)”라고 선언함.

- 이와는 반대로, 러시아 언론인 고렐로프(И. Горелов)는 권력 강화를 위한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의 독재 현상으로 분석하기도 함.

*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은 6월 13일 형법 제217조 ‘사업가 체포 제한에 관한 법률’에 이미 서명한 바가 있기 때문임.

VIII. 나오며: 2024년 전망

● 2024년은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해로 상반기에는 선거운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은 제8대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역대 최대 득표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투표율 70% 이상과 득표율 75% 이상(75+/70+)으로 정했다고 밝힘.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연방주체별로 국내 정책 담당 부주지사들이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8년 대선 당시 투표율은 67.54%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76.69%의 득표율로 당선됐음.

- 대통령 행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푸틴의 높은 지지율로 봤을 때 이러한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며, 다만 합법적·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선거 캠페인에 활용할 ‘이념 구호’를 정했으며, 이는 ‘자부심’, ‘희망’, ‘확신’이라고 밝힘. 이러한 구호는 각각 ‘주권’, ‘가능

성’, ‘전통’과 이어진다고 설명함.

- 이 외에 ‘특별군사작전’도 선거의 주요 의제라고 강조함.
- 선거 캠페인의 원칙은 ‘과거(было)-현재(стало)-미래(будет)’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난 푸틴 대통령 집권기 동안 러시아가 달성한 과업이 미래에도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함.
- 푸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이러한 기조 위에 세워질 것으로 보이며, 2023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임. 가령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연방프로그램 연장이 담길 것으로 보임.
- 2018년도 제7대 대선 당시 공약을 살펴보면, 보건, 의료, 수학 선도 국가, 교통, 금리, 북극 개발, 교육, 문화센터 건립, 도시정화, 인구정책, 일자리, 영재 아동센터 건립, 수명연장(80클럽), 의사 임금 인상 등 경제와 민생과 관련한 공약들이 수립됐음.
- 당시 공약 중 이행된 내용을 보면, 낮은 인플레이션, 안정적 경제 성장, 석유·가스 의존도 감소, 출산율 증가, 인구 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도 이행된 공약과 불이행된 공약,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종합하여 공약집을 만들 것으로 보이며, 푸틴 대통령 정부 4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추후 ‘국민과의 대화 후 유관부서 전달 지시사항’으로 작성되는 만큼, 이러한 내용도 공약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임.

● 2024년은 푸틴 대통령 집권 5기가 시작되는 해로 국민통합과 주권 강화, 자력갱생을 통한 강한 국가 건설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국민과의 대화 및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밝혔듯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식 주권’의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향후 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강한 국가를 건설하자는 슬로건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푸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다극체제’를 선언한 만큼, 향후 러시아만의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친러시아 파트너국들과의 관계 강화 및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할 것이며, 중국에 경도된 외교 노선을 수정·교정하면서 좀 더 균형 잡힌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중동지역으로의 귀환을 선언함으로써 강대국 러시아의 면모를 일신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프리마코프 독트린을 신봉하는 푸틴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 이 지역을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임.
- 또한,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4년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임.
- 동시에 경제와 민생의 안정, 즉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 제고를 위해 특별군사작전 완수를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결국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시민 지원 확대, 그리고 자국 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러시아식 ‘자력갱생’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2024년에 적용될 법률

- 1월 1일부터 군 징집 연령이 27세에서 30세로 확대되며,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지게 됨.
- 1월 1일부터 부모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조기 복귀하더라도 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유지됨.
- 1월 1일부터 도네츠크, 루간스크, 헤르손, 자포리지예, 특별군사 작전에 인접한 연방주체 등에서 부상 및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10만 루블(140만 원)을 지원받게 됨.
- 1월 1일부터 퇴역군인과 일부 지방정부의 군인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지급금이 4.5% 인상됨.
- 1월 1일부터 부모수당은 자녀 출생 당시 러시아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나 자녀가 출생 시 러시아 시민권을 받은 부모에게만 발급됨. 이 법률은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지역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 1월 1일부터 치료비, 의약품 구매비에 대한 세금 공제액이 13% 인상됨.
- 1월 1일부터 ‘러시아 고용에 관한’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발효되며, 이 법안은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는 시민’, ‘해고 위협에 처한 시민’, ‘자영업자’와 같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고 실업자로 인정하는 근거도 설정됨.
- 1월 1일부터 유류세를 계산할 때 브렌트유에 대한 러시아 우랄산 석유 가격 할인을 배럴당 15달러로 줄이는 법이 시행됨.
- 1월 5일부터 구급차 의료팀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의료 개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발효됨.
- 4월 1일부터 인조 모피 겹옷, 스포츠 및 스키복, 작업복 일부 품목, 남성용 니트 셔츠, 남성 정장, 재킷, 바지, 블라우스, 숄, 스카프, 머

- 플러, 드레스, 치마, 남성과 여성용 재킷, 코트 등 의류 제품에 상표를 표시해야 함.
- 7월 1일부터 연금 수급자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공공주택서비스 비용 지급할 시 은행 수수료가 면제됨.
- 9월 1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노동과목이 의무화됨.
- 12월 25일에 푸틴 대통령은 추방 명령일로부터 외국인을 특수기관에 가둘 특정 기간(90일)을 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음. 판사는 집행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이 기간을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의 구금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4년 러시아 국내 주요 이슈로는 애국 교육 및 생산 멘토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12월 27일 국가평의회 회의가 ‘교사와 멘토의 역할과 권위 향상’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광범위하고 진정한 러시아 전역의 멘토 운동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주문함.
- 또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체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전 용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지역과 학교 단위에서 계속 홍보하는 방안이라고 보임.
- 특히,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애국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의 이탈을 방지하고, 최전선이라는 지역적 위험성을 러시아를 위한 애국적 행위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게 만들으로써 희생과 투쟁의 정당성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임.

- 더욱이 이 회의에서 19세기 러시아 산업 분야에서 시작된 멘토링 전통을 상기시키면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철도,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Rosatom) 등 국유기업에서도 이러한 멘토링 정신이 새로운 수준으로 부활하고 개발되고 있다고 강조함.
- 칼루가주를 사례로 들면서 생산 멘토링이 인력 교육을 가속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강력한 산업 성장을 보장하고 실제로 수십 개의 기업이 설립됨으로써 사회 영역의 발전을 위한 추가적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함.
- 결국 국내 경제에 대한 멘토링은 새로운 성장의 질, 비용 절감,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국가 전체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함.
- 이렇듯, 푸틴 대통령이 강조하는 멘토링 및 애국 교육은 러시아 국내의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전 러시아 생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제재 상황에서 자국의 내수 경제를 최대한 증강하여 자력갱생의 기틀을 만들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회복되는 러시아 경제와 구조 전환 노력

박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 2023년 러시아 경제 회고

1. 러시아 경제의 안정화

- 2022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대부분 경제지표도 안정화
 -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2022년 $\Delta 2.1\%$ 기록했던 GDP 성장률은 2023년에는 2.8%까지 회복된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3.0%까지 성장 가능성 거론
 - 2023년도 경제 상황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은 ①정부 중심의 투자 확대, ②민간 소비 개선, ③산업생산 증가, ④우호국 중심의 교역구조 재편을 통한 경제충격 완화 등의 영향
 - 전쟁의 장기화로 주요 서구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감소했고 기준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약화된 상황이나,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 전년도 전쟁 발발로 인해 소비심리가 급속히 악화했고, 일부 상품의 국내 공급부족이 초래되면서 소비가 역성장했으나, 2023년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실질 임금이 크게 상승(6.2%)하면서 소비시장 개선

* 전쟁에 따른 동원령으로 인근 국가로의 인구 유출,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 이탈로 인해 노동 공급감소 등이 노동시장에 영향

-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생산은 제조업(+11.3%), 건설업(+9.8%), 광업(+1.1%) 등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했으며 구매관리자지수(PMI) 또한 연간 평균 52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유럽 등에 대한 수출감소를 우호국에 대한 수출로 상쇄하고 있으며, 병행·우회수입루트 안정화로 수입은 증가

* 우호국과의 교역(2023년 상반기 기준): 러시아-중국 +32%, 러시아-인도 +237%, 러시아-브라질 +34% 등

- 전쟁이 이어짐에 따라, 전시 재정을 편성하고 국방비 지출 확대

[표 1] 러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주요 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e)
명목 GDP 성장률(%)	2.8	2.0	-3.0	4.7	-2.1	2.8
산업생산 증감률(%)	2.9	3.4	-2.1	6.4	0.6	3.6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4.3	1.7	-1.4	7.7	4.6	6.0
실질가치분소득 증가율(%)	0.1	1.0	-2.8	3.0	-0.1	4.3
실질임금 상승률(%)	8.5	4.8	3.8	4.5	0.3	6.2
소비자물가 상승률(%)	4.3	3.0	4.9	6.7	11.9	7.5
소매 판매 증가율(%)	2.6	1.9	-3.2	7.8	-6.5	5.8
연방 재정수지(GDP 대비 %)	2.6	1.8	-4.0	-0.2	-0.9	-2.1
수출(십억 달러)	443.9	419.7	333.4	494.4	590.8	459.1

주요 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e)
수입(십억 달러)	248.9	253.8	239.6	304.0	276.7	313.8
환율(달러 대비 루블)	62.5	64.7	71.9	73.6	67.5	85.2
유가(우랄산, 배럴당 달러)	69.8	63.6	41.4	69.1	80.6	62.9

*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

● 다만, 2022년도 높은 수준을 보이던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러시아의 수출과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환율상승과 인플레이션 문제도 지속

- 2022년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국제유가(WTI 기준)가 80달러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서방의 원유가격 상한제가 영향을 주면서 러시아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 폭도 대폭 감소
- 2023년 美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루블화의 평가절하가 계속되었고 정부는 환율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2023년 12월 16%), 기업 수출대금의 의무 매각 등으로 달러당 100루블 미만으로 방어 노력
- 환율상승에 따라 국내 물가가 지속해서 자극됐으며 2023년 하반기 기준 정부 목표인 4% 대비 높은 수준인 7%대 물가상승률 기록

▶ 2023년 러시아 경제의 최대 화두는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를 대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교역상대국의 재편과 美 달러화 사용배제를 통한 우호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가속하는 정책으로 나타났음.

2. 유라시아 국가들을 통한 상품 수입 루트 확보

□ 카자흐스탄을 통한 우회 수입

- 2022년부터 지속되어 온 주변 유라시아 국가들을 통한 수입 루트 확보 체계가 2023년 지속 및 확대된 상황
 -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들을 통해 자국으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우회 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은 주로 전자기기 및 부품,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임.
 - 주로 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같은 회원국으로 무관세·무서류 통관이 가능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과 조지아가 활용
- 카자흐스탄의 대러 수출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22년부터 일부 품목에 변화
 - 2020년 러시아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수출은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21년 71억 3,200만 달러, 2022년에는 87억 8,000만 달러로 급증

[표 2] 연도별 카자흐스탄의 對러 품목별 수출금액

(단위: 천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	선철·슬래그 1,557,334.0 (30.8%)	선철·슬래그 1,926,345.6 (27.0%)	철류 1,469,694.8 (16.7%)
2	철류 875,626.5 (17.3%)	철류 1,840,198.1 (25.8%)	화학제품 1,368,439.9 (15.6%)
3	화학제품 614,835.9 (12.2%)	가공 전선류 615,954.4 (8.6%)	선철·슬래그 935,324.4 (10.7%)
4	에너지·연료 342,359.3 (6.8%)	에너지·연료 452,155.4 (6.3%)	보일러·기계류 837,325.9 (9.5%)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5	가공 전선류 150,334.1 (3.0%)	화학제품 249,182.9 (3.5%)	전자기기·장비·부품 827,400.3 (9.4%)
Total	5,054,817.2	7,132,346.7	8,780,724.9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수출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GTA database

-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2022년까지 철류, 화학제품, 선철·슬래그 등의 품목은 카자흐스탄의 대러 수출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보일러·기계류와 전자기기·장비·부품의 수출이 증가

● 러시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하기 어려운 품목의 수출이 2021년도 대비 2022년에 큰 폭으로 증가

- 기계류, 전자기기·장비·부품, 자동차 부품 등은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 품목으로 러시아 내에서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품목
 - * 상기 품목은 군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 수출금지 품목에 등재
- 보일러 및 기계류(HS 84)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인 2021년,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금액은 약 1억 3,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은 1.9%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약 8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비중도 9.5%를 차지
- 전자기기·장비·부품(HS 85)도 2021년 수출액 1억 2,000만 달러, 1.7%의 수출 비중에서 2022년에는 8억 2,700만 달러, 9.4%의 비중으로 많이 증가한 모습
- 자동차·부품(HS 87) 수출은 2021년 약 9,250만 달러에서 2022년 약 2억 달러가 됐으며 비중도 1.3%에서 2.3%로 확대

- 러시아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수출은 2023년에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 유지¹⁾
 - 2023년 상반기까지 카자흐스탄의 대러 수출은 49억 3,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35억 7,000만 달러 대비 38% 증가
 - 카자흐스탄 정부가 러시아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한 통제를 일부 강화하고 있으나 실제 통관에서 적용되는 수준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

□ 키르기스스탄과 아르메니아를 통한 우회 수입

* 키르기스스탄과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함께 EAEU 회원국으로 교역이 자유로워 카자흐스탄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증

- 키르기스스탄의 대러 수출은 2022년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 2022년 전체 수출은 9억 6,350만 달러로, 2021년의 4억 1,100만 달러에 비해 134.4% 성장하여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줌.
 - * 키르기스스탄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는데 주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등 수출보다는 수입이 월등히 큰 구조

[표 3] 키르기스스탄의 對러 주요 수출 급등 품목: 2021~2022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보일러기계류	5.0	50.1
자동차·부품	25.6	40.1
Total	411.0	963.5

* 주: Total 금액은 모든 수출금액을 의미

* 자료: (2021년) OEC, (2022년) Trading economics

1) “Kazakhstan’s export to Russia up to \$4.93 bin. in 1H 2023 – statistics,” <https://www.tass.com/economy/1661339>, (검색일: 2023년 11월 20일)

-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보일러와 차량·부품의 수출금액 대폭 증가
 - 기계·보일러의 경우, 2021년에는 연간 500만 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5,000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로 자리 잡음.
 - 차량·부품은 2,560만 달러로 기존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출 품목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4,010만 달러 수출
 - 2023년에도 키르기스스탄의 대러 수출 확대 추이는 지속되고 있는데, 2023년 1/4분기까지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
 - 주요 수출품으로는 구리 및 구리제품(2,950만 달러), 승용차(1,070만 달러), 전자기기·장비·부품(1,020만 달러), 과일 및 견과류(880만 달러), 의류(870만 달러) 등이 차지
- * 수량 기준으로 2023년 1~5월까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에 대해 총 2,741대의 승용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 증가한 것

- 아르메니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가장 극적으로 증가한 국가
- 아르메니아의 대러 수출은 2021년 7억 8,900만 달러였으나 2022년에는 약 23억 7,000만 달러로 200% 이상 증가

2) “Более трети экспорта Кыргызстана в Россию заняли медь и автомобили,” <https://www.akchabar.kg/ru/news/bolee-treti-eksporta-kyrgyzstana-v-rossiyu-zahyali-med-i-lekgovushki>, (검색일: 2023년 9월 12일)

[표 4] 아르메니아의 對러 주요 수출 급증 품목: 2021~2022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전자기기·장비·부품	12.4	462.4
자동차·부품	9.7	290.7
보일러·기계류	16.2	158.4
Total	789.0	2,370.0

* 주: Total 금액은 모든 수출금액을 의미

* 자료: (2021년) OEC, (2022년) Trading economics

- 그중에서도 이전까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던 품목들이 2022년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음.
 - 전자기기·장비·부품류의 수출은 2021년 1,24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억 6,240만 달러로, 자동차·부품류는 970만 달러에서 2억 9,070만 달러로 확대
 - 이전까지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대러 수출 주요 품목은 음료 및 주류(HS 22)가 수출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의 1위 품목이었으나 2022년에는 2억 8,800만 달러로 3위로 밀려남.
 - 2023년 들어서도 아르메니아의 대러 수출증가는 지속되고 있는데, 1~5월까지 수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배 증가³⁾
- * 전자기기 부품 및 가전용품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라시아 국가들이 對러 재수출이 활발한 이유 >

- ▶ (서방의 對러 수출 통제품목) 주요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러 수출 급증 품목이 전자부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장비 등 서방의 수출통제 품목임.

3) "Armenia's export to Russia rise 3.3-fold in 5 months of 2023 – Russian foreign minister," <https://www.tass.com/economy/1856883>, (검색일: 2023년 11월 21일)

- ▶ (2022년 급격한 증가)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까지 이 품목들은 유라시아 국가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이 미미했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
- ▶ (유라시아 산업생산 증가 미미) 2021~2022년의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에서 해당 품목의 산업생산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제조업 발전 추세는 미미함.

□ 서구 국가들의 본격화된 우회 수출 제재

- 서구 국가들은 점차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가 큰 효과가 없으며 그 이유는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통제되는 물품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을 인식⁴⁾

- ▷ 제3국을 활용한 **對러 수출방식**⁵⁾
 - ▶ (제3국 수출 및 대러 재수출) 수출통제 하의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여 통관을 마친 뒤, 다시 러시아에 수출
 - ▶ (제3국 경우 대러 재수출) 수출통제 하의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나 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러시아에 수출(보세창고 활용)
 - ▶ (간접적 재판매) 수출통제 하의 제품을 제3국 기업이 구매하여 이를 서구(EU)의 영토 내에서 트랜짓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기업에 판매
 - ▶ (트랜짓 활용) 수출통제 하의 제품을 서류상으로 러시아를 거쳐 제3국에 판매하는 것으로 러시아로 반입하고 이를 다시 러시아 기업에 판매

4) Maria Demertzis, Benjamin Hilgenstock, Ben McWilliams, Elina Ribacova, and Simone Tagliapietra, “How have sanctions impacted Russia?” Policy Contribution Issue 18/22, Bruegel, Oct. 2022, p. 11.

5) Svitlana Taran, “Strengthening the impact of EU sanctions against Russian aggression in Ukraine,” European Policy Center Discussion Paper, Oct. 2022, p. 7.

- 제3국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서구의 수출통제가 우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 국가들은 제재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회 수출을 차단할 필요성 공감
- EU는 2023년 4월,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음.
 - * 상기 제도의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짐.
- 다만, 2023년 6월 23일 채택된 EU의 대러 11차 제재에서 필요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제3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우회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

▷ EU의 對러 11차 제재 패키지 중 우회 수출 관련 내용

- ▶ (제3국에 대한 수출금지 가능) 특정 제재상품 및 기술이 우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에 지속해서 수출될 경우, 예외적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 있음.
- ▶ (트랜짓 활용의 제한) EU에서 서류상으로 러시아를 거쳐 제3국에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민감한 상품(첨단기술, 항공 부품 등)의 품목 통제 강화

● 미국과 EU는 유라시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상품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개별적인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

- 2023년 4월, 미국과 EU의 고위 관리들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하여 우회 수출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러 재수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 요구
-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EU 특사는 “EU에서 수출하던 상품들이 카자흐스탄을 통해 러시아로의 수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자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논평⁶⁾

-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EU의 우려에 대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제재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대응
- 미국 외교위원회 의장인 ‘멘데즈(B. Mendez)’ 상원의원은 2023년 8월 8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대한 우회 수출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
- 멘데즈 의장은 본 서한에서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드론, 전자회로 부품, 항공기 부품, 무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요청⁷⁾
 - * 서한을 보내기 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드론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적발
- 서한과 관련, 자파로프(S. Z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

6) “EU Begin Talks with Kazakhstan to Prevent Re-Export of Sanctioned Goods to Russia,” <https://www.astanatimes.com/2023/04/eu-begin-talks-with-kazakhstan-to-prevent-re-export-of-sanctioned-goods-to-russia>, (검색일: 2023년 11월 22일)

7) “Chairman Mendez Calls on Kyrgyzstan to Uphol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Russia, Reverse Course on Democratic Backsliding,” Foreign Relations Committee Chairman’s Press, <https://foreign.senate.gov/press/dem/release/chairman-mendez-calls-on-kyrgyzstan-to-uphold-international-sanctions-against-russia-reverse-course-on-democratic-backsliding>, (검색일: 2023년 11월 23일)

- 다만, 적발된 드론은 농업용으로 신고됐으나, 향후 드론과 무인항공기의 수출을 금지할 것임을 표명⁸⁾
- 미국은 아르메니아에 기반을 둔 기업인 TACO LLC를 러시아에 수출 통제품목인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 등을 판매한 혐의로 2022년 제재 명단에 등재

3. 탈달러화 정책 가속화: 에너지 교역에서 탈달러 연대로

-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하는 정책의 하나로 가스 대금 지급을 루블화로만 가능하도록 제한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4월 1일부터 천연가스 구매 대금을 러시아 루블화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 이전까지 에너지 거래에서 주로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거래
 -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급물량은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가스관을 통해서 판매되는 천연가스에 한정되며 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됨.
 - 비우호국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프롬 은행의 특별계좌를 이용해 루블화로 직접 입금하거나 달러/유로화로 입금 후 자동환전
 - * 가스프롬 은행은 러시아의 국영은행으로 주로 유럽과의 에너지 교역 대금 청구 구실을 해왔으며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SWIFT 배제) 대상에서도 제외
 -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결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초기부터 명확히 함.

8) “Садыр Жапаров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явления о том, что якобы Кыргызстан способствует обходу санкций,” <https://kabar.kg/news/sadyr-zhaparov-prokommentiroval-saiavleniia-o-tom-chto->, (검색일: 2023년 11월 23일)

- 서방 국가들은 초기에는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반발했으나 추후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 그러나 수입 비중은 점차 축소
 - 독일의 경제부 및 프랑스 재정부 장관은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⁹⁾
 - * 러시아의 해당 정책 도입발표 이후 독일 정부는 천연가스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경보를 발령
 - 젠틸로니(P. Gentiloni) 유럽연합 경제 담당 집행위원이자 이탈리아 전 총리는 “기존의 계약에는 루블화 지급 의무가 명기되어있지 않으며 러시아의 요구는 EU를 협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¹⁰⁾
 - 미국을 포함한 선진 7개국 정상(G7) 에너지부 장관들은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기존 계약의 명백한 위반이며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¹¹⁾
 - 하지만,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의 루블화 거래를 수용하였고 점차 수입 물량을 감소하는 추세
 -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EU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3%(파이프라인,

9) “France, Germany rejects Putin demands for gas payments in roubles as blackmail,”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20331/-france-germany-rejects-putin-demands-for-gas–payments-in-roubles-as-blackmail>, (검색일: 2023년 11월 30일)

10) “Europe rejected Putin’s ultimatum. So why is Russian gas still flowing?” <https://www.edition.cnn.com/2022/04/01/business/russia-gas-ruble-ultimatum-explainer/index.html> (검색일: 2023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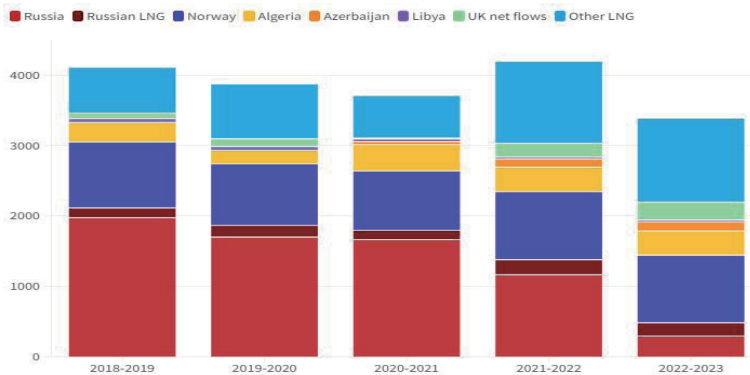
11) “G7 rejects Russia’s demand for gas payments in roubles,” <https://www.dw.com/en/g7-rejects-russia-demand-for-gas-payments-in-roubles>, (검색일: 2023년 11월 30일)

LNG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LNG 수입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림 1] EU 국가별 천연가스 수입 연도별 추이

(단위: TWh)



* 주: 각 그래프는 전년도 8월부터 다음 연도 7월까지의 값을 나타냄

* 자료: Bruegel Institute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가스프롬은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의 국가에 대해 가스 공급 중단
- 러시아는 우호국인 중국, 튀르키예 등과의 천연가스 거래에도 달러/위안화를 사용하는 대신 루블화 사용 적용 및 확대

● 러시아는 루블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등 기타 통화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탈달러 연대 세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 러시아는 대외 교역에서 루블화 결제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 결

제도 확대하면서 중국과 연대한 탈달러화 가속화

* 중국도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

- 러-중 양국은 2022.9월부터 중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과 위안화 각각 50%의 비중으로 결제하기로 합의¹²⁾
- 2023.4분기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거래와 기타 교역에서 75% 이상을 루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음.
- 교역에서 루블화 및 위안화 결제가 확대되면서 러시아 정부의 국부펀드(NWF) 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4%(루블)와 16%(위안화)를 차지하며 탈달러 현상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
- 러시아 재무부는 2022년 12월 30일 국부펀드의 자산 비중에서 비우호국 통화 비중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이전에 30%였던 위안화 비중을 6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¹³⁾ 2023년 위안화 자산은 꾸준히 증가
- 러시아의 탈달러화 정책은 인도가 추진하는 ‘루피(rupee)의 세계화’와 부합하는데, 양국은 교역 시 루블화와 루피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거래 가능 은행을 2022년 12월에 승인

12) “Gazprom to Shift Gas Sales to China to Rubles, Yuan From Euro,”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9-06/gazprom-to-shift-gas-sales-to-china-to-rubles-yuan-from-euro>, (검색일: 2023년 11월 30일)

13) МинФин России, “О новой нормативной структуре средств Фонд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в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е и золоте,” https://www.minfin.gov.ru/ru/press-center?id_4=38327, (검색일: 2023년 11월 30일)

[표 5] 인도 SVRA(Special Vostro Rupee Account) 상호 승인 은행

연번	인도 승인 은행	러시아 승인 은행
1	UCO Bank	Gazprom Bank
2	VTB India branch	VTB
3	Sberbank India branch	Sberbank
4	Canara Bank	MTS Bank
5	Union Bank of India	Ros Bank
6	HDFC Bank	Soyuz Bank
7	IndusInd Bank	BCS Bank, Soyuz Bank, MTS Bank, Tinkoff Bank, Credit Europe Bank, PSCB Bank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 다만, 양국 교역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지나치게 많고 인도의 수출은 적어 거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도 은행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2023년 4분기 현재 루블-루피화 기반 교역은 중단된 상황
- 러시아는 이란과의 교역에서도 루블화와 이란 리알화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2023년 6월 기준 교역에서 두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60%를 초과
- 러시아와의 루블화 거래뿐만 아니라,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브라질 등의 ‘자원-위안화’ 거래가 시도되면서 탈달러화 거래의 구도가 확산하는 양상

*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2년 1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걸프 정상회담(Gulf summit)’에서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¹⁴⁾

- 여러 국2가의 탈달러화 행보는 외환보유고의 다변화와 무역 결제 수단에서 달러화 배제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14) “China’s Xi calls for oil trade in yuan at Gulf summit in Riyadh,” <https://www.reuters.com/world/saudi-arabia-gathers-chinas-xi-with-arab-leaders-new-eraties-2022-12-09/> (검색일: 2023년 5월 10일)

- 러시아가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을 확대하는 가운데, 브라질의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의 비중도 높아짐.
- 글로벌 차원에서는 달러화와 위안화의 비중이 모두 축소됐으나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

[표 6] 최근 주요 국가들의 탈달러화 행보

구분	당사국	내용
외환보유고	러시아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 확대 * 1% 미만(22.1분기) → 16%(22.4분기) 위안화 비중이 60%까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22. 12월)
	브라질	위안화가 외환보유고 2위 통화로 등극 이후(23.3월) 보유금액 지속적 확대
	글로벌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가 2.69%로 세계 5위 유지(22.12월) * 22.9월 2.75%에 비해 비중은 하락했으나 금액은 소폭 증가 달리는 59.79% → 58.36%(22.12월)로 감소
무역 결제 수단	러시아 - 이란	교역에서 루블화-리알화 결제 확대 * 2015년 시작되어 2023년 60%까지 증가
	러시아 - 중국	루블화-위안화 결제 비중 75%(23.11월)
	러시아 - 인도	교역에서 루블화-루피화 결제 합의(23.2월)
	중국 - UAE	LNG 수입시(중국) 위안화 결제 합의(23.3월)
	중국 - 브라질	교역에서 위안화 레알화 결제 합의(23.3월)
	인도 - UAE	비석유 교역에서 루피화 결제 합의(23.3월)

* 자료: 각종 자료 종합

II. 2024년 러시아 경제전망

1. 주요 경제지표와 이슈

□ 주요 경제지표

● 거시경제의 여러 지표 측면에서 제재의 부정적인 여파는 2024년부

터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4년 경제성장률을 2.8% 성장으로 예상하며 2024~2026년에도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다만, IMF(2.2%), World Bank(1.6%), OECD(+0.8%), EIU(0.6%)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나 러시아 정부의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준
 - * 결국, 2023년 성장을 이끌었던 정부부문의 투자와 소비자 지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임.
- 2024년 재정수지는 2023년보다 개선된 GDP 대비 Δ 0.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후에도 GDP 대비 Δ 1% 이내로 관리 계획
- 2024년 산업생산은 2023년보다 소폭 낮은 2.6%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2%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도 2024년에는 2.6%, 이후에는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기]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22~2026년

주요 지표	2022	2023(e)	2024(f)	2025(f)	2026(f)
명목 GDP 성장률(%)	-2.1	2.8	2.3	2.3	2.2
재정수지(GDP 대비 %)	-0.9	-2.1	-0.9	-0.5	-0.7
산업생산 증감률(%)	0.6	3.6	2.6	2.2	2.3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4.6	6.0	2.3	3.0	3.0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0.1	4.3	2.7	2.6	2.6
실질임금 상승률(%)	0.3	6.2	2.5	2.6	2.3
소비자물가 상승률(%)	11.9	7.5	4.5	4.0	4.0
소매판매 증가율(%)	-6.5	5.8	3.6	3.4	3.5
수출(십억 달러)	590.8	459.1	471.0	481.1	496.7
수입(십억 달러)	276.7	313.8	319.7	326.8	335.5

주요 지표	2022	2023(e)	2024(f)	2025(f)	2026(f)
환율(달러 대비 루블)	67.5	85.2	90.1	91.1	92.3
유가(브렌트유, 배럴당 달러)	101.0	83.5	85.0	80.2	76.2

* 주: 2022~2026년은 정부의 기본 전망치를 근거로 함.

*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 일반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한 지표들은 2023년에 비해서는 낮아질 것이나 양호할 것으로 예상

- 실질 가치분소득 증가율은 2.7% 성장, 실질 임금 상승률도 2.5% 성장하여 전년도보다는 낮으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2023년 7.5%에 이르던 물가상승률은 4.5%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목표치인 4.0%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높은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2023년 4/4분기 현재 15%의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

- 예상 밖으로 크게 높았던 2023년의 소비심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3.6%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4년도 국제유가가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출 총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브렌트 유가는 2023년 배럴당 평균 가격인 83.5달러 대비 상승한 85.0달러로 예상하며 수출 총액도 4,591억 달러에서 상승한 4,7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
- 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라시아 주변국을 통한 병행수입 지속과 중국과 튀르키예 등 우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환율은 국제적인 달러화 강세와 유가 하락 등으로 상승압력이 존

재하나 정부가 달러당 100루블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어 90루블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임.

□ 2024년 주요 이슈

- (대내) 경제제재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내 산업을 육성시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2022년 말부터 각 산업 분야별로 현재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평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를 명기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의 산업별 발전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2024년부터 주요 산업정책 시행 본격화 예상
 - 주요 산업부문은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의 부품과 기술 등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분야로 선정하였고 해당 분야의 국내 경쟁력 강화가 최종 목표임.
 - 이러한 산업정책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나 초기 단계에서의 육성시스템 구축, 외부협력 계획, 재원 투여 등의 방식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경제의 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확대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혁신성을 상실하고 지나친 통제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

- (대외) 우호국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공고화하는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브릭스(BRICS),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을 통해 추동력을 갖게 될 것임.
 - 2023년 8월에 개최된 BRICS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의 6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연대 강화

- 러시아는 이미 BRICS 내에서 중국, 인도 등과 교역 및 금융협력을 공고히 해왔으며 향후 외연 확대와 협력 심화를 통해 서방 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탈달러화 중심의 교역통화 창설 등이 우선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진척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
- EAEU 회원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아르메니아는 정책적으로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우회 수출 루트로서 경제적 이익이 커짐에 따라, 향후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설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주목
- 서방의 물류 제재에 회피하는 수단으로 러시아가 추진하는 ‘남북 국제운송회랑(INSTC)’의 진척 여부도 러시아로서는 중요한 관심 사항

* 러시아는 이란 내 미완공 구간인 라시트(Rasht)-아스타라(Astara) 구간의 건설비용 16억 달러를 차관형식으로 이란에 공여하기로 2023년 5월에 합의

2. 러시아의 국내 산업 육성 정책 본격화

▶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방편의 하나로 자국 산업의 육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는 러시아는 향후 본격적으로 본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몇 가지 주요 산업정책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함.

□ 자동차 산업

- 정부는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자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제조된 고도로 현지화된 제품생산, 현대적

인 모빌리티 서비스 및 디지털 자동차 서비스 구축으로 러시아 시장의 요구를 충족

- 자동차 산업의 기술 주권 보장
- 러시아 경제에 대한 자동차 산업의 기여: △ 러시아연방에서 현대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을 보장, △ 고도로 현지화된 자동차 산업 제품은 현지화 수준이 80% 이상인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규정, △ 러시아연방 자동차 산업의 기술 주권은 차량 및 주요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재료의 생산 및 개발을 보장하며, 지적 권리는 러시아 소유자에게 있음.
- 러시아 경제에 대한 자동차 산업의 기여 성장 목표는 2035년까지 자동차 산업의 무역 수지 흑자(부품 2차 시장 제외)를 달성하고 자동차 산업의 총부가가치를 2022년 대비 2025년까지 42%, 2030년까지 113%, 2035년까지 146% 증가시킴으로써 달성될 것.
-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자동차 산업 제품(완성 차량, 부품 및 기술 포함)의 경쟁력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제 기술 규정을 준수하고 글로벌 공급업체의 고급 제품 품질 및 비용과 일치하는 고도로 현지화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
-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도 차량의 안전성, 경제의 물류비용 절감, 기술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을 보장해야 함.

● 자동차 산업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 고도로 국산화된 제품의 목표량 생산: △ 자동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고려하여 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 지원 조치 및 인센티브를 통해 내수 생산목표량을 보장

-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소형 디젤 엔진, 자동 변속기,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ABS)용 전자 제어 장치, ESP(전자 안정성 제어), 에어백, 차량 내 비상 호출 장치 생산을 포함하여 동력 장치 및 능동·수동 안전 시스템 분야에서 전자를 포함한 중요한 구성 요소
- 경쟁력이 있는 경우 독점 기술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독점 및 라이선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구성 요소의 러시아 생산을 촉진
- 러시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러시아 Tier 1 핵심부품뿐만 아니라, 주로 현지화된 Tier 2 및 3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구성
- 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재료 및 관련 생산 기술의 개발 촉진: △ 차량 및 부품 생산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러시아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
- 차량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 촉진
- 엔지니어링 및 생산 인력의 역량 개발 자극: △ 자동차 제조업체 출하량의 5~7%로 부품 생산의 연구개발 및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관련 산업의 생산 촉진: △ 자동차 산업을 위한 완제품,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촉진
- 차량의 안전에 관한 관세 동맹 기술 규정의 현재 및 미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차량 생산 촉진
- 품질 및 비용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업체의 고급 기술에 상응하는 국제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련 기술의 생성 및 개발 지원
- 고도로 현지화된 혁신적인 차량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 이를 위한 부품 및 재료 부문의 자체 기술 및 역량의 확대: △ 자율

주행 차량, V2X 기술 및 자율 제어 분야에서 국가 소프트웨어 제품의 생성 및 구현, △ 승용차 및 경상용차 부문의 전기 견인 및 연료 전지에 대한 새로운 직렬 플랫폼 개발 및 출시, △ 트랙션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플랫폼용 모듈 생산시설 구축, 경상용차, 트럭 및 버스 부문에서 자율주행차의 새로운 직렬 플랫폼 개발 및 출시

- 자동차 산업의 개발 작업을 동기화하려면 전략에 따라 관련 규제 및 법적 틀을 업데이트해야 함.

● 전략 실행을 위한 재원 지원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고 이를 투자하여 현지화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수행

- 2023~2025년에 중요한 자동차 부품의 현지화를 가속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해 연방 예산 할당 비용으로 최대 3,000억 루블 할당(전략의 목표 개발 시나리오가 구현된 경우)
- 자동차 산업 제품에 대한 2023~2025년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 예산 할당을 연간 최대 260억 루블까지 할당

□ 금속 산업

● 현재 러시아 금속 산업이 처한 여러 문제, 예를 들면, 금속자원 확보, 연계된 교통 및 인프라 부족, 저부가가치 중심 제품생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목표 제시

(1) 대량생산 제품

- 2030년까지 철강 완제품 소비 목표량은 2021년 대비 29.6% 증가한 5,800만 톤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출량을 2021

- 년 2,930만 톤에서 2030년 2,95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
- 2030년까지 알루미늄 국내 소비 목표량은 2021년보다 16.7% 증가한 180만 톤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알루미늄 수출량은 2021년보다 29.6% 증가한 310만 톤 수준으로 계획
 - 2030년까지 니켈 소비 목표량은 스테인리스강 제품 증산 프로젝트 시행 등을 통해 2021년 대비 216.8% 증가한 63,300톤 수준으로 계획
 - 대체 수출 대상국은 터키, 중국,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및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
 -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금속 제품 소비 성장의 주요 동인은 주택 및 기반 시설 건설, 운송 공학, 기계 및 장비 생산, 화학 산업, 군수 산업 단지, 기구, 가전제품 및 의료제품 생산과 같은 분야에서 철 및 비철 야금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산업제품에 대한 수요
 - 건설 분야: 철거 주택에서 시민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의 이행, ‘러시아연방 시민을 위한 저렴하고 편안한 주택 및 유틸리티 제공’ 국가 프로그램의 구현, 건설 분야에서 철강의 범위를 확장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 계획의 구현, 도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구현, 주요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대상 건설 및 그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의 구현, 탄화수소 운송 및 처리를 위한 인프라 개발
 - 수소 에너지 분야: 수소 에너지의 개발 이행
 - 운송 공학 분야: 운송 공학의 성장, 러시아연방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국가 프로그램 구현
 - 항공기 건설 분야: 러시아연방 ‘항공 산업 개발’ 국가 프로그램 구현의 하나로 러시아 항공기 생산 계획

- 중공업 분야: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의 하위 프로그램 ‘생산 수단 생산 개발’의 틀 내에서 국내 중공업 제품의 생산 증가
- 공작 기계 제작 분야: 2035년까지 공작 기계 산업 개발 전략의 핵심 지표 목표에 따른 공작 기계 제품의 국내 생산량 증가
- 전기 장비 생산 분야: 2035년까지의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과 ‘원자력 산업 단지 개발’ 국가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계획 실행
- 군사 산업 단지 영역: ‘군 산업 단지 개발’ 국가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군사 산업 단지 조직의 산업 활동

(2) 특수금속 제품

- 철야금 분야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고정 자산 개발(현대화)에 대한 투자 유치는 물론, 해당 제품의 소비자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특수강 및 합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
-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점유율을 생산량의 75%로 늘릴 계획이며, 이는 알루미늄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 판매를 위한 반제품을 국내 시장에 제공하고 압연 제품, 호일 및 알루미늄 휠과 같은 고가공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필요
- 전략적 산업(항공우주 및 조선), 건설 부문, 에너지 공학 및 포장 산업의 반제품 및 비철금속 소비 증가로 인해 구리(압연 와이어, 막대), 완제품(튜브, 피팅, 전기 케이블), 니켈 및 티타늄의 반제품 생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망간 광석의 경우 수입품을 다양화하고 정광에서 망간 합금철을 효율적으로 제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망간 정광을 탈인 하는 보

다 진보된 방법을 개발

- 크롬 광석의 경우, 야말네네츠자치구(콘도르-흐롬) 및 페름주(사라놉스코예)의 우랄 극북(Polar Urals) 지대의 광상을 기반으로 크롬 원료의 수입 대체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함.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러시아 시장에서 국내 크롬 원료의 점유율을 약 70% 달성
- 니오븀 광석의 경우 니오븀 광상(야쿠티야(사하공화국) 톨토르스코예 광상 및 이르쿠츠크주의 자시힌스코예 광상)을 개발해야 하며, 2026~2028년 시운전이 러시아 야금의 요구를 충족할 것
- 알루미늄의 경우 수입 알루미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향후 7년 이내에 레닌그라드주의 우스티-루가에 새로운 알루미늄 공장 건설 프로젝트 고려
- 아연 광석의 경우 오제르노예 매장지 개발과 베르흐니 우팔레이시에 연간 12만 톤의 아연 용량을 갖춘 아연 공장 건설 계획을 통해 수입을 완전히 대체
- 티타늄 광석의 경우 러시아 매장지에서 채굴된 국내 복합 티타늄 함유 광석을 경제 순환에 포함할 수 있는 농축 기술 개발
- 리튬 광석의 경우 자비틴스키, 폴모스톤드롭스키, 코빅타, 야락타, 콜모제르스키광상 현장에서 리튬 광석 추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이행

□ 산업정책의 평가 및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은 모두 서방과의 단절 및 자립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기 산업정책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 전반적으로 재원의 투입, 자금계획과 필요 기술의 목록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달성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좀 더 구체화한 계획이 부재
 - 각각의 기술에 우위와 특화를 보이는 러시아 내 기관 및 기업 리스트와 이들의 경쟁력을 측정한 결과가 부재하며 인력육성 계획도 부재

-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 온 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자국산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어 온 것은 사실이나 엔진 등 주요 부품 생산 및 전기차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짐.
 - 중국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만으로 원하는 기술 수준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한동안은 중국 자동차의 국내 진출과 저가 대중용 자동차의 양산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전기차 등의 생산에 힘쓰고 있으나 중국 자동차 플랫폼의 변형에 그치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금속 분야의 발전은 타 산업 분야 발전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마이크로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분야보다 실현 가능성은 큼.
 - 전반적으로 필요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광물 가공과 산업 발전의 역사가 오래되고 경쟁력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큼.
 - 다만, 타 산업 분야와 얼마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 관건이 될 것임.

- 마이크로 전자 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경쟁력이 가장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까지의 자립도 달성은 난망

- 현재 러시아의 반도체 생산능력은 매우 제한적인데 기술 개발 및
의미 있는 양산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내
부에서도 회의론 부상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및 기타 우호국들과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상 기술 확보를 위한 파트너 선
정이 쉽지 않은 상황

● 향후 각각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별 클러스터를 강화
하는 방식의 발전전략을 답습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국영기업/대기업 중심의 산업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점차 약해질 수 있음. 점차 산업의 혁신성보다
는 선진국을 쫓아가기 위한 기술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의 연구 결
과를 추종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



러시아 반서방 대외정책의 현황과 전망

이주연 (한양대학교)

I. 들어가는 말

- 2022년 시작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3년에도 지속되었고 러시아로서 2023년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갈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비서구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했음. 특히, 2023년 3월 31일 러시아가 발표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에서 이와 같은 대외정책 노선을 찾아볼 수 있음.
- 2023년 외교정책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부는 러시아 주변국, 아태지역,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과의 관계를 증진했고 실질

적인 협력의 저변을 넓힌 것으로 평가했음. 한편, 서방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면서 서방의 국제적 고립 계획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음.¹⁾

- 그렇다면 러시아 외교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2023년 러시아 대외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본 글은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2023년 러시아 대외정책을 살펴봄.
- 따라서 본 글은 2장에서 ‘2023년 러시아연방 외교정책 개념’을 분석하고, 3장에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분석할 것임. 4장에서는 2023년 러시아 대외정책을 평가하고 2024년 대외정책을 전망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II. 2023년 러시아연방 외교정책 개념

□ 러시아 외교정책의 목표와 특징

- 서방으로부터의 자국 생존권 보장
 -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위협국으로 인식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국의 생존권과 발전을 위해 서방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할 것임을 밝힘.

1) “Press release on Russia’s main foreign policy results in 2023”, https://mid.ru/en/foreign_policy/rso/1923985/ (검색일: 2024.01.02.)

-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을 적대적으로만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등과 상호 이익이 존중된다면 서방과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결국 러시아는 자국이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서방이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서방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태도임.

●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확립

- 러시아는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패권 거부, 국제법 강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특정 국가의 발전모델,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다극화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세계·지역적 차원의 안보 보장을 위한 국제 메커니즘 개선의 필요성을 적시하면서, UN의 역할 회복과 BRICS, SCO, CIS EAEU, CSTO RIC(러시아, 인도, 중국) 등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강조함.
- 결국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메커니즘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의 역할이 강조되는 다자기구가 다극화된 국제사회에 적합하다는 논조임.

● 무력 사용의 조건

- 유엔 헌장 51조(자위권),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 격퇴 및 예방, 평화 유지를 위해 러시아는 군대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치, 경제, 정보 통신 등을 활용한 비우호적 행위를 진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함.

- 지역 안보 차원에서 동맹국에 대한 외부의 간섭 시도를 억제하고, 지역 안보 보장을 위한 러시아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언급함.
- 다만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지양하고, 핵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태도임.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

- 국제 테러 행위로부터 러시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테러 분야의 다자간 협력 강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밝힘.
-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극단주의 관련, 네오나치를 포함한 극단주의 조직이 국내외 정책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인터넷에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신나치주의 및 급진적 민족주의 포함) 확산을 저지할 것임을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으로부터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보호를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고, 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네오나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극단주의에 네오나치를 포함한 것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와의 테러전, 사이버전 등에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

● 러시아 문화 확산과 보호

- 러시아는 비우호국의 루소포비아와 같은 적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이미지를 강화하고 러시아어의 위상을 높이길 원함.
- 이외에도 러시아 공공외교를 발전시키고 러시아와 CIS 역내 러시아 정체성을 보호·발전시킬 것을 주장함.

- 특히, 러시아는 역사 왜곡, 루소포비아, 신나치주의 확산, 민족적 배타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 유엔 창설에 대한 소련의 기여, 세계 역사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위한 정확한 정보 확산 등이 필요함을 언급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신나치주의에 대한 러시아 문명의 보호 필요성을 명시했다는 것임.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데 자국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음.

● 재외동포 지원

- 해외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발표함.
- 이것은 이전의 조지아 전쟁,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외동포 보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임.
- 기존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해당 항목을 토대로 근외 지역의 동포 보호 명목은 앞으로 러시아 군사 개입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외교정책의 지역별 우선순위

- 러시아 외교정책 개념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순위는 △근외 지역 △북극 △유라시아 대륙(중국과 인도 포함)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슬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럽 지역 △미국과 기타 앵글로색슨 지역 △남극 순서로 작성되어 있음.
- 우선순위에서 보이듯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보다는 근외 지역

- 과 유라시아 지역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
- 즉, 단기적으로 서방과의 관계 개선보다 비서구 국가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역별 우선순위로 보아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분열, 다극화, 블록화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측됨.

Ⅲ. 국가·지역별 대외관계

1. 미국·유럽

□ 미국

● 제재를 통한 미국의 러시아 경제 압박²⁾

- 미국은 2023년 2월 24일 G7 국가 및 동맹국과 협력하여 러시아 방위 및 기술 산업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재부터 12월 22일 러시아산 제품 수입 제한 조치까지 총 8차례의 제재를 부과했음.
- 대러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주로 금융 및 군수 업체에 대한 것이었음. 그러나 4월 12일 제재는 우크라이나 위성 사진을 제공한 중국 기업도 그 대상에 포함했음.
- 또한, 헝가리, 키르기스스탄 등 외국 소재의 러시아 기업과 금융기관도 제재 항목에 포함했음.

2) “Sanctions against Russia – a timeline”,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sanctions-against-russia-8211-a-timeline-69602559> (검색일: 2024.01.02.)

- 2023년에도 2022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주요 인사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지속했음. 그러나 이미 SWIFT 배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2022년에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하여 제재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³⁾

- 2022년 1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미국의 지원은 총 754억 달러 규모임. 이 중 군사 지원은 전체 지원의 61%로 463억 달러임.
- 7월경에는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기로 합의함. 집속탄은 민간인까지 무차별 공격할 수 있어 세계 100개국 이상이 그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 측면에서 미국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견인하는 지원이 아니고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하려는 목적이 다분함.

●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성의 한계?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외에 이스라엘에도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임. 그리고 국내 경제 악화와 전쟁 지원 반대 주장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많음.
- 그러나 지원 예산 부족 발표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최대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 패키지 지원을 발표했다.

3) “How Much Aid Has the U.S. Sent Ukraine? Here Are Six Charts”, <https://www.cfr.org/article/how-much-aid-has-us-sent-ukraine-here-are-six-charts> (검색일: 2024.01.02.)

- 현재 전쟁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초당파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상원 공화당의 40명 이상이 군사 지원에 찬성하고 있음.
- 심지어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추가로 군수물자를 지원해야 하고, 61%가 경제 지원을 지지하고 있었음.⁴⁾

● 러·미 관계 평가: 증오의 복리(Compound Interest)

- 10월 5일 발다이 클럽에서 이뤄진 푸틴 대통령의 연설과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 문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을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러시아로 규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결국 전쟁이 계속되고 군사적 소모가 높아질수록 양측 간의 불신과 증오가 증첩되고 있음.
- 다시 말해, 2023년 러·미관계는 2022년과의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계가 악화한 한해로 평가할 수 있음.

4) “Despite Washington chaos, Americans still want to support Ukraine”, <https://www.politico.eu/article/despise-washington-chaos-americans-still-want-to-support-ukraine/> (검색일: 2023.12.28.)

□ 유럽

● 대러 제재의 지속⁵⁾

-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러 제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12월 18일, 12차 경제 및 개인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음. 이는 러시아 경제의 고부가가치 부문을 표적으로 제재 우회를 어렵게 만들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는 조치임.
- 이것은 10월 9일 EU 의회 결의안에 따라 러시아의 EU 제재 우회를 줄이는 조치로 지금까지 부족했던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보임.⁶⁾

● 핀란드의 나토 가입⁷⁾

- 4월 4일 핀란드가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음. 이로써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접경 길이는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났음.
- 이에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비판했고 북서쪽의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대응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유 중 하나로 나토의 지속적인 확장을 언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5) “EU Issues 12th Sanctions Package Targeting Russia”, <https://sanctionsnews.bakermckenzie.com/eu-issues-12th-sanctions-package-targeting-russia/> (검색일: 2023.12.28.)

6) “Effectiveness of European Union sanctions against Russia” <https://www.dsavocats.com/effectiveness-of-european-union-sanctions-against-russia/> (검색일: 2023.12.28.)

7) “핀란드 ‘나토 31번째 회원국’ 4일 확정...러시아 강력 반발 “나토 국경으로 전술 핵무기 이동””, <https://www.voakorea.com/a/7034249.html> (검색일: 2023.10.05.)

러시아의 반나토, 반서방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전략적 나침반(The EU Strategic Compass) 채택⁸⁾

- EU는 ‘전략적 나침반’ 문서를 통해 나토가 EU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다시 확인했고, 유럽의 방어가 나토에 의해 보장됨을 명시함.
- 또한, 외교·안보 정책이 이사회의 만장일치 방식이 아닌, 투표로 결정하도록 변경했음.
- 결과적으로 유럽의 나토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발트해 국가 내 독일의 군사 배치

- 12월 18일 독일은 발트해 국가에 4,800명의 독일군을 주둔시키는 협정에 서명함.⁹⁾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트해 국가로 확산할 위험이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독일이 내린 것으로 보임.
-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므로 러시아 제재에 다소 유보적이었음. 그러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지역의 방어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8) 이주연, “짜기전략 관점으로 본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 분석과 평가” 『슬라브학보』 제 38권 2호 (2023), 274쪽.

9) “Germany puts its troops in the line of fire if Putin attacks NATO”, <https://www.politico.eu/article/germany-strikes-deal-with-lithuania-on-its-first-permanent-foreign-troop-deployment/> (검색일: 2023.12.26.)

● 러시아의 헝가리 공략¹⁰⁾

- 10월 17일 일대일로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정상회담을 개최했음.
- 헝가리는 EU와 나토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가령 헝가리는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을 여전히 수입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음.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마무리를 주장하고 있음.
- 결국 헝가리는 서방의 반러시아 연대 중 ‘느슨한 고리’이므로 러시아는 헝가리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러·유럽 관계 평가: 진퇴양난의 상황

- 러시아와 유럽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치적 갈등 상황으로 관계가 악화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부족함.
- 장기적 관점에서 유럽 경제 위기로 러시아와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양측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인정하고 전쟁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전쟁에 투자하는 비용이 점차 늘어날수록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음.

10) “Russia’s Putin, Hungary’s Orban reaffirm bond ahead of Beijing summit”,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0/17/russias-putin-hungarys-orban-reaffirm-bond-ahead-of-beijing-summit> (검색일: 2023.11.18.)

2. 중국

● 멈추지 않는 양국의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점차 나빠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
- 즉, 2023년은 러시아가 서방에 대해 폭주하는 것과 달리,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한해임.

□ 러·중 정치·외교 관계 이슈

● 2023년 2월 24일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했다.

- 구체적으로 △주권의 존중 △냉전 사고방식 폐기 △적대행위 중단 △평화회담 재개 △인도주의적 위기의 해결 △민간인과 전쟁 포로 보호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유지 △전략적 위협 감소 △곡물 수출 촉진 △일방적 제재 중단 △산업 및 공급망 안정 유지 △분쟁 후 재건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려던 중국의 2022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다만 핵 사용과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함.

● 러·중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 채택¹¹⁾

- 3월 20일 러·중 정상회담 결과 두 지도자는 ‘러·중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해당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음.
- 결국 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 국제질서가 아닌, 양극 혹은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공유한 것으로 보임.

● 양국 이니셔티브의 상호보완성 언급¹²⁾

- 10월 18일 푸틴 대통령은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 참가하여 정상회담을 열었음.
- 중국 방문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의 관계에 관해 푸틴 대통령은 일대일로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고, 유라시아 파트너십은 지역 규모의 프로젝트이므로 상호보완적이라고 언급함.
- 장기적으로 두 프로젝트로 인해 양측의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양국의 이니셔티브가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조율하려는 것으로 보임.

11) “[서구권] 중·러 정상, 경제 현안과 반미연대 논의”,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9816&mid=a2020000000&board_id=2 (검색일: 2023.10.22.)

12)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72532>

□ 러·중 경제 협력 이슈

● 양자 교역액의 증가¹³⁾

- 2023년 1~11월까지 양국의 교역액이 2,1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것은 2024년까지 교역액을 2,000억 달러까지 늘리려는 2019년의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임.
- 1~11월까지 승용차 수입의 80%가 중국산이었고, 3분기 기준 러시아 신차 시장의 50%를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음. 즉, 대리 제재로 러시아의 빈 자동차 시장을 중국이 채우고 있는 형국임.
- 러시아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을 살펴보면, 시베리아를 통한 중국으로의 가스공급이 50% 이상 증가했고 석유 수출도 7천 500t 이상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러시아가 중국에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하고 있음.¹⁴⁾
- 양국 교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역의 95%에서 달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적어도 양국 교역에서 탈달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 허가¹⁵⁾

- 러시아는 6월 1일부터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화물 중

13) “China-Russia trade hits \$218 bln in Jan-Nov, completing goal planned to reach in 2024”, <https://www.reuters.com/markets/china-russia-trade-hits-218-bln-jan-nov-completing-goal-planned-reach-2024-2023-12-07/> (검색일: 2023.12.12.)

14) 정재홍, 이동민, “새로운 국제 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세종정책브리프』 No.2023-17 (2023), 18쪽.

15) 이한나, “중-러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Vol. 6, No. 24 (2023).

- 계항¹⁶⁾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통 큰 선물’을 주었음.
- 중국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을 통한 물류망 개선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항 물동량 증가, 중국-러시아 간 해상 운송비 절감, 극동 지역으로의 러시아 물류망 재편, 그리고 중국과의 정치·경제 관계 향상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한편, 러시아는 극동 지역 내 과도한 중국화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러시아와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러·중 군사협력

● 합동 군사훈련¹⁷⁾

- 7월 20일 러시아와 중국은 해상 합동훈련(Northern/Interaction-2023)을 진행함.
- 양국은 훈련 목표를 ‘해군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로 설정했고, 10척 이상의 해군 함정과 30대 이상의 군용 항공기를 배치했음.
- 해당 훈련은 7월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해당 훈련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16) 내륙 중계항은 국내 물류 이동 시 외국 항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중국 국내 무역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17) “Analysts See China-Russia Exercise as Sign of Deepening Cooperation”, <https://www.voanews.com/a/analysts-see-china-russia-exercise-as-sign-of-deepening-cooperation/7188482.html> (검색일: 2023.12.18.)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중국의 남쿠릴열도에 대한 입장 변화¹⁸⁾

- 4월 시진핑 주석은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 이것은 1964년 마오쩌둥이 남쿠릴열도 4개 섬을 일본 소유로 보는 중국의 입장을 중립으로 전환한 것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이로써 중·일 센카쿠 열도 분쟁, 러·일 쿠릴열도 분쟁에서 러·중 외교 및 군사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음.

3. 근외 지역

● 흩어진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노력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라시아 지역 내 러시아의 패권이 약화했다는 의견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충돌되고 있음.
- 2023년 상황으로 어떤 의견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지만, 근외 지역에 대한 2023년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요 특징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실할 수 있는 기존의 영향권을 유지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18) “Xi told Putin China no longer supports Japan’s claim to Russian-held islands, source says, in shift from Mao’s position”, <https://www.scmp.com/news/asia/east-asia/article/3215910/xi-told-putin-china-no-longer-supports-japans-claim-russian-held-islands-source-says-shift-maos> (검색일: 2023.11.22.)

□ 우크라이나·벨라루스

● 멈출 수 없는 전쟁

- 전쟁의 장기화로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협상이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중립 지위를 포함하는 러시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¹⁹⁾
- 젤렌스키 대통령은 50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 동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음.²⁰⁾
- 결국 양측은 이른 시일 안에 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출처 : ISW

19) “Putin says goals in Ukraine have ‘not changed’ and war will continue until Kyiv agrees a deal”, <https://www.cnbc.com/2023/12/14/ukraine-war-live-updates-latest-news-on-russia-and-the-war-in-ukraine.html> (검색일: 2023.12.22.)

20) “Ukraine military seeks extra 500,000 soldiers - President Zelensky”,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7767246> (검색일: 2023.12.22.)

● 러·벨라루스 군사협력 강화

- 6월 17일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벨라루스에 첫 번째 전술 핵무기를 배치 완료했음을 밝힘.
- 전술핵 배치로 인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핵을 공유하므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8월경 벨라루스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시행했음. 이것이 러시아의 지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벨라루스의 군사 훈련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 조성에 성공한 것으로 보임.

□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 국가로의 에너지 공급²¹⁾

- 7월 10일 푸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 이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을 발표했다.
- 이번 협정은 러시아가 추구하는 가스 연합을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일정 부분 이들 국가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높인 효과가 있음.
-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이곳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이 공급되는 것

21) “Russian gas in Central Asia: a plan to deepen dependence”, <https://www.osw.waw.pl/en/publikacje/analyses/2023-10-31/russian-gas-central-asia-a-plan-to-deepen-dependence> (검색일: 2023.11.28.)

은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렛대를 획득한 것임.

●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신거대게임²²⁾

- 4월 14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CA5+러시아’ 형식의 장관급 회의가 개최됐음.
- 이후 5월 18일 중국 시안에서 사상 최초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9월 19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미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열렸음.
-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의 행보로 중앙아시아가 여전히 러시아의 뒷마당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 특히, 11월 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러·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이 열린 후 기자회견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어로 발언하기도 했음.²³⁾
- 즉, 중앙아시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리한 파트너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중앙아 외교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2) “Central Asia in Change amid the New Great Game”, <https://eng.globalaffairs.ru/articles/central-asia-in-change/> (검색일: 2023.11.20.)

23) “Kazakh president uses language to deliver a surprising message to Russia”, <https://eurasianet.org/kazakh-president-uses-language-to-deliver-a-surprising-message-to-russia> (검색일: 2023.11.20.)

● 타지키스탄 내 S-300 도입과 CSTO 내 통합 방공 시스템 창설²⁴⁾

- 11월 22일 푸틴 대통령은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2개 대대를 타지키스탄에 인도했고, 앞으로 CSTO 회원국의 통합 대공방어 시스템 인도를 완료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함.
- 한편,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CSTO 회원국이 통합 방공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밝혔음.
- CSTO가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 기구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 CSTO 회원국에 대한 통합 방공 시스템 구축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주도권 유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음.

□ 갑카스

● 러시아 입국 시 조지아 국민의 비자 면제와 직항 항공편 복원

- 5월 15일부터 모스크바와 트빌리시를 잇는 직항 항공편이 주 7회 운항하고, 조지아 국민이 비자 없이 90일간 러시아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함.²⁵⁾
- 이와 같은 조치는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 관계를 개선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조지아가 EU 후보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러시아 입장이 부정적으로 변했을 수 있음. 러시아는 조지아의 EU 후보 자격 취

24) “Joint CSTO air defense system de facto created: Russia”, <https://ifpnews.com/joint-csto-air-defense-system-russia/> (검색일:2023.12.01.)

25) “러시아, 조지아와 관계개선 나서...23년 만에 무비자 여행·직항편 복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1365.html> (검색일: 2023.12.15.)

특이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임.²⁶⁾

● 아르메니아의 CSTO 정상회담 불참²⁷⁾

- 11월 23일 민스크에서 개최된 CSTO 정상회담에 니콜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불참했음.
- 이것은 지난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일어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충돌에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임.²⁸⁾
- 즉, CSTO 가입국인 아르메니아가 러시아로부터 안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인식 강화에 따른 조치임. 그러나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것이 아르메니아의 CSTO 탈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아제르바이잔군의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사망²⁹⁾

- 9월 20일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 중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으로 러시아 평화유지군 사령관을 포함한 러시아군이 사망했음.

26) “Kremlin says EU decision on Ukraine, Moldova, Georgia attempt to ‘annoy Russia’”, <https://www.aa.com.tr/en/asia-pacific/kremlin-says-eu-decision-on-ukraine-moldova-georgia-attempt-to-annoy-russia/3083482> (검색일: 2023.12.15.)

27) “[이슈트렌드] CSTO 정상회담에서 향후 운영 관련 합의 체결 ... 아르메니아는 불참”,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5729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3.12.11.)

28) Alexander Atasuntsev, “Long-Standing Ties Between Armenia and Russia Are Fraying Fas”, <https://carnegieendowment.org/politika/90768> (검색일: 2023.12.11.)

29) “Top Russian Officer Among Troops Killed During Azerbaijan’s Attack On Nagorno-Karabakh”, <https://www.rferl.org/a/top-russia-navy-officer-killed-azerbaijan-nagorno-karabakh/32602846.html> (검색일: 2023.11.18.)

- 이에 아제르바이잔 알리에프 대통령은 관련자를 작위 해제 및 처벌하는 한편,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로 애도를 전했다.
- 푸틴 대통령은 카라바흐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의 권리와 보호를 강조했고, 아제르바이잔은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평화유지군과 협력할 준비가 있음을 확인함.
- 결국 해당 사건은 큰 문제로 커지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4. 중동 및 기타지역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10월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테러 관련,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뒷배경에 미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비판하고 있음.³⁰⁾
-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있음. 따라서 해당 분쟁은 러시아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해당 분쟁에서 러시아는 외교적 접근 방법을 선호하고 있음. 즉,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마치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지역 내 반미전선을 공고화하려 함.

30) "How Russia uses the Israel-Gaza Crisis in its disinformation campaign against the West", <https://www.icct.nl/publication/how-russia-uses-israel-gaza-crisis-its-disinformation-campaign-against-west> (검색일: 2024.01.05.)

□ 이란

● 러시아와 이란의 반서방 연대 공고화

- 카스피해 연안국 포럼 이후 러시아와 이란은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이란 선언(Decla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에 서명했음.
- 12월 7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됐음. 해당 회의에서 두 지도자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란 FTA 체결³¹⁾

- 12월 25일 EAEU와 이란 간 교역 물품 관세의 87%를 철폐하는 FTA가 체결됐음.
- 이번 FTA는 EAEU 회원국과 이란 사이의 교역 증대라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안보협력 강화

- 2023년 3월 오만만에서 러시아, 이란, 중국은 세 번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함.
-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이란이 개발한 드론을 자국에서 생

31) “이란, EAEU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https://www.emerics.org:446/www/newsBriefDetail.es?brdctsNo=359651&mid=a10100000000&systemcode=05> (검색일: 2023.12.30.)

산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³²⁾

- 이란은 Su-35 전투기, Mil Mi-28 헬기, Yak-130 제트 훈련기 등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할 것을 발표함.³³⁾
-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양국의 안보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음.

● 리·이란 관계: 위기 속의 동지

-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의 지정학적 위기가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결국 양국의 협력은 양자 차원의 이익보다는 각자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협력에 가까워 리·중 관계보다는 느슨한 협력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임.

□ 북한

● 리·북 정상회담

- 9월 13일 러시아와 북한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음.
-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양국의 부정적

32) 이에 대해 러시아와 이란은 공식적인 입장을 피하고 있지만, 제작의 증거가 나오고 있음. “More Evidence That Russia’s Making Iranian Drones,” <https://www.longwarjournal.org/archives/2023/07/more-evidence-that-russias-making-iranian-drones.php> (검색일: 2023.12.05.)

33) “Su-35 Flankers: Iran Says ‘Deal Done’ To Acquire Russian Military Aircraft Inc Su-35 Fighters, Mi-28 Choppers”, <https://www.eurasiantimes.com/su-35-flankers-iran-says-deal-done-to-acquire-russian-military-aircraft/> (검색일: 2023.12.05.)

- 인 경제적, 지정학적 상황이 이해관계를 일치시킨 것으로 보임.
- 해당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전선을 다각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특히, 정상회담 개최지역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라는 점은 마치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음. 물론 지금까지 러시아가 국제 핵확산을 억제했고 특히 한반도 내 비핵화를 추구했다는 점을 볼 때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것임.
 - 또한,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전쟁 지원?

- 많은 언론은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 수입, 북한 군대 파견 등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도했음.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참전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음.³⁴⁾
- 다만, 포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양이 많으므로 북한제 포탄이 러시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BRICS 확장³⁵⁾

- 8월 22~24일, 3일간 15차 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됐음. 정상회의를 통해 2024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UAE,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34)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72277>

35) 강선주, “2023년 브릭스(BRICS)의 확장: 지정학적 새 판짜기의 시동”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14229&boardSe=pbl&koreanEngSe=KOR&ctgrySe=12&menuCl=&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검색일: 2024.01.08.)

- 피아, 이란, 이집트가 정식 회원국으로 확정됐음.
- BRICS 회원국으로 이란이 추가된 것은 BRICS가 서방과의 대결 구도에 참여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이 서방 진영에서 이탈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냄.
 - 지경학적으로도 확대된 BRICS 회원국 중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은 세계원유 공급의 42%를 차지하므로 글로벌 원유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탈달러화를 추동할 수 있음.
 - BRICS가 더욱 발전한다면 G7과 BRICS+ 사이의 갈등 구도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
 - 이처럼 러시아가 서방과의 협력보다는 비서구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BRICS의 확장은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IV. 결론 및 2024년 러시아 대외정책의 전망

- 2023년 러시아 외교정책 개념으로 예측할 수 있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방어기제 성향이 짙게 나타난다는 것임. 즉, 서방은 가해자이고, 러시아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적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임.
- 이 같은 대외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서방과의 대립 전선을 형성하는 것임.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전방으로 무력을 통해 이를 직접 해결하는 방식임. 두 번째 방향으로서는 국제사회를 분열, 블록화하는 것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과 비교하여 가장

부족한 것은 단결력으로 보임. 즉, 특정 상황에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만한 동맹, 파트너가 부족함.

-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전방에서 무력을 투사하기 위한 경제·정치적 원조를 비서구권 국가에 얻어내고 있는 형국임.
- 이와 같은 관점에서 2023년 가장 유효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성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G20의 의견 불일치와 BRICS의 확장인 것으로 판단됨. 우선 2023년 G20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문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 선언문에 포함되지 못했고, 2022년과 비교하여 표현도 완화되었음.
- 두 번째 성과로 BRICS의 확장을 들 수 있음. 물론 앞으로 BRICS의 확장 성공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러시아가 그리고 있는 반서방 대외정책의 스케치는 그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2024년은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임. 1월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11월 미국 대선까지 국제사회의 구도를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트럼프 재선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바이든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권분립이 명확한 미국에서 쉽사리 대외정책이 전면 수정되기는 어려움. 가령 트럼프 집권 시기 대러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2024년 대외정책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로 슈퍼 선거가 이루어져도 반서방적인 대외정책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작음.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대 반격을 저지했고, 국제적인 고립이 더 심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2024년의 러시아 대외정책을 전망해보자면, 반서방 대외정책이라는 스케치에 색채를 더해 국제·지역 차원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예측됨.



전쟁 승리를 위한 국력 집중

김규철 (한국의국어대학교)

I. 들어가며

-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2년 넘게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쟁은 장기 소모전 양상을 띠고 있음. 2023년에 러시아는 추가적인 영토 점령보다는 점령 지역 방어와 우크라이나군의 군사력 약화에 치중했음.
- 우크라이나군은 2023년 6월부터 소위 ‘대반격 작전’을 시행하고 있으나 러시아군의 강력한 방어로 인해 작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맞물려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이 약화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 국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서방의 언론도 이전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며 평화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함.

● 러시아는 병력 및 무기 등 전쟁 수행 능력에서 우크라이나에 월등한 이점을 이용하여 전국민적 단합 캠페인을 벌이면서 전쟁 승리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소위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서방에 대한 대립각을 내세우며 군사력을 최고도로 증강하고 있음.

II.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과

1. 헤르손 북부 지역 철수(2022년 11월) 후 전선 고착

● 2022년 주요 조치

- ①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9월 21일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여 전쟁 유경험자 위주로 30만 명을 동원함. 2023년 1월 기준 동원 병력 15만 명은 전선 투입, 15만 명은 투입 전 훈련, 추가로 2만 명이 자원입대함. 동원 및 자원 병력은 계약병(모병) 수준의 봉급 195,000루블(약 3,000달러)을 지급하도록 조치함.
- ②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에서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대다수가 찬성한 이후¹⁾ 9월 30일에 합병을 선언함.

1)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면, 루한스크 98%, 도네츠크 99%, 자포리자 93%, 헤르손 87%의 찬성 비율을 보였음.

- ③ 10월 19일에는 4개 지역에 대해 전시 상태(계엄령)를 선포한 이후 해당 지역은 전시 상태에서 주민 출입 제한, 경제 동원, 지역 수장에게 관련 조치에 대한 전권 부여, 지역별 작전본부 설치 운용 등 법령을 시행하고 있음.
- ④ 러시아는 11월 9일 헤르손주의 일부(드네프르강 서안)에서 병력과 주민을 철수함. 이는 헤르손 지역으로의 보급 여건 제한, 우크라이나가 카호프카 댐 폭파 시 홍수 위험으로 인한 피해 발생, 병력의 포위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고됨.²⁾ 병력 철수에 따라 헤르손주의 행정수도를 헤르손에서 게니체스크(흑해 연안)로 변경함.

[그림 1] 작전 상황도(2022.11)



출처: 영국 국방부, 2022.11.9.

2) “Доклад генерала Суворовкина Сергею Шойгу о ситуации в рай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операции 9 ноября 2022: полная стенограмма,” <https://www.kp.ru/daily/27469/4675087/> (검색일: 2022.11.10).

- 2022년 211월 헤르손 북부 철수 이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는 방어 진지를 강화하여 방어에 치중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약화를 위해 후방의 주요 기간시설(난방, 수도, 통신, 교통) 타격, 유생역량 말살, 서방 지원 무기 및 탄약고 파괴 등을 시행함.
- 이후 전반적인 전세는 진지전 형태를 띠면서 전선이 고착됨[그림 2].

[그림 2] 작전 상황도(2024.2)



출처: 영국 국방부, 2024.2.23.

2. 우크라이나군 반격(2023년 6월 ~ 2024년 2월)

- 우크라이나군은 2023년 6월 4일 이후 3개 방면에서 반격하고 있음.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공격을 계속하면서 남부 지역에서는 방어 위주 작전을 전개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일부 지역 공격에 성공하였으나 러시아군의 주 방어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전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음.

● 러시아군 편성: 통합사령부 예하에 5개 전략그룹 편성

[그림 3] 러시아군 작전 편성



출처: <https://vot-tak.tv/novosti/20-04-2023-gruppirovka-vojsk-dnepr> (검색일:2024.1.10.).

● 적극적 방어 전술 운용

- 적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습격 부대 및 드론 부대 편성 및 운용
- 각 야전군에 예비 연대 편성하여 유사시 투입
- 통합방공 체제를 운용하여 6개월간 적 하이마스, 탄도 및 순항미사일 1,062발 격추
- 적 방공무기 및 전자전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정밀무기 운용
- 전략 및 작전 중심(후방 지역)에 적 탄약고, 무기 하역 지점, 무기 정비 공장 및 기업, 훈련소 및 병력 집결지 타격

● 작전 성과(러시아 판단)

- 전쟁 이전의 5배 크기의 지역을 해방해 주민투표 결과 러시아 영

- 토에 편입함. 합병 지역은 면적 83,000km², 인구 500만 명임.
- 아조프해는 러시아의 내해가 되어 해군 관리지역으로 편성
- 러시아 본토와 돈바스를 철도로 연결
- 크림반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철도 자동차 교통망 형성, 육상통로 가동
- 2014년 이후 이산가족이었던 난민 300만 명이 돈바스로 복귀

● 양국 피해

- 양국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전쟁 이후 러시아군은 약 35.8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약 38.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무기 종류별 주로 기동장비, 포병, 무인기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림 4] 양국 피해(2023.12.30까지 누계)³⁾

구분	러시아 피해 (우크라이나 발표)	우크라이나 피해 (러시아 발표)
병력(사망+부상자)	358,000명	383,000명
전차/장갑차	17,022 (+297)	14,403 (+124)
대포/박격포	8,434 (+148)	7,566 (+104)
다연장포	939 (+7)	1,191 (+2)
대공포	621 (+10)	445 (+3)
항공기	329 (+2)	564 (+10)
헬기	324 (+0)	263 (+2)
무인기	6,554 (+170)	10,241 (+250)
차량	11,244 (+249)	16868(+250)

출처: 우크라이나 국방부; 러시아 국방부 보고자료

3) 우크라이나 국방부, <https://www.facebook.com/MinistryofDefence.UA>; 러시아 국방부 보고자료, https://t.me/mod_russia/34169 (검색일: 2023.12.30).

- 현재까지의 작전 경과를 보면 러시아는 4개 점령 지역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만들었고, 초기에 목표로 제시한 돈바스 지역도 거의 해방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작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전반적인 방어 태세로 돌입하여 기반 시설 파괴와 유생역량 말살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능력을 지속 약화하고, 우크라이나는 무기와 물자 등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여 부분적 반격 작전을 지속하고 있음.

- 러시아군은 작전 간 용병 그룹을 활용하여 바흐무트를 비롯한 주요 전선에서 전과를 거둠. 그러나 6월에는 국방부 장관과 갈등 관계에 있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일부 병력을 기동하여 모스크바로 진군하다가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병력 기동을 중단한 사건이 발생함. 이는 작전 행동에 있어 미흡한 중앙통제와 지도력 약화를 시사한 사건임. 8월에 프리고진이 항공기 추락사를 당한 이후 바그너 그룹은 해체됐으나 용병들은 의용군 형태로 러시아군에 계속 복무하고 관련자는 심문받음. 러시아군은 이후 병력통제를 강화하고 제대별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부대 편성 원칙을 준수함.

- 푸틴 대통령은 작전 성과에 만족하면서도 다음 사항을 보강하도록 지시함.⁴⁾
 - ① 핵무기 현대화
 - ② 신형무기 발전: 로봇 무기, 레이저, 인공지능 등
 - ③ 참전 부대에 적시적인 보급지원, 전장 소요 파악하여 적시에 무

4) “Расши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коллегии Минобороны,”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73035> (검색일: 2023.12.19).

기 생산/공급

- ④ 전쟁 경험을 교육훈련에 반영
- ⑤ 참전 군인에 대한 물질적 사회적 보장

III. 전쟁 수행 및 NATO 위협 대비를 위한 군사력 건설

- 2023년 러시아의 군사력 건설은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기타 전략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NATO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음.

1. 무기 현대화 및 작전 활동 강화

● 전략핵전력 건설

- 러시아는 전략적 억제력으로서 핵전력 현대화를 지속, 현대화 95%를 달성함.
- 2023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 무장을 완료하고, 구형 토폴 미사일을 신형 야르스 미사일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함.
- 해군은 최신 ‘보레이-A’급 잠수함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3세’와 다목적 야센급 잠수함 ‘크라스노야르스크’ 호를 태평양함대에 배치함.⁵⁾
- 항공우주군은 개량형 전략폭격기 Tu-160M 4대를 배치하였음.

5) “АПЛ «Император Александр III» и «Красноярск» вошли в состав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https://paluba.media/news/64680> (검색일: 2024.1.9.). 러시아군은 보레이급 및 보레이-A급 핵잠수함 총 10척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척을 배치하였음(북방함대 2척, 태평양함대 5척).

- 전략폭격기는 20회의 전략정찰을 시행했으며, 이 중 2회는 러중 연합으로 시행함.

● 일반목적군 전력 건설

-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방산업체는 3교대로 완전가동
- 예전에 비해 생산량 현저히 증가: 전차 5.6배(2023년 1,500대 공급), 장갑차 3.5배, 무인기 16.8배, 포병 탄약 17.5배
 - ☞ 가장 큰 문제는 기계 제작 선반이나 일부 전자부품 수입에 의존
- 지상군은 신형 전차와 장갑차 총 1,530대를 배치함.
- 항공우주군은 항공기와 헬기 237대, 방공무기 86문, 전자전장비 67대를 배치함. 훈련용 항공기 개발 작업을 지속하고 있음.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으로 2023년 탄도미사일 발사 78건을 탐지함. 자국 및 외국을 위한 우주 미사일 발사는 168회 이루어짐.
- 해군은 잠수함 4척, 수상함 8척을 배치함. 또한, ‘치르콘’ 미사일을 탑재한 프리깃함 ‘고르시코프’는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2. 부대 창설 및 훈련

- 나토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 주로 서쪽 방면에 군부대를 창설, 배치함.
 - 2개 제병 연합군
 - 혼성비행 군단
 - 50개 연합부대: 사단 4, 연단 18, 연대 28개
 - ☞ 2개 군관구(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창설 작업 진행 중: 핀란드의 21개 군사시설에 미군 배치 협정 고려

- 병력 정원 확대: 현재 115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확대 작업 중(최종 목표는 150만 명)
- 연합훈련 포함 계획된 훈련 실시
 - 2023년에 연합훈련 총 17회 실시
 - 대양의 방패-2023: 8월 발트해에서 해·공군 세력 참가하여 방어 훈련 실시
 - 전략핵전력 훈련: 10월, 푸틴 대통령 지휘하에 적의 대량살상무기 사격에 대응 차원에서 핵전력 운용을 연습
 - 태평양함대 불시 점검훈련: 4.14~20, 병력 25,000명, 항공기 90대, 함정 160척 참가하여 태평양 일대에서 적 공격에 대비한 훈련 실시(30년 만에 최대 규모)

3. 군사시설 건설

- 신형무기 공급에 따른 격납고 및 탄약고 등 군사시설 건설: 군사시설 2,700동, 전략핵무기 시설 592동, 북방함대 시설 보장, 카스피해 함대 기지, 발트해 공군시설, 군사도시 건물 1,000동, 병원 시설 9개, 교육용 실험 병동 건설
- 마리우폴 재건을 위해 아파트 18개 동(1,880세대) 건설 완료,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주민을 위한 수도관 250m 건설

4. 2024년 군사력 건설 방향

- 쇼이구 장관이 국방부 확대 회의에서 2024년도 군의 우선적 과제를

제시

- ① 소위 ‘특별군사작전’ 계속
- ② 새로 창설된 부대 훈련
- ③ 시리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평화 보장
- ④ 나토 동진 확장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 실현
- ⑤ 전략 지휘참모훈련 ‘대양-2024’ 준비 및 시행
- ⑥ 전략미사일 부대 ‘사르마트’ 실전 배치
- ⑦ 전략폭격기 Tu-160M 2대 전투배치
- ⑧ 보레이-A급 잠수함 ‘크냐지 포자르스키’, 잠수함 3척, 수상함 11척 배치
- ⑨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과 ‘치르콘’ 생산 증대, 기타 미사일 생산 1.8배 증가
- ⑩ 기타 신무기 개발 지속
- ⑪ 계약병 인원 74.5만 명으로 확대(2023년 기준 64만 명)
- ⑫ 창설부대와 군인 가족을 위한 각종 군사시설 건설

5. 국방 지원

- 러시아는 군 및 참전 군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정부 특별군사작전 조정위원회 운영: 총리 지휘 각급 부서 활동 통합
 - 참전 군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정부 및 지방행정부 참여)
 - 참전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월 급여 195,000루블(약 3,000달러), 직책에 따라 수당 추가 지급, 군인 가족에 대한 보조금, 주택 공급, 세금 감면 등
 - ※ 현재 61.7만 명 전쟁 참여: 초기 15만, 부분 동원 30만(24.4만 명 투입), 이후 계약병

총원. 2023년 계약병 및 의용군 모집 49만 명, 자진 학업 중단 및 참전 인원 1,500 명, 외국 용병도 7배 증가했음.⁶⁾

- 러시아는 ‘Z 운동’, ‘우리는 함께’ 등 국민 자원봉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국민은 참전 군인을 위한 위문품, 위문편지 보내기, 진지 구축 목재 지원, 피복 지원, 식품 및 식당 지원 등 제2차대전 시 국민 동원과 유사한 활동을 전개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인하여 2023년에 4.7조 루블(GDP 3.9%)을 사용했음. 이는 주로 참전 군인 인건비 및 사회적 보장, 무기와 탄약 공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0.8조 루블(GDP 6%)이며, 2025년 8.5조 루블, 2026년 7.4조 루블을 편성함. 2024년에 최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24년에 결정적인 전쟁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보임.

6. 러시아 군사력 건설 평가

● 러시아군의 군사력 건설 동향과 지도부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는 현시점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시기로 인식하고 국민 단합과 참전 군인에 대한 물질적 사회적 보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거국적 전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러시아는 2022년 약 6천 명 규모의 용병 숫자를 발표한 이후 세부 현황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자원봉사 조직 수장 로고프에 의하면, CIS 지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출신도 있으며 약 40개국에서 수천 명이 용병 자격으로 러시아군에서 참전하고 있음. https://news-front.su/2024/01/20/v-bojah-za-rossiju-uchastvujut-tysjachi-inostrannyh-dobrovolcev/?utm_referrer=mirtesen.ru (검색일: 2024.2.25).

- 러시아는 NATO의 전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현대화 및 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정밀무기 및 극초음속 미사일, 포병, 드론 등 무기의 실험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IV.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한 대외 군사협력 추진

- 러시아는 서방 국가의 대러 고립 시도에 대항하여 110개국과 협력을 시행하고 집단 안보 조약기구(CSTO), 독립국가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과 군사협력 활동을 전개했음. 특히, 중국과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했으며, 약 600회에 걸쳐 다양한 국제 행사를 시행했음.

1. 계획된 연합훈련 최대한 시행

-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연합훈련 및 작전 실시
 - 2023년 러시아군은 적극적으로 계획된 훈련을 시행했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러시아는 CSTO 차원에서 신속대응군 훈련과 벨라루스와 연합훈련, CIS 방공 훈련, 중국 및 인도와 연합훈련을 시행함.
 -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벨라루스 훈련장에서 병력 약 9천 명, 전차 170대, 장갑차 200대, 대포 100문으로 구성되어 전술적 부대 운용, 편제 화기 사격, 각종 무기 조작, 구급법 등 실전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주야간 훈련을 시행함. 특히, 양국 공군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전술 비행 및 방공군 훈련을 시행함. 양국 훈련부대는 유사시 우크라이나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 우크라

이나의 병력 운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CSTO 연례 연합훈련: 2023년 9월, 벨라루스 브레스트 훈련장에서 CSTO 회원국 연합훈련 ‘전우애(Боевое братство)-2023’을 실시함. 훈련 규모는 병력 5천 명, 장비 500대임. 훈련은 테러 조직 탐색 및 격멸 상황을 연출하여 단계별로 지역을 옮기면서 실시했으며, 수색 훈련, 신속 기동 훈련, 물자 및 기술 보장훈련, 화생방 방호 훈련 등을 실시함.
 - ☞ CSTO 훈련은 러시아 주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급과 핵 방호 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 러-중 연합훈련: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연합훈련과 3국 연합훈련을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함. 2월에는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국이 남아공 인근 인도양 해역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시행함. 3월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이 아라비아해 오만 만에서 3국 연합 해상 훈련을 시행함. 7월에는 동해 일대에서 러-중 해군부대가 연합참모부를 편성하여 ‘북부·협동-2023’ 훈련을 진행함. 훈련 규모는 양국 전투 함정과 지원함 10척 이상, 해군 항공기 30대이며, 적 잠수함 수색 및 격멸, 해상 및 항공에서 함정 호송, 임의 지역에서 함정 보호, 해상 및 공중공간에서 항로 보호 등을 연습함.
- 러-중 양국은 2023년 6월 6일,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연합 공중정찰을 실시함. 이때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침입 후 빠져나갔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도”라고 밝힘. 양국 연합 공중정찰은 2019년부터 정례화하여 총 7차에 걸쳐 시행함.
- 러-인 연합훈련: 러시아와 인도는 11월 21일~23일 벵골만 일대에서 해군 연합훈련을 통하여 연합 기동, 방공 훈련, 통신 훈련 등을 실시함.

2. 국제 행사 주최

- 국제 군인경기: 러시아군은 2015년부터 매년 국제 군인경기를 개최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2023년은 실시하지 않음.
- 국제 군사기술 포럼: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83개국이 참가했으며, 주요 무기 전시, 무기 발전 방향 토의, 각종 회의를 진행함. 러시아는 행사 기간 중 4천억 루블 상당의 판매계약을 체결함.
- 모스크바 안보 콘퍼런스: 8월 15일에 개최, 76개국 800개 대표단이 참가함. 러시아는 안보 콘퍼런스를 통하여 나토의 공격적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면서 자국 특별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우호적인 국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함. 특히,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서방이 훈련한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서방의 무기가 전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군의 전문성과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함.

3. 대외 군사협력

- 러시아는 CSTO와 SCO의 통합적 협력을 추진함. 또한, 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아시아에서는 대중국 및 대인도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했음.
- CIS 국가들과 협력 강화
 -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 11월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CSTO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 상호 안보 및 경제협력을

논의함. 회원국인 러,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정상이 참석함. 회의는 축소 및 확대회의 형태로 진행함.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 신속 대응, 홍보, 지휘부 운영, 신속대응군과 평화유지군 운용에 관한 내용을 결의함. 푸틴은 외교, 국방 분야에서 관계 강화, 상호존중 및 호혜, 지역방어 기구로서 책임 있는 임무 수행 능력 강화 등을 주장함. 동시에 SCO와 협력 강화, 신속대응군과 평화유지군의 전투 준비, 군사 기술협력 확대 등을 강조함.

●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의 개최

- 4월 28일 뉴델리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의가 개최됨. 러시아, 중국, 인도 등 국방부 장관들은 자국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역내 군사 위협 및 제거 방안을 논의함.
- 러시아의 쇼이구 장관은 세계정세가 신 다극화 세계 추세로 가고 있으나 미국이 이에 대항하고 있으며, 군비통제 의무 불이행, 생물무기 개발, 평등한 안보 무시, 권력 독점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 약화 등을 기도하고 있다며 비판함. 특히 나토 확대를 세계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SCO 역할이 중요하며 정보 교환, 군사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 러시아는 미국 및 서방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인도 등 강대국과 협력을 통해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동시에 나토 확대에 대응하여 SCO와 BRICS 확대를 추진함.

● 북한과 군사협력

- 러시아는 북한과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극동 우주기지(보스토치니)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러시아와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북한 김정은은 이미 2022년 6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무기 생산공정의 현대화 목표를 제시하고 2022년 11월 방사포탄 생산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를 통해 대구경 방사포탄 계열 생산을 위한 능력 조성을 강조한 바 있음. 즉, 이미 2022년부터 러시아 지원을 위해 대량생산을 해 온 것으로 보임.
- 러시아가 지원할 수 있는 군사 기술 분야는 군사 정찰 위성, 전술 핵탄두를 운반하는 탄도 및 순항미사일, 대공미사일, 해공군 현대화 지원 등임.
 - ☞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정치, 군사전략, 군사기술 면에서 본격적 협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는 장차 제재 범위 내에서 북한과 협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공개적 및 비공개적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양국의 군사 기술협력은 현재 쌍방의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

V. 2024년 군사정책 전망

1.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

● 양국의 전쟁 지속능력 관련

- 전쟁 지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병력, 무기 및 물자, 방위 산업 능력임.
- 투입 병력에 있어, 러시아는 초기에 약 15만 명을 투입하여 전면

동원을 시행한 우크라이나의 백만 군대에 비해 전적으로 열세였으나, 이후 30만 명을 부분 동원(24.4만 명 참전), 지속해서 계약 병과 의용군을 모집하여 2023년 말 기준 61.7만 명이 참전 중임.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부족으로 현재 10차 동원 중이나 병역 부적합자까지 동원하는 추세이며, 18세에서 60세까지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고, 최근에는 동원 연령 상한선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함(장교는 70세).⁷⁾ 현재 참전 중인 사병 평균연령은 러시아군 35세, 우크라이나군 43세임.⁸⁾

- 무기 및 물자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서방의 대규모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자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서방 54개국이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5개국만 실천했으며, 최근에는 지원 강도가 약화하고 있음.⁹⁾
- 방위산업 능력은 러시아가 월등하게 우세함. 러시아 방산업체는 전쟁 이후 24시간 3교대 가동을 하면서 무기와 장비 생산량을 이전에 비해 5배에서 17배까지 증산하고 있음.

※ 전쟁 지속능력은 러시아가 유리하며, 이에 따라 여유 있는 작전 수행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단기간에 작전 성과를 내야 할 처지임.

7) “До 65 лет хотят увеличить возраст мобилизуемых рядовых на Украине,” <https://overclockers.ru/blog/Zelikman/show/112847/do-65-let-hotyat-uvlichit-voznast-mobilizuemyh-ryadovyh-na-ukraine> (검색일: 2024.1.9).

8) “В Минобороны заявили, что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бойцов - 35 лет,” <https://dzen.ru/a/ZYwuSfpuU1aVXuBV>;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украинского солдата старше 40 лет, поскольку страна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кадровыми проблемами,” https://translated.turbopages.org/proxy_u/en-ru.ru.2993a67a-659ca05d-1d91509b-74722d776562/https/www.businessinsider.com/average-age-ukrainian-soldier-43-amid-personnel-problems-2023-11 (검색일: 2024.1.9).

9) “Расши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коллегии Минобороны,”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73035> (검색일: 2023.12.19).

● 러시아의 방어진지 강화 및 전술 변경

-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비하여 2023년 초부터 2,000km 접촉선에 다중 방어진지를 편성함.
- 지뢰지대 7,000km(중심 600m), 대전차 장애물(용치) 150만 개, 대전차 방벽 12,000개, 소대 거점 3,000개, 참호 45,000개, 화기진지 15만 개 설치

● 우크라이나의 반격 성공 가능성

- 우크라이나는 전술적 운용을 떠나 병력 및 무기 등 기본 국력이 러시아보다 상대적으로 허약함. 지난 6개월간 반격 작전을 수행했으나 러시아의 강력한 방어편성으로 성과가 없음. 또한, 전쟁 수행 능력 약화로 성공 가능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대외적 측면에서 중동 하마스 전쟁과 북한 도발로 인하여 최대 지원국인 미국의 국력과 관심 분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큼.
- 러시아 푸틴은 3월 선거 이전에 승리 분위기 고양을 위해 하르키우, 도네츠크, 오데사 등지를 공격하여 점령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 있음.
※ 우크라이나의 대내외적 여건 고려 시 반격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음.

2. 러시아의 2024년 군사정책 전망

● 특별군사작전 계속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싸울 태세임.
- 러시아는 평화 협상을 강요하며 점진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

상되며, 만일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점령 지역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나토 위협 대비 군사력 증강

- 러시아는 나토 및 서방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전략핵무기로 역제를 달성한 상태에서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지속할 것임.
- 현재 핵무기 현대화는 95%를 달성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고려하여 드론, 로봇, 레이저, 인공지능 활용 무기의 개발을 지속할 것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구소련 국가의 이탈 및 나토 가입을 절대 반대할 것임.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 개입 방지를 위해 핵 위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한 대외 군사협력 강화

- 정치 분야에서 러시아는 CIS, CSTO를 기반으로 SCO, 확대된 BRICS와 연계 및 통합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군사 분야에서는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국가 등과 국제 군사 기술 포럼을 비롯한 대외 군사협력 및 군사 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특히 반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대러시아 고립 시도 및 제재에 대응할 것임.

● 대북한 군사협력 강화

- 러시아는 적절한 선에서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면서 특별군사작전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대북한 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세력균형을 달성하면서 한미일 블록화에 대응할 것임.
-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력 및 안보 여건을 향상하여 미국이 유럽(우크라이나), 중동, 동북아 등 3개 전선에서 싸우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국력 분산 및 대우크라이나 지원 역량 약화를 유도할 것임.

● 국민 단합 및 안보 의식 고취

- 러시아는 현 상황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시기로 인식하고, 이른바 서방의 “러시아 약화 또는 분할기도”에 맞서 러시아의 국익, 자유, 안보,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이른바 ‘특수군사작전’을 위해 “Z 운동”, “우리는 함께” 등 거국적 국민 자원봉사 조직을 강화, 운용할 것으로 보임. 참전 군인을 위한 위문품, 위문편지, 진지 구축용 목재 지원, 피복 지원, 식품 및 식당 지원 등 제2차대전 시 후방근무지원과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러시아 특유의 사회동원 및 애국 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3월 대통령 선거 전후 병력 및 무기 면에서 우크라이나보다 월등한 이점을 활용하여 대공세를 전개하여 승리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음.



퇴행인가? 정중동인가?

변현섭 (계명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I 2023년 분야별 한-러 관계 현황과 평가

1. 총론

-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및 러시아 수출 허가 품목 확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날 선 공방과 갈등 노정
-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상승세를 보이던 대러 수출이 수출 허가 품목 확대 발표 이후 하락 전환, 주 수입 품목인 원유, 나프타의 수입 중단 등으로 교역은 급감(-28.7%)
- 문화인적교류는 직항로 운항의 중단 지속에도 러시아 공관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행사가 전년에 비해 크게 활발해져 한-러 관계의 건설적 협력 분위기 조성에 가교 역할

2. 외교·안보 분야

1.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고위급 회담 부재 등 외교당국 간 대화도 사실상 단절

* 정상회담은 물론, 매년 개최해 오던 한-러 외교 차관 전략대화, 한-러 경제장관회의 등의 미개최, 한-러 고위급 안보 회의, 한-러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회의 등도 불발

- 주러시아대사를 지낸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이임 인사차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교부 1차관과 안드레이 루텐코 아태 담당 차관을 각각 면담한 것이 사실상 유일한 고위급 공식 대화(6.8)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회의(7.13), 인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한-러 관계, 러-북 관계 등 언급

- 9월에 러시아 루텐코 외교 차관이 답방 차원에서 방한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결과를 설명해 주기로 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방한 무산

2. 한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외교 전략을 발표했으나 한국은 대러 정책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으며,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등 상호 외면

- 한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대러 외교 전략으로 ‘국제규범에 기반하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로 명시(6.7)

- 3장 3절 ‘인류 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전략을 명시했으나 일본, 중국과 달리 관계 개선보다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과 제재 동참을 강조

* 외교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2022.12.28.)에서 인태전략의 지역적 범위에 북태평양(미국, 일본, 중국, 중국, 캐나다, 몽골),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구체적 국가 미명시), 유럽·중남미(영국 및 EU,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까지 사실상 세계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한다고 명시하면서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어느 지역에도 넣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3장 4절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서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고 하면서 지역별 분류에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것은 한 단계 나아간 것임.

● 러시아는 대외정책개념을 발표했으나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3.31).

- 과거의 대외정책개념에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을 언급하며 남북한에 대한 정책 노선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한반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음.

3.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러-북 군사협력 이슈에 대해 한-러 간 비방을 통한 상호 긴장 관계 초래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4.19)

-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언급

- 이에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전달도 러시아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

런 행동을 하면 한반도에 대한 우리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

한-러 관계 어떻게 악화됐나

1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언급 4월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등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러시아 경고 4월20일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전달도 러시아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한반도에 대한 우리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같은 날 추한 러시아대사관 성명 “그런 조치(한국의 무기 공급)는 두 나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건설적으로 발전돼온 러-한 관계를 파괴할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라는 맥락의 양자 간 상호작용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한국 무기 공급 가능 정부 부인 → 안보·인도·재건 분야 23억달러 지원 계획 발표

4 북-러 군사적 접근 9월12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

“필요하다면 북한과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북은 이웃 국가로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자료: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8275.html

☉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 비판

- 윤석열 대통령은 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0)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

*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무기·장비류는 △상호 호환이 가능한 122mm 방사포탄·152mm 곡사포탄 등과 T계열 전차 포탄 △방사포·야포·소총·기관총·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대전차미사일 등으로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러시아에 지원됐을 가능성도 있음(신원식 국방부 장관 인터뷰, 12.30)

※ 11월 20일 윤 대통령은 영국 국민 방문을 앞두고 영국 텔레그래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우리는 러-북 간 불법 무기 거래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힘.



이재윤 기자 20231102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4033900504?input=1195m>

- 러시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정면 비판
 - 러시아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중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발언을 주목한다며 이는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위성 발사(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에 성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으로 군사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는 서방의 지속적인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라고 일축



원형민기자 20231014

자료: <https://www.yna.co.kr/view/GYH20231102000500044>

4. 한국 정부의 대러 수출 허가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도 한-러 간 상호 공방 및 갈등 표출

● 한국 산업부는 2월에 이어 12월에 추가로 대러 수출 허가 품목 확대 발표(12.26)

- 러시아 제재에 대한 협력을 위해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361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
- 추가 품목에는 건설 중장비와 이차전지, 공작 기계, 항공기 부품 등이 포함됐으며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기존 798개에서 총 1,159개로 확대
- 한편,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인 2023년 2월 24일 국제사회의 수출통제와 관련된 공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큰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하여 기존 상황허가 품목 57개를 포함하여 총 798개로 확대한 바 있음.

*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 러시아는 비대칭적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한국에 보복 경고

- 러시아 외교부는 한국의 수출제한 확대에 대해 “미국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인 조치다”라며 러시아의 대응 조치는 “반드시 대칭적이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이에 놀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 (12.27)
- 2월에도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이 이끄는 집단적 반러시아 노선을 함께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지시로 취해진 해당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는 종합적인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2.27).

주요 상황허가 품목		
개정 전 57개	'23.2.24 개정 후 798개 (741개 추가)	'23.12.26 개정 후 1,159개 (361개 추가)
전자, 조선 등 57개	(신규) 산업기계 (공작 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 US\$ 초과),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 스테인리스 등 일부 철강 제품,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일부 전자부품, 양자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741개	(신규) 철 구조물, 항공기 부품, 공작 기계 건설 중장비, 운반 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361개

자료: 산업부 보도자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2.24 및 산업부 보도자료,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12.26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경제·통상 분야

1. 한-러 양국 정부 간 회의 미개최 및 러시아 주최 대규모 국제 행사에 불참 등 경제협력 논의 자체 부재

- 한-러 정부 간 대표적인 경제협력 채널인 한-러 경제장관회의, 제26차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6.14~17), 블라디보스토크 제8차 동방경제포럼(9.10~13) 등에 정부 대표단 미파견

* 한국은 고위급 정부 인사가 참석했던 이전과 달리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실무자급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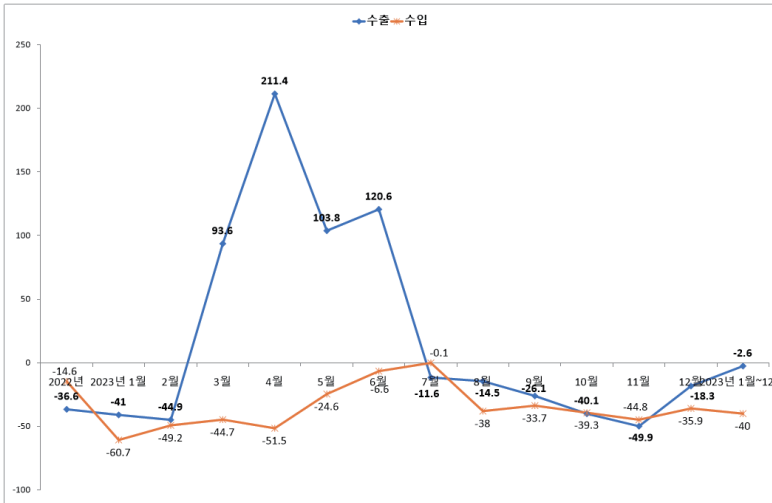
2. 기저효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대러 수출은 산업부의 수출제한 품목 확대 이후 하락 전환

- 2023년 1~12월 한국의 대러 수출은 -2.6% 감소한 61.6억 달러, 수입은 -40.0% 감소한 88.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7.3억 달러

* 2022년 1~12월 한국의 대러 수출은 36.6% 감소한 63.3억 달러, 수입은 14.7% 감소한 148.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4.8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

[한-러 수출입 증감률 추이]

(단위:%)



자료: 무역협회 자료 활용 저자 작성

● 기저효과로 2 3월~6월 100% 이상 증가하던 대러 수출은 산업부의 대러 수출 허가 품목 확대 조치가 발효(4.28)된 여파로 7월부터 하락 전환되어 연간 누적으로도 마이너스 기록

- 러시아 현지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여파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 급감이 전체 수출 하락을 견인
- 반면,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생산설비 수요 증가로 기계류, 서방 위생용품 대상 35%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로 화장품, 비제재품목인 의료기기는 수출 증가
- 특히, 프레스금형(322.3%), 금속 절삭가공 기계(133.2%), 운반 하역기계(80.0%), 윤활유(31.2%) 등 군수물자 지원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수출이 많이 증가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2년 한국의 대러 자동차 유탄유 수출이 2억 2,900만 달러로 116.7% 급증했다고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유탄유가 장갑차나 탱크 등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제기(7.9)

[한국의 대러 2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품목명 (MTI 4단위)	2022년		2023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6,328	-36.6	6,161	-2.6
1	승용차	883	-65.4	641	-27.3
2	철구조물	602	23.5	587	-2.5
3	건설중장비	403	-5.2	439	8.8
4	화장품	287	-1.1	408	42.3
5	자동차부품	517	-65.7	358	-30.8
6	유탄유	229	116.7	301	31.2
7	합성수지	440	-7.7	300	-31.8
8	운반하역기계	119	28.6	214	80.0
9	기타플라스틱제품	153	-12.1	155	1.3
10	의료용기기	130	28.2	151	16.8
11	타이어	83	-25.0	106	27.7
12	금속절삭가공기계	45	17.3	105	133.2
13	의료용전자기기	84	5.5	101	20.2
14	화물자동차	74	2.7	85	14.7
15	X선및방사선기기	75	34.3	82	8.9
16	축전지	59	-1.5	79	34.8
17	문구	53	8.3	65	22.1
18	가열난방기	46	-14.9	63	38.2
19	펌프	42	-40.8	62	47.9
20	프레스금형	15	-23.5	62	322.3

자료: 무역협회

●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은 에너지 및 석유제품(원유, 천연가스, 유·무연탄, 나프타), 해산물(게, 명태, 대구 등)의 감소로 총수입액이

크게 하락(-40.0%)

● 러시아산 원유 및 나프타 수입*이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전체 수입액이 매우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줄어들.

*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5.53%에 달했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쟁 이후 1%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2년 전체로도 2.0%에 그침.

* 2021년 한국의 나프타 수입은 총 2,909.8만 톤 중 러시아산 물량이 23.9%(696.3만 톤)로 1위를 차지했으나, 2022년 한국의 나프타 수입 물량은 2,651.2만 톤 중 러시아산은 191.5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5% 감소 및 비중도 7.2%에 그침.

[한국의 대러 2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품목명 (MTI 4단위)	2022년		2023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14,817	-14.6	8,893	-40.0
1	유연탄	5,044	128.9	3,972	-21.3
2	천연가스	1,481	-13.7	1,059	-28.5
3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408	35.0	679	66.6
4	계	472	4.2	458	-2.9
5	무연탄	643	77.3	456	-29.1
6	우리늄	184	-26.7	342	85.6
7	합금철	190	-20.5	163	-14.0
8	고철	173	-35.3	138	-19.9
9	명태	344	38.9	138	-59.8
10	어란 및 어백	116	22.7	133	15.1
11	기타목재류	83	260.2	114	36.7
12	선철	64	43.5	110	71.8
13	기타어류	161	18.9	93	-42.6
14	제재목	127	-24.1	92	-28.0
15	어육	77	7.2	85	10.8
16	건조수산물	69	-5.1	83	20.3
17	기타정밀화학원료	139	51.6	80	-42.4
18	기타금속광물	47	22.0	59	26.1

순번	품목명 (MTI 4단위)	2022년		2023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19	대구	114	25.7	52	-54.6
20	펄프	106	-13.1	49	-53.6

자료: 무역협회

3.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한국의 대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 조선 등 분야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제재와 무관한 식품 등 소비재와 물류 수요는 증가 등 희비 교차

- (자동차) 현대차는 2022년 3월부터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 공장* 가동 중단 이후 결국 2년 내 재매수(Buy-back) 조건으로 매각 결정(12.19)

- 현지 투자업체인 아트 파인낸스(Art-Finance)에 매각, 최종 매각 조건은 비공개

* 이 공장은 약 5,400억 원을 투자해 2010년 완공한 연간 20만 대 생산 규모 공장이며 2020년 현대차가 500억 원에 인수한 GM(제너럴모터스)의 공장 포함 장부가액만 4,1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1만 루블(14만 원)에 매각.

- (전자) 삼성전자 TV 생산법인과 LG전자의 가전 생산법인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

- (조선)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계약한 LNG(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15척 중 10척에 대한 선박 블록과 장비 제작 중단 (12.17)

- 다만, 계약은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취소 가능성도 검토

*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은 '20년 10월 수주한 쇠빙 LNG선 3척에 대해 러시아 측에서 중도금 내지 못해 계약 해지

● (식품) 러시아 내수 위주의 상품인 오리온 초코파이, 팔도의 용기형 라면 도시락 등은 판매 증가 및 시장 점유율 확대 등 호조세

* 오리온 러시아법인의 2023년 상반기 매출액은 26.6% 증가한 998억 원, 영업이익은 37.6% 증가한 160억 원 달성, 팔도의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 라면시장 점유율 60% 상회, 한편, 오리온과 팔도의 2022년 매출액은 2021년 대비 각각 79.4%, 2.9% 성장한 2,098억, 3,000억 원 기록

● (해운물류) 한-러 간 직항로가 중단된 가운데 속초-블라디보스토크 카페리가 10년 만에 운항 재개(11.20)

- JS해운의 1만 6,000톤급 오리엔탈펄 6호로 주 2차례 운행(약 21시간 소요)하며 여객 운송(700명) 외에 화물(150TEU), 차량 350대 운송 가능

- 2022년 7월 동해-블라디보스토크 간 국제여객선 이스턴드림호 운항 재개 이후에도 승객 및 화물 수요 급증으로 해운물류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추가 운항

* 속초시장은 취항식(11.20)에서 “(한-러 관계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믿으며, 국가 간 관계와 안보 문제는 중앙 정부의 임무이지만, 지방정부로서 우리는 문화와 경제교류, 관광을 촉진할 수 있으며, 속초는 러시아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도시인 만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

4. 문화·인적교류 분야

1.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은 지속되고 있으나 한-러 양국 간 무비자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문화·인적 교류도 2022년에 비해 증가

* 2022년 3월부터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여객 운항 중단 중

** 다만, 러시아인의 한국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K-ETA) 필요(17세 이하 및 65세 이상 러시아 국민 제외)

● 러시아 공관 주도의 국제제재와 상관없는 문화 교류 및 협력 지속을 통해 한-러 양국 발전의 기반 유지

-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한-러 관계 동향 부분에 게시된 보도자료가 2022년 3건에서 2023년 16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2021년 15건)을 상회

* 대표적인 행사로 제30회 한-러 친선 한국문화큰잔치 개최(6.12, 한국문화원 및 모스크바 제1세종학당 공동 개최), 제5회 박경리 문학제(10.20, 한러대화 주최) 등

-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 참여한 문화 관련 행사는 2023년 11건으로* 2022년 7건, 2021년 코로나 19 시기 8건보다 많음

*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토크지사와 공동으로 2023 K-Pop Festival 결선 대회(10.7), 연해주태권도협회,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등과 한국 문화 마스터 클래스(10.1-6) 등을 실시

-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공연전시 행사도 2023년 20건으로* 2022년 11건의 2배 수준으로 활발히 진행

* 대표적으로 한국 측의 문화재 복원 지원 사업으로 러시아 크렘린박물관에 소장된 고종의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선물을 127년 만에 첫 공개: 크렘린박물관의 '한국과 무기고, 마지막 황제 대관식 선물의 역사' 특별전(2.10~4.19)에서 장승업의 만년작 '고사 인물도', 흑칠 나전 이충봉, 백동향로 등 5점

● 러시아 관련 대학 연구소 및 협회 주최 행사, 한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 상호 방문 등 민간 차원의 학술 및 문화 교류가 전쟁 발발한 2022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러 관계 악화 방지와 건설적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

-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제13회 전국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 대회(5.19), 유라시아정책연구원-MGIMO 국제학술회의(5.22),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과학원 중국 및 현대아시아연구소(구. 극동문제연구소) 간 정례회의(9.26), 한러교류협회의 러

시아 현대문인 초청 간담회(10.13), 유라시아정책연구원 및 유라시아21의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 국제학술회의(10.16~19, 10.30~11.2), 한러인문교류포럼* 초청 방러(12.1), 러한소사이어티** 인사 방한(12.7~8), 유라시아21 및 한러비즈니스협회의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매월 말) 등

* 한국국제교류재단(KF) 모스크바 사무소의 협조하에 개최된 제10차 한러 인문교류포럼이 한-러 인문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러시아 국립문학사 박물관에서 개최

** Russo-Korea Society: 러시아 내 친한 인사를 중심으로 각종 한국 관련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우리 정부 주도로 주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인 러한소사이어티 설립을 추진, 2014년 7월 러시아 법무부 비영리민간법인으로 등록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는 1층에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소개, 한국 관련 학술 발표와 특별 강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인 '한국 코너' 마련(11.2)

● 전국 러시아어 교사·교수 협의회 창립(6.10)을 통해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새로운 소통 플랫폼 구축

- 국내 러시아학 및 러시아어·문화 관련 교육 정책을 연구·제안하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목적

● 2023년 상반기 동해~러시아 해운 항로 여객·화물 운송 증가

-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의 2023년 상반기 이용객이 1.5만여 명으로 지난해 비교 176배가 증가
- 화물 물동량도 2023년 상반기 1.9만여 톤으로 약 16배 증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해항이 한-러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

II. 2024년 한-러 관계 전망

1.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러 관계도 전쟁 종식 여부와 동조화

- 전쟁의 향방은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의 결정에 달렸다는 전문가 분석 우세
 - 최대 지원국인 미국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 지연, 헝가리 등 유럽 국가 일부의 지원 반대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서방의 지원 의지 약화
 - 특히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등 변수가 전쟁 종식의 분기점으로 예상
-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제약으로 한-러 관계의 급격한 개선은 난망
 - 국제지정학적 차원의 주요 강대국 간 대립 및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개별적 의지와 노력만으로 관계 개선은 불가능 상황
 - 다만, 대북 억지 및 북러 간 지나친 밀착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의 균전한 공조 하에 대러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외교 모색의 필요성 증대
- 한-러 관계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 속에 전쟁 이후 회복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푸틴 대통령은 이도훈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러 관계는 한국에 달려 있고 러시아는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에 공을 돌림

(12.04)

- * 푸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국 관계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발전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언급
- * 한편,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냄(8.15).

- 우리 정부도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 중

- * 주러 한국 대사(장호진)의 외교부 차관 임명, 외교부 차관의 주러 한국 대사(이도훈)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전 러시아에 사전 통보하는 것 등을 러시아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
- * 한편, 타스통신에 따르면, 콜리크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의 날(6.10)을 맞이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하면서 축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건설적인 양국 협력을 지속하려는 한국 지도부의 긍정적인 태도에 주목한다고 밝힘(6.9).

2. 대러 제재와 연동된 교역도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

- 수출의 경우 SWIFT 배제에 따른 송금 애로, 산업부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등 영향 지속
 - 특히,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매각,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 국내 조선 3사와 즈베즈다 조선소 간의 협력 중단 등 여파로 자동차·부품, 반도체·가전·컴퓨터 등 IT 품목과 조선 기자재 등 수출 타격 불가피
- 수입 비중이 높은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의 수입 중단으로 수입 감소 지속 전망
 - 러시아산 LNG의 경우 장기계약(2008~2028년)으로 연간 150만

톤 수입 중이며 가스공사도 지속 구매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스팟 물량은 감소 전망

* 2023년 4월 산업부가 발표한 '2023~2036년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LNG 수입국 및 공급선의 다변화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최소화할 가능성 시사

-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지적 분쟁과 일부 생산설비 차질 등의 발생으로 인한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
- 특히, 정치·외교적 불안으로 인해 공급 차질의 우려가 큰 국가에 서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기술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및 직항 항공편 재개 여부에 따라 인적교류도 영향 불가피하나 OTT,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 직항로 재개 없이는 인적교류의 급격한 확대 난망

- 관광객 없이 비즈니스, 학술 및 문화 행사 등 제한적 교류만 가능하겠지만 2023년에 이어 민간 교류 행사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넷플릭스·디즈니+ 등 서방의 메이저가 철수한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의 콘텐츠 부족, EA Sports, CD Projekt(폴란드 게임 개발 및 배급사), MS 등 글로벌 게임사의 대리시아 판매 중단 또는 신작 게임 출시 보류로 한국산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시장 수요 증가

III. 시사점 및 한-러 협력 방향

1. (외교·안보 관계) 최근의 지정학적 대결이 북-러 간 밀착, 동북아에서 한미일-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의 복원 등 한반도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러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한미동맹과 가치 외교 차원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긴 했지만,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외교도 필요함.

●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중재자’, 대북 영향력 행사의 중요한 ‘통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 한반도 평화 구도 정착의 ‘촉진자’, 동북아 세력균형의 한 ‘축’으로서 가용가치가 높은 국가

2. (경제·통상 관계)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 협력이 필요

● 한국 정부는 서방의 대러 제재 동참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기업의 자율성을 너무 강하게 제약하는 것을 지양하고 유연한 제재 적용과 해석을 통해 수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한-러 간 에너지 외교를 통해 경색된 관계 회복의 계기로 활용 필요
- 현재 한국은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LNG를 2008~2028년까지 20년간 연 150만 톤을 수입하는 계약의 만료 시점이 조만간 도래하고 있어 협상을 협력의 지렛대로 활용

* 일본은 제재 속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할린2, 북극(Artic) LNG-2 등 러시아에

너지 프로젝트에 지속 참여 결정 등 실용주의에 기반한 외교정책 추진

* 2022년 기준 현물 시장에서 46만 톤을 포함하여 연간 약 196만 톤을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한국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4.2%를 차지

- 러시아도 2023년 3월 말에 발표한 대외정책개념에서 비우호 국가의 비즈니스 업계와 실용주의적 협력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 러시아의 대외정책개념 4장에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우선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국제 경제협력 및 국제 개발 지원 분야에서 관련 내용 서술

3. (문화·인적교류 관계) 기존 협력 플랫폼을 활용 및 제재와 관련 없거나 제재 이후 상황을 대비한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와 협력 네트워크의 유지 필요

- 현재 한-러 기술 분야의 협력 플랫폼인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가 모스크바에서 운영 중이고 2019년 인천에 설립된 한-러 혁신센터도 정상 운영 중으로, 러시아의 잠재적인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학술적 연구나 공동연구 또는 관련 협의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 러시아와 관계 복구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민간 차원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기술 교류가 가능하거나 상호 필요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
- 민간 차원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1990년 수교 이후, 그리고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유지해 온 한국의 중요한 대외정책의 파트너이자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상황 변화에 중요

한 이해 당사국인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훼손하거나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세계로: 국가주의와 신지역주의에 대한 변론

이지연 (한국의국어대학교)

I. 전쟁

- 2022년 2월 24일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까지 2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러시아 사회문화의 크고 작은 변화들에 반영되고 있음.
- 2022년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많은 외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러시아 기업들이 그것을 인수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름만 바꾸어 영업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정착된 가운데 자연스럽게 해외 브랜드의 자국화, 현지화로 이어짐.
- 이는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수입 상영이 불가능한 해외 영화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OTT 서비스를 대체하는 러시아 국내

콘텐츠와 플랫폼이 활성화되었음.

-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가두시위와 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강경 대응은 2022년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문화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통제가 강화되었고 이에 대해 반발하고 우려하는 러시아 지식인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으며 러시아를 떠나 해외에 정착하는 이들이 계속 생겨났음. 러시아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다 보면 과거에는 드물었던 해외 이민 수속 대행업체의 광고가 뜨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 그러나 러시아 전체로 보았을 때는 전쟁과 관련해 여전히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는 애국주의 물결이 오히려 강화되었고,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러시아 영토 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문화 행사의 활성화와 성공을 가져왔음.
- 언론탄압과 검열이 팽배한 현재 러시아의 새로운 전체주의적 억압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운데 러시아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내하고 있다는 식의 서구 언론의 설명은 러시아의 현실과 러시아인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다분히 기계적인 설명으로 보임.
-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전 세계적인 고립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유럽을 드나들었던 러시아 대도시에 거주하는 교육 수준 높은 지식인이 아닌, 러시아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러시아를 떠날 수 없는 다수 국민의 경우 현재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판하기 보다 오히려 서구를 비판하고 조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러시아의 일부 지식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것은 당연함.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다분히 국수주의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해외에도 나갈 수 없는 국민을 위해 많은 축제를 만들거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소위 ‘국뽕’ 전시와 공연을 기획하는 것은 당연해 보임.

- 2023년 러시아 사회에서는 전쟁으로 촉발된 비극에 대한 전반적인 우울과 애도의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문화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러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축소하는 검열과 규제 가운데에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러시아 국민의 시선을 통해 판단한다면 동의하기 어려움.

II. 검열

- 2023년 러시아 문화계 전반에서 국가 주도 현상이 눈에 띄었음. 특히 러시아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의 기관장이 교체되었으며 때로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음.
 -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대표였던 블라디미르 우린(В. Урин)이 전격 경질되고 발레리 게르기예프(В. Гергиев)가 신임 대표로 취임함. 표면적으로는 연말에 공연되는 볼쇼이 극장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표를 구하기 위해 밤새 사람들이 줄을 서는 과정에서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직 대표가 경질되고 게르기에프가 소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대표 교체는 이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으로 보임. 블라디미르 우린 시기 볼쇼이 극장은 외국 연주자들 없는 공연이 안 될 정도로 해외 솔리스트들의 출연이 많았으나 전쟁 이후 이들을 공수할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돈을 주고 배역을 거래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음.

- 2022년 2월 밀라노 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라고 게르기에프에게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라스칼라 극장과의 협업을 중단하겠다고 알림. 이에 라스칼라를 비롯해 뉴욕 카네기 홀, 로테르담 필하모니, 에딘버러 공연제 등이 모두 러시아 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을 거부한 게르기에프와 예정되어 있던 작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마린스키 극장의 유럽 음악제 참가도 모두 취소되었음.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마린스키 극장이 입은 손실은 120억 루블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일찍이 2022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마린스키 극장과 볼쇼이 극장 모두를 함께 이끄는 지도부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음. 이는 과거 러시아 역사에 그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18세기 예카테리나 2세 시기 황실극장 전체를 통솔하는 지도부가 만들어져 1917년까지 존재했고 이때 황실 총리가 극장 대표를 겸하게 한 바 있음. 즉, 게르기에프가 마린스키와 볼쇼이 공동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 문화계에서 그가 차지하게 된 엄청난 위상을 증명하는 것임. 게르기에프는 이번만 아니라 부활절 행사 총감독도 맡았으며 러시아 극장인 연합회 공동대표로 음악 부문을 총괄하게 되었음.
- 게르기에프와 함께 극장인 연합회의 새 대표가 된 블라디미르 마시코프(B. Машиков)의 경우도 의외의 결정이었음. 거의 30년 가

카이 대표직을 수행한 알렉산드르 칼랴긴(А. Калягин)은 극장인 연합회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총회를 소집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남. 마시코프의 대표 선출로 러시아 극장은 스타니슬랍스키적이고 타바코프적인 고전적 연극, 즉, 현실성이나 실험성보다는 러시아 전통에 충실한 새로운 연극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과 같음.

- 러시아적인 것을 강조하는 연극계의 새로운 경향에 힘입어 심지어 블라디카프카스에 바흐탄고프 하우스가 설립되기도 함.
-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극장들의 대표들 또한 교체되었음. 민족극장 감독 마리아 레바키나(М. Ревякина)는 그간 거둔 놀라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질되었음. 표면적으로는 자진 사퇴이나, 실제로는 과거 문화계 인사들의 전쟁 반대성명서에 그녀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를 대신해 나탈리야 마주르(Н. Мазур)가 민족극장의 새 대표직을 수행하게 되었음.
- 또한, 레바키나는 러시아의 가장 권위 있는 연극제이자 시상식으로 서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연극의 산실이었던 <황금가면>의 총감독을 겸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위기를 맞이함. 형식적으로 레바키나는 <황금가면>의 조직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극장인 연합회의 새 대표 마시코프가 전위적이고 반정부적인 연극인들의 수상이 두드러졌던 기존 <황금가면> 연극제와의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기존 조직에 대한 국가 지원은 중단됐고, 기존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 블라디미르 미샤린(В. Мишарин)이 새 대표로 추대되었음. 이제 출판작은 극장인 연합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부문별 경쟁작 수도 5편 이내로 고정되었음. 현재 이처럼 러시아의 유서 깊은 연극상 <황금가면>의 집행부 및 경쟁 방식이 대거 바뀌는 데 대해 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는 2023년

러시아 문화계에 대한 정부 검열의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러시아 연극인들은 오랜 전통의 <황금가면>이 실질적으로 해체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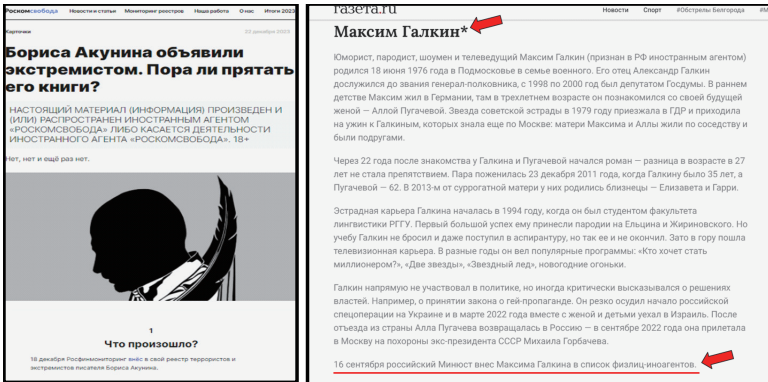
- 모스크바 바흐탄고프 극장에는 예브게니 술리에프(Е. Шульев)가, 러시아군인 극장에는 알렉산드르 라자레프(А. Лазарев)가 새 대표로 선임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극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긴 하지만 사실 창작보다는 행정에 집중해 왔던 터라 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일기도 했음.
- 그 외에도 소브레멘니크 극장의 빅토르 리자코프(В. Рыжаков), 베테테(БДТ)의 안드레이 모구치(А. Могучий), 보로네시 체임버 극장의 미하일 비치코프(М. Бычков) 등의 역량 있는 대표 감독들이 사퇴했음.
- 푸시킨 박물관에서는 마리나 로샤크(М. Лошак)가 10년의 계약을 종료하고 물러나면서 슈세프 건축박물관 부관장이었던 엘리자베타 리하초바(Е. Лихачева)를 새 관장으로 맞이했음. 또한 폴리테크니크 박물관은 오랫동안 국책 연구기관인 쿠르차토프 연구소(과거 핵에너지 연구소)를 책임졌던 드미트리 코자노프(Д. Кожанов)가, 루스키무제이는 문화부 차관이었던 행정가 알라 마닐로바(А. Манилова)가 각각 새 대표로 부임했음.
- 무엇보다 논쟁이 되었던 것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지휘관의 딸이자 정치학을 전공한 관료 출신 83년생 엘레나 프로니체바(Е. Проничева)가 트레티야코프 국립미술관의 새 관장으로 부임한 것임.
- 2015년부터 미술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전임 관장 젤피라 트레굴로바(З. Трегулова)가 소장품인 안드레이 루블료프(А. Рублев)의 이콘 <삼위일체>를 러시아정교회에 양도하는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과정 끝에 내려진 결정인데다가, 신입관장이 사실 므기모(МГИМО)를 졸업하고 러시아 하원 예산 및 조세 위원회, 가스프롬과 가스프롬 은행 등에서 일을 해 온 행정가 출신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러시아의 문화 검열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일에 참여한 바 있어 비판 여론이 더욱더 거세게 일었고, 이어 5월에는 세르게이 쇼이구(С. Шойгу)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었던 행정관료 마리아 키타예바(М. Китаева)가 프로니체바의 팀에 합류해 더 큰 논란이 되었음. 그리고 결국 이는 루블료프의 이콘을 러시아정교회에 양도하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2023년 러시아 문화에 대한 국가의 장악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음.

- 러시아를 비판한 지식인들이나 기관을 지칭하는 ‘외국 에이전트(иноагент)’의 숫자가 현저히 늘어나 2024년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거나 러시아를 떠나 해외로 이주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공연이 금지되었거나 러시아 입국이 50년간 금지된 유명 인사들의 수가 180명을 상회하는 상황임.
 - 이들의 목록에는 록그룹 아쿠아리움의 리더 보리스 그레벤시코프(Б. Гребенщиков), 마시나 브레메니의 리더 안드레이 마카레비치(А. Макаревич), 러시아 연예계의 대모 알라 푸가초바(А. Пугачева)와 그의 남편 방송인 막심 갈킨(М. Галкин), 러시아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대부이자 프로듀서인 발레리 멜라제(В. Меладзе) 등 러시아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많은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음.
 - 러시아의 ‘외국 에이전트’ 관련 법령은 2012년 제정된 것으로

로 미국에서 1938년 시행된 ‘외국기관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의 러시아 버전에 해당함. 이는 러시아 내 법인이 국외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경우 법무부에 자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외국 에이전트로 지정되면 다음의 제재가 따름: ①국가기관, 특히 선거기관 근무 불가 ②러시아 정부의 재정 지원 불가 ③대중 행사 개최금지 ④미성년자를 위한 상품 및 콘텐츠 제작 금지 ⑤세금 간편 신고 불가 ⑥정보확산 금지.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개인, 법인, 위반의 계속성 등에 따라 차등화된 벌금을 부과함.
-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12월 처음으로 목록을 발표한 이래 목록에 포함되는 법인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였고 급기야 이제 법인 아닌 개인도 포함되었으며 이 중 18%의 러시아인들이 2022년 3월 제정된 ‘가짜 뉴스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그림 1] 보리스 아쿠닌에 대한 기사에서 제목 아래에 외국 에이전트에 대한 글임을 밝히고 18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음(左). 러시아 신문 가제타.ру(Газета.ру)의 인물 DB 중 막심 갈킨 항목, 여기에는 막심 갈킨의 이름 옆에 별표가 붙어 있으며 그가 9월 16일부로 외국 에이전트로 지정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음(右).

- 현재 러시아 매체나 인터넷 콘텐츠가 외국 에이전트에 관한 기사를 쓰거나 이들에 대해 언급할 시, 마치 이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반드시 별표와 함께 그가 법무부에 의해 해외 에이전트로 지정되었음을 밝혀야 하며,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도 함께 적어야 함. 다만, 외국 에이전트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알림을 통해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지는 않음.
- 2023년 12월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보리스 아쿠닌(Б. Акунин)이 극단주의자로 지정되면서 그의 책은 서점에서 완전히 사라졌음. 러시아 최대 도서전인 ‘논픽션’에서도 그의 책을 볼 수 없었고 아쿠닌 전담 출판사 <자하로프>는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음.
- 반전 캠페인이나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우크라이나 옹호 등의 이유 없이 금지된 작품들도 다수 존재함. 가령 2023년 가장 큰 스캔들이 되었던 거장 알렉산드르 소쿠로프(А. Сокуров) 감독의 영화 <스카스카(Сказка)>에 대한 금지 조치가 그 예임.
- <스카스카>는 소쿠로프가 자신의 과거 작품들에서 변주된 권력과 죽음의 문제를 결산하는 관조적인 영화로서 20세기 역사의 영상자료와 배우들의 연기가 결합된 독특한 기법과 뛰어난 영상미가 돋보이는 걸작임. 이 작품은 부산영화제에도 출품된 바 있음. 물론 예수와 스탈린, 처칠 등이 등장하고 그들의 권력의 덧없음에 대비되는 예술의 영원성이 이야기되는 문제작이지만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인류 보편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 성찰에 가까움.

상영금지 «Сказка» А. Сокурова



[그림 2] 소쿠로프 영화 <스카스카>의 주요 장면들

- 그런데도 이 영화는 러시아에서 상영이 금지되었고 마침 크세니야 솅차크(К. Собчак)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화를 일종의 사전시사 형식으로 공개했음. 전체 영화와 그에 대한 평론가들의 대답을 지금도 솅차크의 채널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음.
- 소쿠로프 영화뿐 아니라 동성애적 내용, 폭력성 등등의 이유로 많은 작품이 금지된 데 대해 러시아 영화인들은 당연히 크게 반발했으며, 이러한 정부의 검열 강화로 인해 결국 러시아 내 정부를 비판하는 일명 ‘외국 에이전트’ 숫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물론 전체 러시아인 중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해당함. 설문 결과에 따르면 외국 에이전트 지정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80%를 웃돌며, 이때 이 수치는 현재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이처럼 2022년 전쟁 발발 후 국가 주도로 변질한 러시아 문화는 국가의 간섭과 검열 과정에 분명 후퇴를 겪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다

만 검열이 상존했던 러시아-소련 문화사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이러한 검열이 그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상상력을 빈곤하게 하는데 머물지않은 않았으며 대중의 욕망과 충동을 억누르는 동시에 그러한 징후들에 대한 심의와 성찰을 추동하게 하고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게 하는 역설적 조건으로 기능한 것은 분명함. 이는 2023년 러시아 문화가 보여준 다양한 이슈들과 성과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

III. 복고

- 경제제재로 인해 서구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할 수 없는 현실은 러시아 영화 및 드라마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음. 지난 10년간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늘리며 성장세에 있던 러시아 토종 OTT(스타트 TV, 키노포이스크, 오코 TV 등)를 통해 방영된 러시아 드라마는 주제와 장르가 다양화되어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글로벌 콘텐츠의 대체재로 사용됐음.¹⁾
- 이때 드라마와 영화 부분에서 지난 2023년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복고 콘텐츠의 약진이라 할 수 있을 것임. 2023년 1월 1일 개봉해 극장가를 강타한 가족 영화 <체부라시카>는 그러한 복고의 부활을 알

1) 물론 서구의 영화와 드라마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이를 접하는 것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2023년 영화계 최고의 작품을 묻는 레바다 센터의 설문조사에서 <오펜하이머>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라 할 것. 이와 함께 러시아 콘텐츠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해적판 문제가 전면화된 것도 흥미로운 상영 금지된 러시아에서도 바벤하이머(Barbie+Oppenheimer)의 인기는 피해 갈 수 없었고 이를 포착한 이들이 극장에서 비공개 사전시사 형식으로 해적판 비디오를 상영해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리는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미국과 유럽 영화의 수입 및 정식 개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러시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러시아 고전 애니메이션 캐릭터 체부라시카를 실사영화와 결합한 어드벤처 코미디 가족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어 <아바타>가 직전에 세운 박스오피스 기록을 포함해 역대 영화 기록을 다 갈아치웠음.
- 러시아는 물론 전통적으로 애니메이션 영화의 흥행 성적이 좋은 나라이며, 러시아 영화 제작이 부진했던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에는 박스오피스 10위 안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세 편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이 영화의 경우 애니메이션 캐릭터뿐 아니라 고전적인 선악 구조, 코미디와 휴머니즘이 결합한 전형적 서사가 더해져 ‘체부라시카 신드롬’을 낳았음. 이후 체부라시카는 뮤지컬-서커스로도 제작되었고 2024년 초에는 2026년 개봉 예정으로 속편 제작을 공식화함.
- <체부라시카>의 성공은 따뜻한 동화가 필요한 오늘날의 러시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 러시아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복기하게 하는 긍정적인 콘텐츠에 열광하였음.

● <체부라시카> 외에도 러시아인들의 공동 기억에 호소하는 다양한 복고 콘텐츠가 등장했고 이들은 상당한 호응을 얻었음.

- 2007년 인기 드라마였던 <아빠의 딸들(Папины дочери)>이 <새아빠의 딸들(Папины дочери. Новые)>이라는 제목의 속편으로 제작되었고, 1990년대 말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프론트맨 중 한 명인 고르세노프(Горсенеv)가 2013년 약물 및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후 해체되고 말았던 페테르부르크 출신 호러펑크그룹 ‘왕과 광대(Кароль и Шут: КиШ)’를 다룬 동명의 드라마가 만들어져

1990년대 페레스트로이카를 겪은 이들의 애수를 불러일으켰음.
위 두 작품은 모두 2023년 10대 히트작 안에 포함되었음.



[그림 3] <新아빠의 딸들>의 동화와 같은 한 장면(左), <왕과 광대>에 포함된 공연의 한 장면(右)

- 복고 콘텐츠는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 형식과 결합하기도 했는데 가령 러시아식 스팀펑크, 일명 ‘자작나무펑크(birchpunk)’ 드라마 <사이버 시골(Кибердеревня)> 같은 작품이 그 예라 할 것.
 - 이 드라마는 러시아의 전형적인 코미디 소재들(가령 무서운 아내, 농촌의 일상, 그러한 생활의 애환 등)이 화성이라는 배경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설정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었음.
 - 미래의 화성이라는 시공간 설정이 무색하게 공상과학적 설정과 첨단기술은 고철 덩어리를 연상시키는 로봇과 아날로그 감성의 소품, 농촌의 소박한 삶 안에 녹아들어 드라마의 희극적 효과를 극대화했음.

- 특히 2023년 최고의 인기 드라마, 러시아의 대표적 OTT 스타트 티비(START TV)를 통해 방영되면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러시아 드라마 역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작품 <그놈의 말. 아스팔트 위의 피(Слово пацана. Кровь на асфальте)>는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혼란기를 소환하는 복고 콘텐츠였음.

- 이 드라마는 1980년대 카잔 지역의 갱단 이야기로 같은 학교 학생들의 엇갈린 운명을 다룸.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어린 소년들의 이야기를 포함해 당시 러시아 사회, 특히 지방 도시 젊은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작품이었음. 드라마의 지나친 폭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모래시계>처럼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음. 드라마 사운드트랙은 큰 성공을 기록했고 주인공 얼굴 문신을 하는 것이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
- 드라마는 가혹한 1980년대의 삶이 순수한 학생을 잔인한 갱 단원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과정을 첫사랑으로부터 첫 배신, 첫 살인의 가차 없는 절망으로 이어지는 느와르적 성장 서사와 결합하면서 폭력과 인간성, 정의의 문제를 다루었음.
- 페레스트로이카로부터 시작된 소련-러시아의 포스트소비에트 ‘체르누하’와 1990년대 러시아 갱영화를 소환하는 이 드라마의 흥행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처한 전시(戰時) 사회의 불안과 위기감의 징후로도 이해될 수 있음.



[그림 4] 2023년 러시아 영화와 드라마 히트작들 뒷줄 왼쪽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① 드라마 <그놈의 말. 아스팔트 위의 피> ② 영화 <체부라시카> ③ 영화 <도전> ④ 드라마 <사이버 시골>

IV. 애도

-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이 가져온 우울감을 치유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사회적 애도가 필요했던 러시아 사회가 일종의 신과 정서에 의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며 이는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었음.
-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Живые и мертвые)>은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공연이었음.
 - 이 작품은 콘스탄틴 시모노프(К. Симонов)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

- 든 음악극으로 스탈린그라드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처음 볼 고그라드에서 공연되었고 이후 모스크바에서 공연을 이어갔음.
- 내용은 전쟁에서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결단과 고뇌에 관한 것으로 연극 무대 배경에는 계속해서 흑백의 자료화면들이 펼쳐져 전쟁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강화했음.
 - 게다가 공연의 음악을 맡은 유리 바슈메트(Ю. Башмет)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솔리스트 실내악 앙상블의 연주자들은 모두 군복 차림으로 등장했고, 특히 지휘자인 바슈메트는 장군의 복장을 해 눈길을 끌었음.



[그림 5]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음악을 맡은 모스크바 솔리스트 앙상블의 연주자들과 지휘자 유리 바슈메트가 군복을 입고 무대인사를 하고 있음.

- 당연히 연극의 주제가 되는 스탈린그라드는 돈바스로 확장되어 일할 수밖에 없었으며 연극 마지막 장면에서는 대부분 러시아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연극은 연일 매진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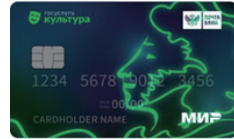
- 2023년 연극계에는 사실 높이 평가할만한 공연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게다가 러시아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들이 러시아를 떠났음. 가령 세레브렌니코프는 독일에, 유리 부투소프는 라트비아에, 투미나스는 리투아니아에 정착했음. 그런데도 공연장을 찾는 전체 관객의 수는 증가했고 러시아 공연계는 활황을 보임.

- 정부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학생들(14~22세)에게 지급한 5,000루블 상당의 문화상품권 푸시킨 카드도 영화 및 공연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임. 이는 러시아문화프로그램 확산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젊은 세대가 미르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유입되게 하는 부수적 결과를 가져옴.

- 모스크바 예술극장 125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바냐 아저씨>와 <9월 10, 11번 자리> 등에서는 연극계 원로들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러시아 교통카드 트로이카의 모스크바 예술극장 125주년 기념 버전도 발행되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러시아 역사의 전쟁을 조명하는 전시들이 다수 마련됐음.

- 5월에는 흑해 연안 영토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그곳이 러시아에 속한 것임을 강조하는 전시가 크림에서 열렸고, 2023년이 저물 무렵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다루는 전시들도 등장했음.



[그림 6] 푸시킨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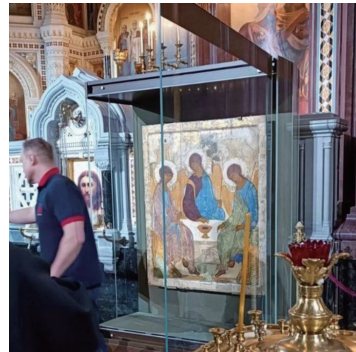
- 다만, 늘 성대하게 열렸던 5월 9일 승리의 날 기념행사는 다른 해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음. 당시 러시아는 한참 전쟁 중이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의 비난이 강화되고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이 행해졌던 데다 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군부에 대한 비판 또한 거세었음. 이에 러시아 정부는 매우 소박하게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입장에 감동하고 공감하게 하는 다분히 신파조의 수사학을 통해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애도했음.
- ‘불멸의 연대’ 행사 역시 2023년에는 러시아 정부가 안전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행진을 금지해 오프라인에서의 행사는 취소되었고, 온라인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되었음. 승리를 기념하는 떠들썩함 대신 러시아의 입장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며 전쟁에서의 희생을 애도하는 것이 국가 전반의 분위기였음.
- 모스크바 승리 박물관에서는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비튼 제목인 <보통의 나치즘과 보통의 나토치즘(Обыкновенный нацизм и обыкновенный НАТОцизм)>이라는 전시가 열렸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에게 행한 만행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러시아 영웅들을 기리는 전시가 같은 곳에서 열린 바 있음.
- <러시아의 화가들이 조국의 영웅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조국수호의 날’에 즈음해서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특별히 모아 놓은 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화가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군인이 전장에서 직접 그린 그림들이 <전선에서의 에튀드>, <우리 시대의 영웅> 등의 제목으로 전시되기도 했음.



[그림 7] 모스크바 승리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 <보통의 나치즘과 보통의 나토치즘>(左), 우크라이나 참전 군인 유리 시바체프가 전장에서 그려 전시한 작품 <승자들의 교향곡>(右)

● 국민의 단결을 끌어내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교의 역할은 지대했으며,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루블료프의 <삼위일체>를 러시아정교회에 반환하고 이를 구세주 성당에서 전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임.

-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의 신임 관장 엘레나 프로니체바는 정부의 요구에 바로 응해 루블료프의 성화 <삼위일체>를 그것이 원래 있던 장소인 세르기예프 라브라로 이전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반환 전에 먼저 모스크바 구세주 성당에서 여름 한 달 동안 전시하였음.
- 러시아 사회에서 최근 정교가



[그림 8] 온도 조절 장치도 없이 2023년 6월 구세주 성당에 전시되고 있는 루블료프의 <삼위일체>. 2024년 1월에도 다시 구세주 성당에 전시되었음.

갖는 정신적 역할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성화를 민중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는 십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작품이 15세기에 그려진 러시아의 오래된 문화유산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음.

-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작품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처리를 했다고 해도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고미술품을 온도조절 장치도 없이 더운 여름 내내 구세주 성당에 전시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2024년 초에는 또다시 구세주 성당에 전시해 대중에게 공개했음.
- 작품을 직접 보려는 신도들이 성당에 모여들었고 대중은 이에 호응했지만, 러시아의 문화유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음.

● 포트리 대제 탄생 350주년을 기념해 <포트리 1세: 제국의 탄생>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가 스웨덴과 벌인 북방전쟁의 승리를 치하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며 러시아의 힘을 강조했던 2022년과 달리, 2023년 러시아의 국가주의 서사는 시련과 그것의 극복을 위한 믿음과 단결, 희생과 이에 대한 애도의 감각이 보다 강조되었음.

V. 러시아, 러시아 세계(Русский мир)

● 2023년 12월 방문했던 모스크바는 다른 해와 다름없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축제의 분위기가 한창이었음.



[그림 9] 붉은 광장의 아이스링크와 크리스마스 시장, 화려하게 조명이 밝혀진 굽 백화점

- 발전소를 개조해 만든 모스크바의 복합문화공간 게스-2(ГЭС-2)는 2021년 12월 개관 이래 2022년과 2023년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부상함. 2023년 12월 방문했을 때 자작나무가 가득한 환상적인 눈 덮인 뜰과 풍피두 센터를 건설한 이탈리아 건축가의 설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던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첨단 시설이 돋보이는 이 공간은 전시와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음. 지하 전시관에서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 중 한 명인 올가 로자노바 작품전과 소련 우주개발의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140개 태양으로 불타는 노을(Закат в сто сорок солнц)>이라는 전시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전시가 러시아 전역 박물관들의 협업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음.²⁾

- 20세기 문화의 최전선이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소련이 선도했던 우주개발의 역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러시아가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으로 전면화하는 주제이며 이는 2023

2) 전시의 제목은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의 시에서 가져온 것이다: В сто сорок солнц закат пылал, / в июль катилось лето, / была жара, / жара плыла — / на даче было это....

년 러시아 영화계를 달군 작품 <도전(Вызов)>에서도 드러났음. 이 영화를 위해 여배우는 감독과 함께 직접 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가 촬영을 했고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우주인이 직접 조연으로 출연했음. 이러한 획기적인 기획으로 영화는 큰 관심을 받았고 러시아 내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였음.

● 2023년 러시아에서는 마치 전쟁의 상처를 상쇄하듯 러시아의 역량과 가능성에 대한 종교에 가까운 믿음과 희망의 서사를 담은 전시와 축제가 다수 기획되었음. 그 대표적인 예가 2023년 말 베티엔하(БДНХ)에서 개최된 대규모 전시-축제 <러시아>였음.

- 이 전시는 넓은 러시아 영토를 상기시키며 그 영토를 구성하는 각 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통한 화합을 말하는 분명한 기획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음. 전시는 11월 ‘국민통합의 날’에 시작해 4월 ‘우주의 날’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모스크바인들은 물론 러시아 전역에서 관객들이 모여들었음.
- 전시에는 각 연방주체의 부스가 설치되었고 전통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했음.
- 이 전시는 푸틴의 대선을 위한 기획전이자 러시아의 제국주의와 전체주의를 드러내는 프로파간다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그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시는 러시아 국경을 벗어날 수 없는 대다수 러시아인을 위해 국가가 만들어준 작은 선물이자 일종의 연말 이벤트로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주의, 유라시아주의, 러시아에 적대적이지 않은 친러시아 세계, 즉, ‘루스키 미르’를 겨냥한 신지역주의는 2023년 러시아 문화의 전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었음. 그리고 이러한 루스키 미

르의 통합과 단결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2023년
재개된 제9회 페테르부르크 문화 포럼이었음.

- 지난 2019년 이 포럼에 참석해 직접 목격한바 페테르부르크 문화 포럼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교육자들을 초청해 러시아 문화의 저력을 과시하는 행사로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참가자에게 최고의 호텔과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었음.
- 포럼은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2022년에는 전쟁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다가 올해 재개되면서 그 이름을 ‘통합문화포럼(Форум объединенных культур)’으로 바꾸었음.
- 이 행사의 개막식에 직접 참가한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페테르부르크가 전 세계 문화의 합작품이자 이후 전 세계 문화에 큰 영향을 준 문화의 보고임을 지적하면서 각 민족의 고유성과 주권, 각국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 등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근간임을 강조하였음.
- 또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문화적 선민의식과 문화제국주의를 비판함으로써 미국과 서구의 관행을 비판했고 브릭스(BRICS)와 독립국가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 등 새로운 지역주의를 언급하면서 친러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문화발전과 협력의 가능성을 피력했음. 그는 시리아의 부서진 사원을 러시아 전문가들이 함께 재건한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러시아가 서구의 주도권 외부의 소외된 문화의 수호자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포럼이 재개되면서 명칭이 통합된 문화’의 포럼으로 정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 이처럼 새로운 지역주의의 기획은 2023년 국가 주도의 러시아 문화

각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함.

- 페테르부르크 문화 포럼을 계기로 문화부 장관 올가 류비모바(O. Любимова)는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가장 큰 음악 경연대회이자 축제인 유로비전을 대체할 ‘유라시아비전플러스(ЕвразияВидение+)’ 개최를 제안했고, 1채널 대표이자 소치올림픽 개막식의 예술감이었던 콘스탄틴 에른스트(К. Эрнст)는 새로운 음악 경연대회 ‘인터비전(ИнтерВидение)’를 제안했음.
- 니키타 미할코프(Н. Михалков)는 아카데미상을 대체할 유라시아 아카데미 시상식을 제안했고 이를 당장 실행에 옮겨 중국, 이란, 인도, 벨라루스가 참가를 확정된 2024 유라시아 아카데미 시상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12월에는 자라지예에서 브릭스 플러스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음.

●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의 문화 역량을 강조하고 새로운 문화 지역주의를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 가운데,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클래식 음악 분야의 축제인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경우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음.

-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연기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최되었음.
- 참가자 수가 줄고 중국 참가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자 중에는 미국, 영국 출신도 있었으며 한국 연주자들도 여러 명 수상했음.
- 대신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중계해 전 세계에 오픈했고 그 결과 102개국의 5,0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하면서 이를 러시아 음악의 역량이라 강조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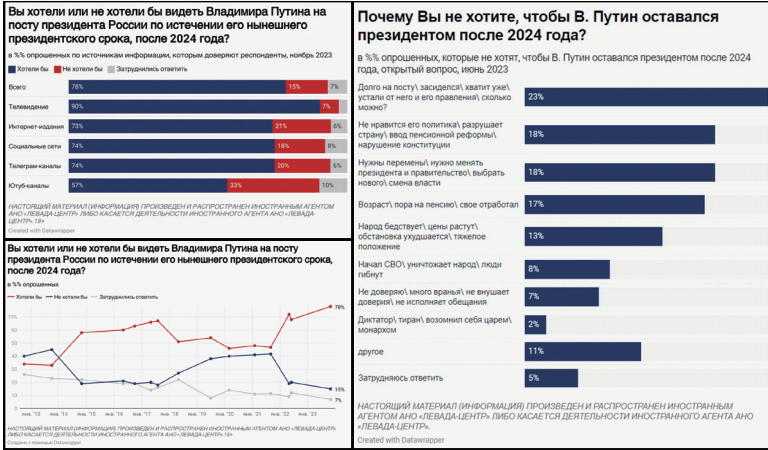
- 전쟁으로 고립에 처한 가운데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혹은 영토 외 부로의 - 유라시아로, 북극으로, 우주로!) 새로운 문화 통합과 루스키 미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가 주도의 문화정책으로 2023년 러시아 사회를 설명할 수 있을 것.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느끼는 위기감을 정치의 문제로 돌리는 러시아 국민의 비율 또한 생각보다 높지 않음.
 - 2023년 한 해 동안 레바다 센터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조사 결과는 현재 러시아인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음.³⁾
 - 전 세계가 2024년 3월의 러시아 대선을 주목하고 있지만 많은 러시아인, 특히 젊은 세대는 러시아 선거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함(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55%만 대선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으며 특히 18~24세의 60%가 이를 알지 못함).
 - 그러나 예상과 달리 러시아인은 65%가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질 것이라 예상하며, 특히 TV를 주로 시청하는 세대에서는 80% 이상이 공정한 선거를 믿고 있음. 반면 유튜브를 주로 시청하는 세층의 경우는 47%만이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질 것이라 답함.
 -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젊은 세대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국가 주도 미디어에 주로 노출된 이들 대부분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 상황과 러시아의 세대별 갈등 및 정치적 이원화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을 뽑겠다는 유권자의 수는 85%에 이르며 심지어 러시아 대선이 민주적으로 치러질 것이라 믿는 이가 47%에 불과한 유튜브 시청자 그

3) 참고로 레바다 센터는 외국 에이전트로 분류된 기관으로, 레바다 센터의 여론조사 기사에는 앞서 설명한 ‘외국 에이전트 주의’ 표시가 붙어 있음.

룹에서도 57%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을뿐 더러 그를 반대하는 이들은 33%에 불과한 상황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높아져 78%에 이르며, 이는 앞서 지적했듯 외국 에이전트 처벌법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비율과 거의 같은 수치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진 러시아 국민의 국가주의를 증명함. 또한 현재 푸틴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의 비율이 78%인데 푸틴 대통령을 뽑겠다는 유권자 수가 85%라는 사실은 결국 푸틴 대통령 지지 여부에 대해 대답을 회피한 7%도 선거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으로 읽힘.
- 놀라운 것은 서구 미디어의 보도와는 달리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 그가 독재자라서 싫다는 사람은 단 2%에 불과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싫다는 사람도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장기 집권과 나이, 혹은 러시아의 변화에 대한 희망 등에 있음. 즉,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 수가 전체 국민의 15%이니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전 국민의 2% 미만에 불과한 상황임.

● 러시아 문화의 양극화나 젊은 세대가 전쟁에 대해 갖는 불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2023년 러시아 사회의 현실은 러시아가 소수의 양심 있는 올바른 지식인들에 대한 억압과 무지한 대중을 향한 국가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겨우 지탱되고 있다는 서구의 자동화된 기대와는 달라 보였음.



[그림 10] 레바다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①2024년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이들이 그들이 의지하는 미디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조사(左上), ②푸틴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이들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조사(右), ③ 푸틴 대통령 지지를 추이(左下)

VI. 맺으며

● 러시아 사회 전반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느끼는 고립감이 퍼져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이전보다 더 위축되었고 이를 러시아 국민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함.

● 또한 외국 에이전트로 지목된 해외로 이주한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 러시아의 인재 유출이 심화했고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금지됐으며 이에 대한 지식인들이 불만은 점차 커지는 상황임. 다만, 앞에서 소개한 설문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적 상황을 정치의 문제로 돌리는 러시아 국민의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 에이전트 금지 조항과 관련된 처벌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외국 에이전트로 낙인찍힌 법인도 그것을 폐쇄하거나 대중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현재 러시아에서의 언론탄압과 검열을 과거 스탈린 치하의 대테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음.

- 형제국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감행한 러시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조국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이 될 수는 없음.
- 서구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러시아 내에서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 영토, 혹은 친러시아 국가들을 아우르는 루스키 미르의 제한적 공간 안에서 새로운 문화협력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국가 주도 정책들이 우세했으며 러시아 국민은 이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호응했음. 이는 지난 ‘철의 장막’의 경험을 아직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들, 특히 중년 이상의 러시아인들에게 사회적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내에서의 전시와 축제 활성화와 러시아 고유 콘텐츠 개발로 이어졌음.
-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러시아 내에서 그것은 이미 이슈의 중심에 서지 못하며, 오히려 최근 가자지구의 끔찍한 상황이 러시아 국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미 2023년 겨울부터는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바 2024년 상반기에는 우크라

이나 전쟁을 기록하는 전시와 우크라이나 전쟁기념박물관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전선의 상황과는 별개로 러시아는 2023년의 끝에서 국가주의와 신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의 세계질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 031-330-4852 FAX 031-330-4884

<http://www.rus.or.kr>



비매품/무료

95340

9 791155 562710

ISBN 979-11-5536-271-0 (EPUB2)